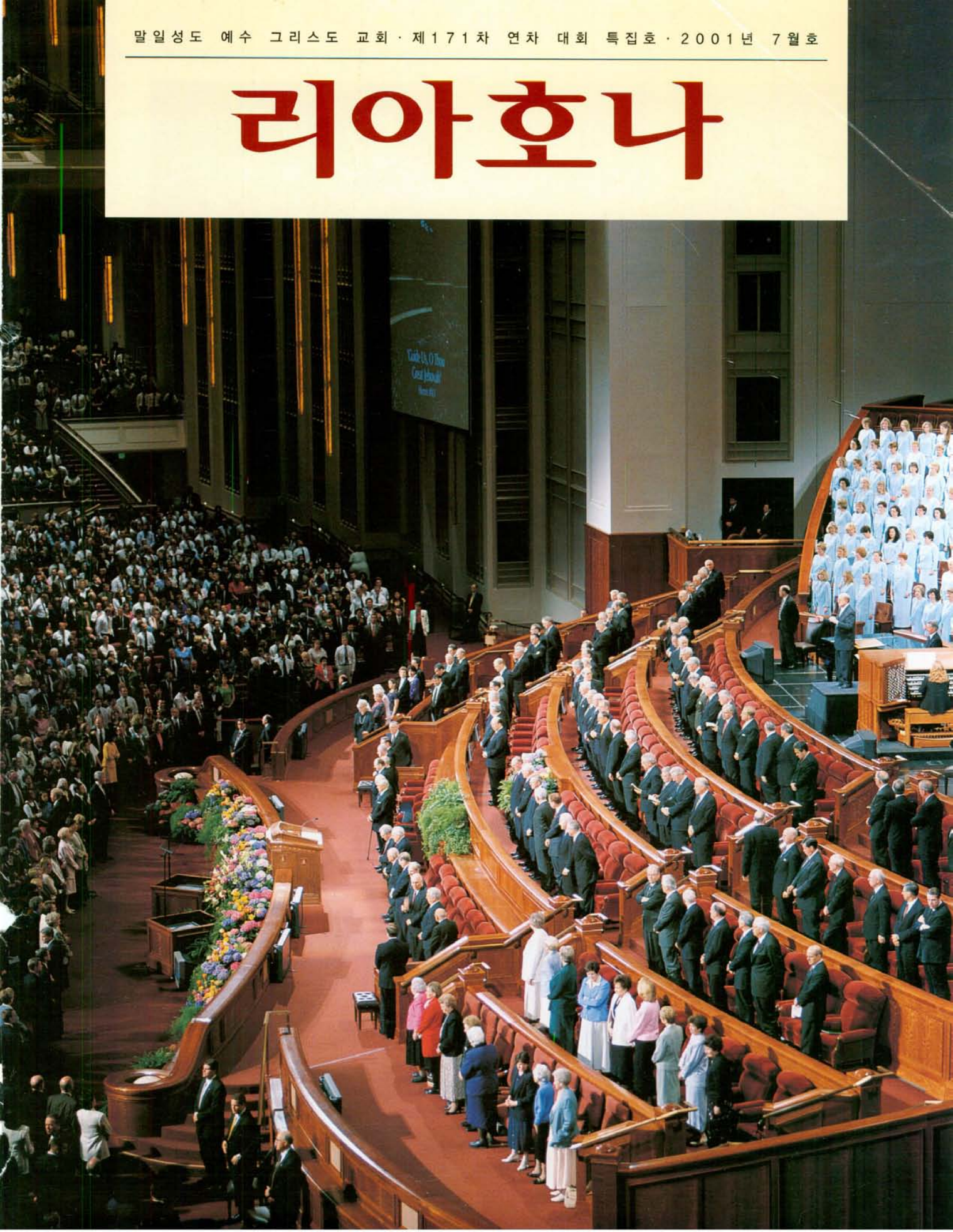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제171차 연차 대회 특집호 · 2001년 7월호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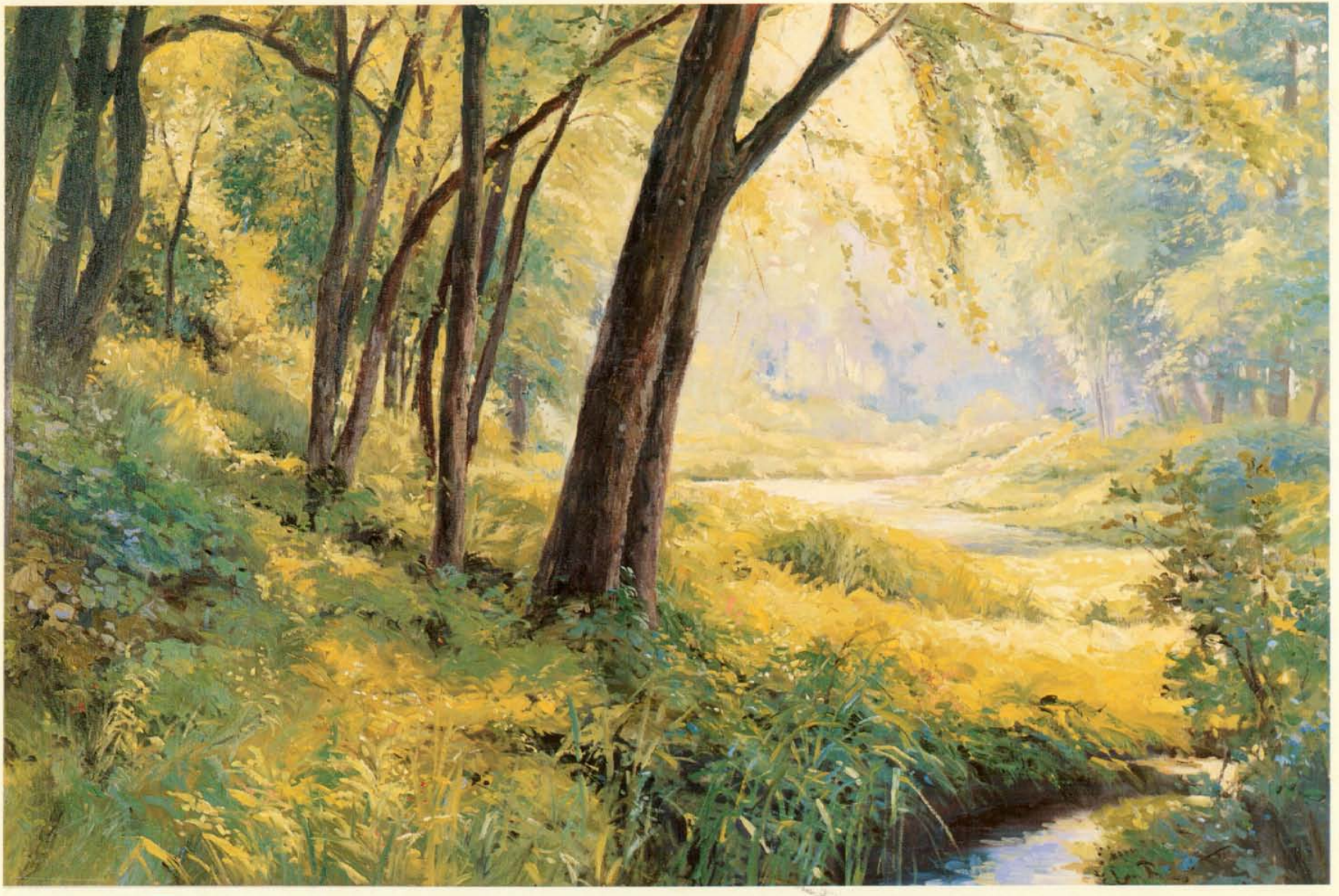


그림: 린다 컬리 크리스턴슨, *사스케하나 강*

펜실베니아와 뉴욕의 시골 지역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변의 광야는 회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일부가 일어났던 곳이다. 이 사건들에는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녔음을 몸소 선언"(교리오· 성약 128:20)하면서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던 일들이 포함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71차 연차 대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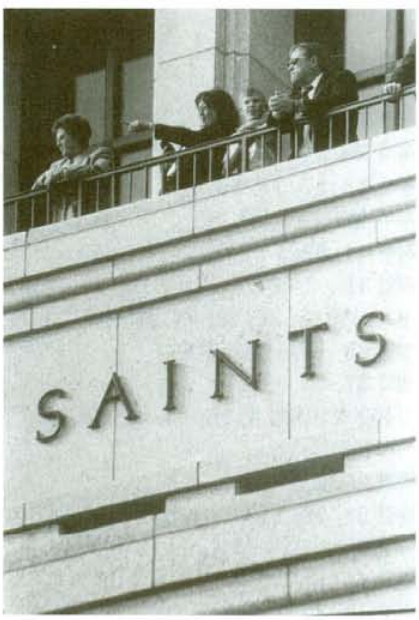
2001년 3월 31일~4월 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행해진 말씀과 진행 절차

2001년 3월 31일 토요일 오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매우 간단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숫자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충실함이 더 커졌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이었다. "교회의 성장과 활력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백성들에게로 가져다 주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그리하여 전 세계의 말일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에 더욱 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앙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유럽, 바다의 섬들에 성전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교회가 회원들의 신앙으로 인해 전진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것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든, 십일조를 내는 것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진 신권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기술이나 다른 수단이 없이는



컨퍼런스 센터 발코니에서 솔트레이크시티를 내려다보고 있는 회원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을 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회의 열쇠입니다."

연차 대회의 각 모임은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사회했다.

토요일 오후에 가진 행정 관련 순서에서 다섯 개의 칠십인 정원회 모두에 새로운 회원들이 추가되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 가운데 두 명이 제일 정원회에 지지되었으며, 다른 네 명의 형제가 같은 정원회에 부름 받았다. 제2정원회에는 여섯 명이 새로 지지되었다. 제3, 4, 5정원회에는 전체적으로 22명의 회원이 새로 부름 받았는데, 이 새로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의 출신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 남 아프리카 공화국 및 일본이다.

대회 모임은 방문자들을 위해 모두 49개 언어로 통역되었다. 또한 전체 모임이 위성으로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카리브 해 연안 국가 및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 중계되었다. 대회 모임의 전체 및 일부 중계를 위해 1,500곳 이상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이나 위성 접시 시스템이 동원 되었다. 모든 모임은 www.lds.org에서 영어로는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로, 그 외 34개 언어로는 오디오로만 접할 수 있다. 위성 중계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비디오테이프가 배부된다.

리아호나 2001년 7월 호, 제7호
21987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트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몸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일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새라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재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캐리 에이 코치, 데니즈 커비, 젤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424호, 제38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샬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랜드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ly 2001 No.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주제 색인

가르침 32
가족 관계 6, 32, 53, 79, 97
간증 34, 92, 102, 106, 109
감사 4, 85
개인적인 가치 104
거룩한 본질 53, 112
경건 53, 94
겸손 9
계시 34
교만 9
교육 41, 60
교회의 성장 4
금식 12, 88
기도 12, 88
기적 12, 82
단합 92
동정심 18
매체 48
모범 15, 32
몰몬경 34, 92
복지 프로그램 41
봉사 18, 57, 77, 85, 88
부부 선교사 15, 28, 85
사랑 44, 92
사업 41
선교 사업 15, 28, 32, 77, 82, 85
성신 68, 104, 106, 109
성약 37, 75
성전과 성전 사업 4, 18, 37, 41, 82, 85, 94
속죄 25, 72
순결 51, 75, 112
승영 6
신권 44, 51, 53, 57
신앙 72, 82
십일조 75
역경 72
영구 교육 기금 60
영성 106
예언자 79
예수 그리스도 25, 34, 44, 72, 92
우선 순위 6, 99
우정 증진 44
음란물 48
인내 72
자립 60
준비 37
죄 25, 48
책임 99
청소년 79
초점 99
축복 51
침례 68
하나님의 왕국 97
활동 촉진 57, 109
회개 9, 25, 48, 112
희망 72
희생 15, 28, 77, 82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60, 82, 102, 112
닐 에이 맥스웰 72
다윈 비 크리스턴슨 32
댈린 에이치 옥스 99
데이비드 비 헤이트 85
데이비드 이 소렌슨 48
러셀 엠 넬슨 37
로버트 디 헤일즈 28
리차드 지 스코트 6
마가렛 디 네이돌드 109
말린 케이 젠슨 9
보이드 케이 패커 25
브루스 디 포터 97
새론 지 라슨 104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12
엘 라이오넬 켄드릭 94
엘 알든 포터 34
엘 톰 페리 41
엠 러셀 밸라드 79
제임즈 이 파우스트 53, 68
제프리 알 홀런드 15
조셉 비 워스린 88
존 에이치 그로버그 51
존 케이 카먹 92
캐롤 비 토마스 77, 106
키스 비 맥멀린 75
토마스 에스 몬슨 18, 22, 57
헨리 비 아이어링 44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에는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에 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과 방문 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에 대회 말씀 중에서 하나를 메시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쪽*의 사진 촬영: 존 루크.
***뒤쪽*의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대회 사진 촬영을 한 사람들: 크레이그 다이몬드, 제드 클라크, 웰든 시 앤더슨, 존 루크, 맷 라이어, 데럭 이스라엘슨, 라나 레이시먼, 켈리 라슨, 티므라 에이치 래티에타 및 조이 고프.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와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 보기 위해서는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71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그 사업은 계속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6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9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12 기적의 하나님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15 "증인이 되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8 동정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2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3 교회 감사부 보고서(2000년도)
웨슬리 엘 존스 형제

24 2000년도 통계 보고서
마이클 왓슨 형제

25 "주님의 손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8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32 미래의 선교사, 데이비드
다윈 비 크리스텐슨 장로

34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 증거하게 하리라"
엘 알든 포터 장로

37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러셀 엠 넬슨 장로

41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룩함
엘 톰 페리 장로

신권 모임

44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48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51 신권의 권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53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57 구조대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60 영구 교육 기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68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72 "희망의 쟁기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75 약속이 따르는 초대
키스 비 맥멀린 감독

77 희생: 영원을 위한 투자
캐롤 비 토마스 자매

79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엠 러셀 밸라드 장로

82 기적을 낳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85 감사와 봉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88 금식의 법
조셉 비 워스린 장로

92 사랑과 간증으로 하나가 되어
존 케이 카먹 장로

94 성전 경험을 승화시킴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

97 왕국 건설
브루스 디 포터 장로

99 초점과 우선 순위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102 다음 대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청녀 대회

104 해의 왕국의 길잡이
새론 지 라슨 자매

106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킴
캐롤 비 토마스 자매

109 보혜사, 안내자, 증언자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

112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16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17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17 2001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119 참고 지도서

123 새로운 총관리 역원

토요일 오전 모임
2001년 3월 31일

그 사업은 계속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훌륭한 백성이 됩시다. 친절한 백성이 됩시다. 이웃같은 백성이 됩시다. 진정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위대한 대회에 함께 모이게 되어 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날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청녀들에게 이야기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앨범을 한 권 줬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73년 전입니다. 저는 1928년도 졸업생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젊고 힘에 넘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작고했습니다. 몇 명이 남아 있지만 모두 주름지고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따금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불평하면 제 아내는 "당신도 참,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아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 편안하고 유쾌한 삶을 위해 큰 헌신과 역량을 지닌 사람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을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게 된, 전 세계의 위대하고 충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편지와 꽃과 서적을 보내주시고, 사려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상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만나고 간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 관대한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64년간 함께 해온 저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충실한 후손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친절과 저에 대한 정중함에 감사 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구성하는 일천 백만이 넘는 이 거대한 가족 구성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매우 간단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숫자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충실함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성전을 헌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언어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헌납식에 참석하고자 먼 곳에서 온 우리 성도들의 임청난 신앙을 보았습니다. 성전 활동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활동 분야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큰 전쟁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에 충돌이 있

제171차 연차 대회의 각 모임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긴 하지만 세계 대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릭스 대학이 4년제로 바뀌어 이제는 비와이유 아이다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로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지 프로그램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상당한 양의 구조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특별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식량, 의약품, 의복, 침구, 기타 필수품들을 보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매우 관심을 갖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활력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전에 이것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난 연차 대회 이후 2000년 말까지 100개의 성전을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루과이 성전을 헌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3번째 성전입니다.

성전 건립의 이 위대한 사업은 전세계로 뻗어 갑니다. 일전에 저는 운영 중이거나 발표된 성전 121개의 목록을 봤습니다. 목록의 분량과 성전이 위치한 지역의 다양성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백성들에게로 가져다 주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그리하여 전 세계의 말일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에 더욱 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전 축복이란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완전한 신권을 뜻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전의 위치가 집에서 훨씬 가까워짐으로써 주님의 집에서 행할 수 있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

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터 쿼터스, 네브라스카,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호주의 퍼스에 곧 성전이 헌납될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브라질의 캄피나스, 워싱턴의 트라이시티 지역, 덴마크의 코펜하겐, 텍사스 주의 루복, 멕시코의 몬테레이, 일리노이 주의 나부, 애리조나 주의 스노우플레이크,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성전이 곧 헌납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섯 개의 성전 건립이 발표되었으며 착공식을 곧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바다의 섬들"에 성전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이 지명들은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흥분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교회가 성숙해 감을 의미합니다. 힘과 자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집을 계속 건립할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도록 하는 충실한 말일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비판자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열하고 사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고 도와주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훌륭한 백성이 됩시다. 친절한 백성이 됩시다. 이웃 같은 백성이 됩시다. 진정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됩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심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랑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합니다. 주님 앞에 충실한 생활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위대한 모임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상적인 가정을 갖기 위해서 지상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족 선언문에 있는 원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대와 흥분과 감사로 가득 찼던 순간, 즉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내려가기 위해 영의 세계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행복을 가져올 교훈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교훈들은 여러분을 승영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면전에서 해의 왕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영향과 사악한 영향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 것이므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은 어떤 대가와 노력과 고통과 시험이 따를지라도,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충만함이 지상에 존재하는 시기에 오도록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교회와 거룩한 성전 의식을 행하기 위한 신권의 권능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강화시키고, 진리를 가르치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되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이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음 말씀은 여러분이 지상에 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4~26)

아담을 지상에 두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의 배필을 지어 남자를 돕게 하자. 사람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아니함이라."(아브라함서 5:14) 이브와 아담은 첫번째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모세서 3:24) 그들

은 자녀를 가졌고 그들 또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모세서 5:16)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란 형태가 확립되었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름]"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상적인 가족*이 있다고 배웁니다. 그것은 의로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그에게 인봉된 의로운 아내와 부부에게 인봉되었거나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봉사가 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는 모범과 교훈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님과 그분의 진리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족 선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운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성숙해 갑니다. 그들은 순종, 고결성,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대한 신앙의 특성들을 발전시킵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각자 비슷한 이상과 목표를 가진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인봉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계획은 계속되고 세대가 거듭 될수록 강화되어 갑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이상적인 가족*을 통하여 이 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신앙을 통하여 가능한 한 그것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코 그러한 목적을 단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을 나이가 되고 성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성전 의식을 다 받으십시오. 현재, 의로운 동반자와 성전에서 인봉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인내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형제들은 비회원 아버지와 저활동인 어머니가 성전에서 인봉되기까지 30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그 축복을 장막 이편에서 얻게 될지 저편에서 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로, 합당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생활 양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여기 지상에 있는 동안 더 큰 행복과 만족과 성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우리가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는 것을 저지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강한 가족을 이룩하는 데에 정신과 마음을 쏟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흥미롭고 신나는 일들도 많고, 또한 여러분을 압박하는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밀어 닥칠 때, 그릇된 일들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기 쉽습니다. 사탄은 선한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삶을 채우게 하여 필수적인 것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부지불식 간에 그러한 덫에 걸려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육체로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7)

왜 인간에게 도덕적 자유 의지가 주어졌습니까? 단지 즐거운 삶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기 위해 주어졌습니까?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상에 온 목적을 완전히 실행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행복과 발전을 보장해 주는 우선 순위를 세울 수 있게 해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저는 큰 잠재력을 가진 똑똑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대해 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왼쪽) 및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오른쪽)이 대회 모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에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즐길 시간을 뺏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채 세미나리 반을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원하는 것, 즉 희생이 별로 없고 큰 즐거움을 주는 쉬운 생활만을 선택하고 있네. 잠시 동안은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걸세. 그러나 자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자네의 장래를 점점 좁히고 있네. 자네는 가능성과 선택의 범위를 줄여가고 있는 걸세.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자네의 나머지 인생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올 걸세. 자네는 자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네."

저는 제가 오늘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성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은 아니지만 큰 성장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기도와 금식과 간증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선교 사업은 영에 의해 인도되고, 우리의 지상 생활의 목적을 이해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저는 주님께 그가 올바른 우선 순위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반대인 또 다른 청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가 아기였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그를 모범과 교훈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합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희생과 자기 수양을 키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러한 자질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 수영을 선택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수영 연습은 자기 훈련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요일에 수영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참석했을까요? 그는 그의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하게 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수영하지 않겠다는 규칙에 예외를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들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거부와 외로움과 압력으로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고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종종 큰 도전이 있기도 했지만, 수백 가지의 의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 지속적인 의로운 생활은 해가 지남에 따라 힘과 능력을 지닌 성격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서 일에 대한 능력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흔들림 없는 헌신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결심으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한때 또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래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 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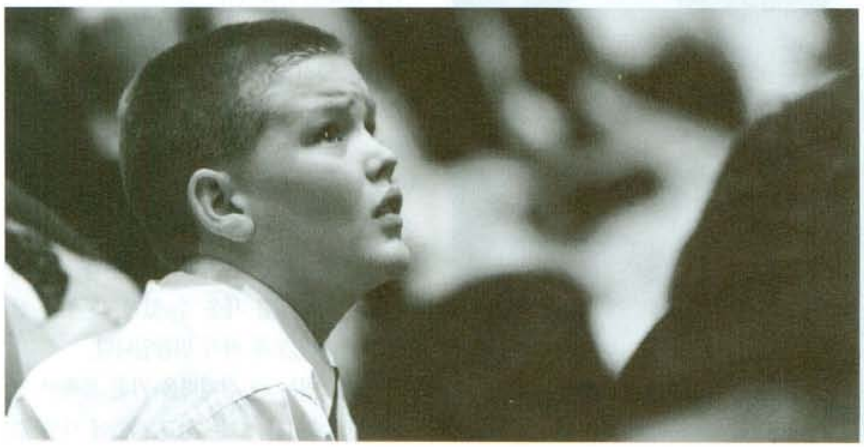
"…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58:26~29) 이는 발전과 성장이 중지됨을 의미합니다.

건전한 기쁨은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써 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상 생활의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편리하거나 삶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행복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격언 중에 값을 치룬 만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순종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배운 진리들을 부지런히 적용하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값을 치룬 대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성격 형성, 실력 향상, 증



명된 이 지상 생활의 목적의 성공적인 완성일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이 필요한 의식을 받고 필요한 성약을 지키는 등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도 않았는데 해의 영광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자주 되풀이 됩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오직 주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성신의 지시를 분별하기가 쉬운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명상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 각자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곧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성취해야 하는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시간에도 나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회개하고 지금 당장 멈추겠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대답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들을 분석하십시오. 필요하면 조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십시오. *이상적인 가정*을 갖기 위해서 지상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족 선언문에 있는 원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고, 가치 있는 것들과 매우 즐거운 것들을 제쳐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고 정직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주제는 우리 말일 성도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 외에도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1] 저는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교회 젊은이들에게 하신 지난 11월의 말씀을 유의해서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들려 주셨던 소중한 여섯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감명 깊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특히 관심 있었던 부분은 "겸손하십시오"였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에게,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저의 말씀 주제로 "겸손"을 택할까 한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잠시 있다가 놀리듯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겸손해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십시오"라고 하신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일부 평가를 보면 바람직한 성품 서열에서 겸손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낮다는 점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년 동안의 인기 있는 서적들의 주제는 고결성, 상식, 예절, 그리고 많은 다른 덕성들에 관한 것이었을 뿐, 분명히 겸손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을 통한 협상 기술이 가르쳐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공격성"은 사업 세계의 가장 인기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겸손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쉽게 무시되지만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소수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의식하면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같은 칠십인 정원회의 한 분으로부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겸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자신이 겸손해진 것을 모를 때 겸손해져 있는 것이며,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면 아직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2]

이것은 시 에스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스 *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하나입니다. 편지 제14장을 보면 악마와 그의 부하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한 선한 사람이 계속 겸손해지자, 그 악마는 이것을 "매우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루이스의 글에서는 악마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환자가 겸손해지고 있어. 그 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줬나?"[3]

다행히도 구세주께서는 겸손을 키우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고 여쭸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4]

이 구절에서, 구세주는 겸손해지는 것이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겠으며, 우리가 키워야 할 어린 아이 같은 특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 왕은 그의 심오한 몰몬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5]

베냐민 왕은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이 성신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함으로써 영적 발전을 가져오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온유, 겸손, 인내, 사랑, 영적인 유순함 등의 어린 아이같은 속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분이 우리의 됨됨이 곧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유순한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경건하고 감사하게 되며 부름과 권고와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들의 후손들 사이에는 겸손이라는 유순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반 모임에서 예언자 요셉이—아마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브리감 영 대관장이 행했거나 아니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책망이 끝나자 방안의 모든 이들이 브리감 영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사자라고 알려질 만큼 이 강직했던 분은 진지한 음성으로 간단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요셉,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6]

그 반응 자체의 힘이 바로 겸손한 느낌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 역사상 가장 용기 있고 사랑에 찼던 행동인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가장 겸손하고 유순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겸손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한 의견과 입장에 항상 따라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결코 비굴함이나 연약함이나 굴종이 아니라는 것은 구세주의 생애를 보면 분명해 집니다.

겸손에 대한 또 하나의 유익한 관점은 겸손의 반의어인 교만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 겸양과 유순함과 솔직 담

컨퍼런스 센터 청중석을 가득 메운 회원들

백함과 같은 다른 덕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교만은 다른 많은 악으로 이어집니다.

말일성도의 신학에서 보면 사탄이 모든 진리의 적대자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현자들이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휴브리스*(hubris)라는 오만이었습니다.

12년 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한 대회에서 교만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죄요, 큰 악"[7]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교만이 경쟁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 에스 루이스의 다음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교만은 어떤 것을 갖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만 기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자거나 학식 있거나 잘 생겨서 교만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똑같이 부자가 되거나 학식을 갖거나 잘생겼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경쟁의 요소만 없애면 교만도 없어진다."[8] 비교와 질투가 심한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가 아닙니까. 또한 "충만한 복음"을 축복으로 받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 관계에서 도도하거나 젠체하는 태도나 그러한 모양까지 피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보다 겸손해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 하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대명사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식이 높아져도 오만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 된다면 지식을 추구하는 데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겸손을 통해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또 용서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용당할까 걱정돼서 칭찬하는 것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면, 모두가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면, 그 것 때문에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 또는 어떤 조직에서 변하게 될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 사회, 시민들이 권리보다는 책임에 더 신경 쓰는 사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이나마 스스로 나와서 "겸손하게" "제 잘못일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에 산다면 이러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꼭 옳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다른 이들과 그들의 시각에 대한 불용은 그리스 현자들이 자기 파멸적인 죄라고 경고했던 휴브리스(hubris)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상 주요 인물들이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응했더라면 최근의 세계사가 얼마나 다르게 쓰여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 겸손이, 회개의 과정에서 갖는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필요하다면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에 수반되는 겸손이 아닐까요?

저의 생을 통해 보아왔던 겸손의 모범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언젠가, 무덥고 암담한 어느 7월 오후에 제가 어려서 농장에서 범한 실수에 대해 부친은 과잉 반응을 보이시면서 제 느낌에는 범죄 이상의 수준이라고 할 만큼의 체벌을 가하셨습니다. 후에 부친은 제게 오셔서 사과하셨으며 감사하게도 제 능력을 믿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겸손한 표현을 40년이 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훌륭한 아내에게서도 항상 겸손을 보아 왔습니다. 부친 리하이가 잠시 흔들렸을 때에도 그러한 부친에게 지시를 구했던 니파이처럼, 아내는 제 곁에서 3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비록 "연약하나" 끊임없이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주 경전에 나오는 겸손의 간증들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침례 요한이 구세주에 관해 한 말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9] 모로나이가 불완전함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불완전함을 드러내 보여 우리가 모로나이보다 더 현명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10]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의 위대함을 경험한 뒤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11]라고 한 모세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모세의 고백이야 말로 참 겸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가 정말로 훌륭한가는 먼저 겸손으로 측정하라"는 영국 작가 존 러스킨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능력을 의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위대한 사람은 의외로 위대함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성스러운 것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우매할 정도로,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애롭다."[12]

구약전서의 예언자 미가는 살아계신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과 같이 겸손을 키우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13]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 및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겸손히 행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참된 예언자이며, "겸손하십시오"라고 하신 그 분의 권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몸소 모범 보이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세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 받을 것입니다.[14] 우리 모두 그 겸손한 순간을 준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세상의 유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3쪽;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2. Elder Albert Choules, Jr., unpublished Minutes of Seventy Quorum's Meeting, 15 April 1993.
3. The Screwtape Letters (1982), 62~63.
4. 마태복음 18:1~4.
5. 모사이야서 3:19.
6. *뉴이라*, 1976년 4월, 16쪽.
7.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1989년 7월호, 7쪽.
8. *Mere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1952, pp. 109~110.
9. 요한복음 3:30.
10. 몰몬서 9:31.
11. 모세서 1:10.
12. John Ruskin, *The Works of John Ruskin*, ed. E. T. Cook and Alexander Weddenburn, 39 Vols.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03~12), 5:331.
13. 말라기 6:8.
14. 모사이야서 27:31; 교리와 성약 88:104.

기적의 하나님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기적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의 모로나이처럼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 또한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이리니"(몰몬서 9:11) 모로나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으며 사도들의 손으로도 많은 위대한 기적이 베풀어졌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을 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날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약의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던 일과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그 위대한 기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의 세대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의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니파이를 포함한 많은 몰몬경의 예언자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을 북돋았습니다.(니파이일서 4:1~3) 몰몬경의 다른 예언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구주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기록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요한복음 20:31)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위대한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한 어린 소년이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나무 숲에 들어가 자신에게 대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은 하나님, 곧 기적의 하나님께 그의 심정과 질문들을 토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의 출현을 포함한 위대한 기적들이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들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주는 보다 작은 "개인적인 기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에 들려오는 성신의 속삭임이나 지시를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하신 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느낀 것과 결과를 적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날 저는 여행 준비를 하기 전에 숙제를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려고 기숙사의 세탁실로 내려 갔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건조기가 사용 중이었고 건조가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건조기들이 작동이 멈출 시간이면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낙담해서 이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으로 막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내려가서 건조기를 확인해 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구. 방금 가 보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속삭임을 들으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으므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대의 건조기가 비어 있었고 저는 숙제를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조그마한 일, 물론 제겐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런 조그만 일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기적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도움을 간구하는 아이들이 물건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려는 용기를 구하고, 주님의 지지하시는 손길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십일조를 내고 기적을 통해 그들의 등록금이나 집세를 낼 수 있었던 친구들과, 어떤 방법인가로 그들의 가족이 먹을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 경험과 신권 축복으로 용기와 위안을 얻거나 건강을 회복했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적들은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서로 만나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아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신권 축복과 의학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를 임신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일보다 3개월 보름 빨리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병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진통을 멈추게 하고 출산을 몇 수 뒤로 지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 아기의 덜 자란 폐가 기능하도록 준비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48시간이나마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 병동에서 한 간호사가 오더니 아기들이 살아서 태어났을 경우, 그들에게 연결될 장비의 그림을 몇 장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신생아들의 시력 장애, 폐 결함, 신체 장애, 뇌 손상 등의 위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했으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곧 태어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여자 아기, 둘째는 남자 아기였고 각각 1.5킬로그램이 채 안 되는 이 아기들은 신속히 중환자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탯줄 역할을 하는 제대관과 인공 호흡기가 부착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정맥 주사 투여를 위해 혈관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기들에겐 너무 많은 빛도 안 좋고, 너무 많은 소음도 안 좋습니다. 아기들 체내의 화학적 균형을 계속해서 측정해야 했고, 병원 측은 수십 억에 달하는 장비와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원해 어머니의 자궁의 기적을 재현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무수한 작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 결함이 치료되었고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폐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폐렴도 치료되었고 더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했으나 그것 역시 완치되었습니다. 정맥 튜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체되었습니다. 두 달 반 후에 남자 아이는 910그램이 늘었고 산소 보조기를 사용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인공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오른쪽)과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및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왼쪽),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엠 러셀 밸라드 장로 및 조셉 비 워스린 장로.

호흡기가 떼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부모는, 모니터를 단 채로 아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자 아기는 계속 호흡기를 잡아 당겨 빼내어 신생아실 전체에 경보기가 울리게 했습니다. 아마 제 남동생을 따라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기의 목은 막혀서 혼자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 안은 너무 부어 올라서 호흡 전문의들이 튜브를 아기 목으로 다시 집어 넣는데 종종 큰 애를 먹었고 아기는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인공 호흡기에 계속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동생이 집에 온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첫번째 아기를 위해 수술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수술은 아기의 목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한 수술은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허리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그녀의 작은 몸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 어쩌면 남은 평생 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 힘겨운 결정으로 고심할 때 제 딸의 시누이가 모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현 상황, 곧 즉시 금식을 할 필요성과 인공 호흡기를 떼내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데 모으고 기도와 신앙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간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저녁에 기도로 우리의 금식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12월 4일 아침에 가족들에게 전달된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우리 어린 딸을 위해 해 주신 기도와 금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아기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아기는 24시간 째 인공 호흡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의료진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아기가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기를 감히 바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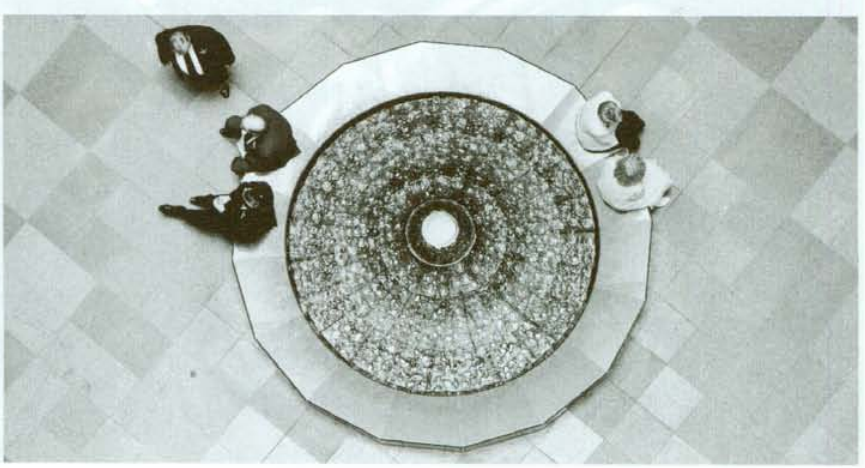
아기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올 수 있었고, 두 아기 모두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또 미래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간청과 금식이 늘 이와 같이 바라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위중한 질병, 이혼의 시련, 자녀들이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 따르는 시험들 이면의 이유들을 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단지 그들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장 혹독한 시련들을 견디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왔고 아마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기적의 하나님을 알며, 힘든 시련의 기간에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영원히 인봉되어 있으며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기꺼이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왕국의 합당한 상속자로 변화시키실 때 행하시는 조용한 기적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저는 우리가 성신이 권유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참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속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진정 몰몬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오늘날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컨퍼런스 센터 내의 분수대 옆에서 쉬고 있는 회원들



"증인이 되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 사업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새로 제작한 전도용 카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손쉬운 수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상 성역을 마치실 때 사도들과 그분을 따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2]

항상 예절 바르고 올바르게 행하기를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업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어느 때 …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3]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교사들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열두 시간의 힘든 책무를 전임 선교사들에게 맡겨 놓을 수 있지만, 왜 그들만 그 모든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도 간증의 풍성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으며, 다행히도 그 자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명언 중에는 어떠한 선교부 또는 선교사도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가며 일하는 회원들의 사랑어린 참여와 영적인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돌판에 그 영원한 말씀을 깊이 새겨 적는다면, 여러분에게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도자들은 처음에는 여러 다양한 근원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침례 받고 확고하게 교회에 활동적이 되는 것은 주로 교회 회원들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친구가 생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24개월 전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교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혼자서 선교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혼자서 해야 한다면, 매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것이며, 추수는 미약할 것입니다. 아니면 회원인 우리가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와드와 스테이크, 지방부와 지부에 속해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거대한 군대"와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메시지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예언자들이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촉구하신 교회 전체를 특징짓는 기쁘고 충만된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회원들 가운데서 확산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 많고 행복한 말일 성도의 생활의 모범보다 더욱 강력한 선교사 메시지는 없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한 회원의 태도와 자세, 미소와 친절은 선교사 소책자나 비디오 테이프가 전달해 줄 수 없는 따스함과 관심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인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느끼고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간증과 행복의 영은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앨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에게 "가서 … 내가 가르친 훌륭한 모범을 저들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손의 도구로 삼아 많은 영육을 구원하리라"[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한 귀환 선교사 자매가 최근에 저에게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반자가 한 구도자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물었을 때, 그 구도자는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을 만나서 그녀가 사는 모습을 지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 사업입니까! 모든 회원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요청은 모든 회원

교회가 새로 제작한 전도용 카드

에게 충실한 회원이 되라는 요청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사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또한 선교사들과 만나는 (또는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이라헤믈라의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6]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 사업의 경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여러분이 원하는 선교 사업의 기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누군기의 마음에 이미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 아직도 …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므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 있는 자들이 많"[7]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찾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삶에서 기근, 즉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8]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아무 것에 대해서나 이야기하십시오.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련의 정해진 선교사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신앙과 행복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에 관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사진도 없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 숫자로만 나타나는 무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게 다가가십시오.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 후엔 들으십시오. 상황이 적절하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복음 진리를 강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고 더 알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이 언젠가 제게 환자 진찰의 첫번째 규칙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환자 본인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법으로 인도해 주는 가장 좋은 안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듣는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우리의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선교 사업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새로 제작한 전도용 카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에 관해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손쉬운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여행할 때 몰몬경을 가득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줄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해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이 선교사에 대한 말씀의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부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여섯 개의 선교부를 돌아보는 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저는 가는 곳마다 19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안정감과 성숙함과 경험들을 나누면서 가장 보람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노부부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와서 조용하고 비이기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몇 명의 전직 선교부장들과 성전장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 개개인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다호 애쉬튼에서 존 헤스 장로님 부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존은 제게 "우리는 그저 감자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에 속한 벨로루시의 국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곳 정부가 지정한 땅에서 난 최고의 감자 수확량이 1 헥타르 당 50 자루였습니다. 1 헥타르에 22 자루의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 수확은 매우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헤스 형제는 정부 땅에서 3피트 떨어진 곳에 땅을 요청하여 소매를 걷어 부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들은 감자를 캐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캐냈으며, 곧 모두를 불러 캐게 했습니다. 같은 강우량과 토양 속에서 경험과 기도와 아이다호 비료를 가지고, 헤스 부부는 그들이 경작한 땅에서 헥타르 당 550 자루를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전년 대비 수확량의 11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요원들이 밤에 와서 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거나, 또는 약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냉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스 형제는 "우리는 기적이 필요했고 그래서 간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망과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했던 사회에 약 일년이 지난 지금은 낙관과 희망이 존재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공적인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다호 출신의 "감자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가 교회 부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선교사들은 이것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봉사를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주로 와드나 지부에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으며, 연령에 관계 없이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하는 확고한 선교사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선교부장으로부터 그의 선교사 중에 한 자매가 충실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 갈 무렵 눈물을 흘리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자, 그 자매 선교사는 가족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가족들은 그녀의 선교사 비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집을 세를 주고 그 세 수입으로 그녀의 선교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은 창고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쓰기 위해 그들은 이웃집의 수도와 호스를 사용했으며,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근처의 주유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가족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매우 독립적이어서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그 지역의 신권 지도자에게 전화가 갔고, 그 가족은 즉시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고, 딸의 선교사 비용은 충분히 충당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닦여졌고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이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매는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근에 훌륭한 청년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족이 했던 것과 같은 심한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희생은 교회 역사를 통해 충분히 치뤄졌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우리가 외치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던 초기 세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의 뒷 세대에게 그러한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각자는 조금 더 행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그가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주어진 수명을 연장하여 지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소망을 허락하시며 이것이 주님의 면전으로 "속히" 오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이며 "좋은 소원"[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든 예언자나 사도들과 같이 요한의 요청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결국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10]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과 이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11]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구속의 속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그분의 사업과 영광[12]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계속 그 사업을 행하면서 저는 예레미아와 함께, 현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하는 이 마지막의 위대한 선교 사업은 결국 그 때 홍해를 건넜던 것[13]보다 더 큰 기적이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열의를 갖고 이 메시지의 기적을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8:19.
2. 사도행전 1:8.
3. 모사이야 18:9.
4.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8쪽.
5. 앨마서 17:11.
6. 앨마서 6:6.
7. 교리와 성약 123:12.
8. 아모스 8:11 참조.
9. 교리와 성약 7편 참조.
1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05쪽.
11. 교리와 성약 18:10.
12. 모세서 1:39 참조.
13. 예레미야 16:14~16 참조.

동정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에게 언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의 오클라호마 시는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저는 최근에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렉스 디 피네가 장로, 래리 브룩스 장로와 함께 그 곳의 한 지역 대회를 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장소는 교회 회원과 구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합창단의 노래는 천국의 음악 같았고 말씀은 영감에 찼으며, 모임 중에 임재한 영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전에 그 곳에 갔을 때 들었던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이 제작한 오클라호마 주 노래 "오클라호마"의 아름다움과, 그 곳 사람들의 환대를 기억합니다.

이 도시는 1995년 4월 19일, 상당한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알프레드 피 머라 연방 청사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되어 168명이 생명을 잃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클라호마시에서 지역 대회가 끝나고, 저는 한 때 알프레드 피 머라 건물이 있었던 그 지역에 세워진 아름다운 기념관 입구로 갔습니다. 그 당시의 악몽을 되새기듯 날씨는 음산하고 비가 왔습니다. 그 기념관에 있는 120m 정도 폭의 연못에는 주변 정경이 비쳤습니다. 한 쪽에는 168개의 빈 유리 화강암 의자가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있었는데, 이 의자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색한 뒤 시체가 발견된 자리에 놓였습니다.

반대쪽에는 근처에서 유일하게 폭발을 견딘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생존자 나무"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사고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기리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안내원이 기념관 문 위에 새겨진 비문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자와 생존자와 부상당한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념관에서 위안과 힘과 평안과 희망과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안내원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회와 그 안의 모든 교회와 시민들은 함께 활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 강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은 "동정심"이었습니다.

저의 머리 속에 뮤지컬, "캐밀롯"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과의 이상적인 관계인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아더왕은 원탁의 목적을 마음에 그리며 "폭력은 힘이 아니며, 동정심은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의 예는 구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의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급기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음식도 물도 없이 버려두었습니다. 대상이 지나갈 때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기 보다는 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화 20냥 덕분에 요셉은 웅덩이에서 구출되어 애급땅 보디발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1] 요셉은 번영했습니다.

수년 간의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극심할 무렵 요셉의 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들은 애급의 요셉 덕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이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2] 요셉은 동정심의 미덕을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절정의 때에 예수께서 성지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실 때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

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주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의심할 것도 없이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때처럼 지금도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3]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가졌던 예를 많이 들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의 다리 저는 사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의 여인, 야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등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접하게 되는 재난 당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다리 저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4]라고 하셨고, 죄지은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5]라고 하셨으며,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는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물을 주셨고,[6]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7]라고 하셨으며, 무덤의 나사로에게는 "나오라"[8]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항상 무한한 동정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곳 미대륙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 오라. 너희 가운데 [다리저는 자]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와 수족을 못쓰게 된 자와 [나병]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린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저들을 고쳐 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가엾게 생각함이라."[9]

그리고는 그들을 낱낱이 고쳐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구속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의 여리고 길에서 그러한 값진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와서 보라"[10]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가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으며 지친 나그네처럼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본부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 진정한 감사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지만 소인은 오레곤 주 포틀랜드 시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관장단 사무실 전

"솔트레이크시티는 한 때 제가 방황하던 시절, 기독교적인 호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버스로 캘리포니아까지 대륙 횡단하는 중에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터미널에 내렸는데 필요한 약이 없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몸이 아프고 떨렸습니다. 보스톤에서 황급히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그만 깜빡 잊고 약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템플 스퀘어 호텔의 식당에서 제가 낙담하여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제 테이블로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라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울면서, 또 조금은 떨면서 곤경에 빠진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뒤죽박죽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듣고 나서는 식당 지배인에게 일러두기를 제가 5일 동안 그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호텔 데스크로 데리고 가서 5일 동안 묵을 수 있는 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저에게 정말로 저의 건강과 안정에 근본적인 생명선인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힘을 회복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매일마다 태버내클 오르간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오르간에서 나오는 훌륭한 음악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버내클 오르간과 합창단의 앨범과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 음악에 의지해서 의기 소침해진 제 영혼을 달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날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열쇠를 반납했는데 그 부부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보답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는 편이긴 했지만 그 때부터는 더욱 열심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로 경전에서 말하는 '말일'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 교회의 회원 두 사람은 제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로 했던 때에 저에게 '성도' 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동정심의 예입니까!

어떤 사설 요양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정심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소유주는 에드나 휴렛이었습니다. 에드나는 천사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은 생을 그녀의 보살핌 아래 지내고자 하는 환자들이 줄을 지어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환자들의 머리를 감아주고 빗어주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제가 한 때 감리했던 와드의 미망인들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에드나 요양원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상냥한 미소로서 환영하며 환자들이 앉아 있는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항상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지니 버트라는 할머니였는데 10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분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저의 가족을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니가 억센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토미, 최근에 에딘버그에 가본 적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가보았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지니는 깊은 몽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례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냈어요. 내 장례식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테니슨의 시 '모래톱을 건너서' 를 암송해 주세요. 한 번 들어 봅시다!"

모든 눈이 저에게 쏠린 듯 해서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양 그리고 저녁 별,
그리고 나를 부르는 또렷한 소리.
내가 바다에 나갈 때
모래톱의 신음소리는 없으리[11]

지니는 다정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미소를 짓더니 "오 토미, 정말 좋았어요. 그렇지만 내 장례식 전에 조금 더 연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고 힘없이 미소 지을 때도 있고, 병의 고통도 있고, 여름이 지나 가고 가을이 오며, 추운 겨울이 오고, 죽음이라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이 죽음은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에게도 옵니다. 그 소환장은 아직 반도 채 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오며, 종종 웃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전세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들과 딸,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과 작별을 고할 때 그들이 슬퍼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고한 온화한 작별의 말은 특히 통절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12]

장례식의 꽃이 시들고 나면 친구들의 기원도 추억이 되고 기도와 말씀도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종종 외롭습니다. 아이

들의 웃음소리가 그립고, 십대들의 소동이 그립고, 떠나간 배우자의 부드럽고 사랑스런 관심이 그리워집니다. 시계는 더욱 크게 똑딱거리고, 시간은 더욱 천천히 가며, 사방의 벽은 감옥 같기만 합니다.

사랑과 동정어린 관심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집 없는 자에게 잠을 재워주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의 동정심으로, 그리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성전에 감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지시하에 새로 건립된 성전과 건축 중인 성전의 수는 매우 놀랍습니다. 지상의 자녀들과 장막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동정 어린 관심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생애에 대해, 복음에 대해, 모범에 대해, 그리고 축복 받은 속죄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클라호마 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기쁨과 다음 세상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횃불로서 이 도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13]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14]

그분의 두드림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들어 오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창세기 39:2.
2. 창세기 45:5, 7.
3. 누가복음 10:30~37 참조.
4. 요한복음 5:8.
5. 요한복음 8:11.
6. 요한복음 4:14 참조.
7. 마가복음 5:41.
8. 요한복음 11:43.
9. 니파이삼서 17:7, 9.
10. 요한복음 1:39.
11. "모래톱을 건너서", 1~4줄.
12. 요한복음 19:26, 27.
13. 시편 30:5.
14. 요한계시록 3:20.

토요일 오후 모임
2001년 3월 31일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엘 위트니 클레이튼,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월터 에프 곤잘레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키스 케이 힐비그, 로버트 에프 오튼, 웨인 에스 피터슨, 알 콘래드 슐츠, 로버트 알 스토이어, 에이치 로스 워크맨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살바도로 아기레, 다니엘 피 알바레스, 데이비드 네이 바네트, 오스카 더블류 샤베즈, 크레이크 씨 크리스텐슨, 칼 비 쿡, 알 마이클 더핀, 티모시 듀세이, 마이클 에이지 홉즈, 리차드 디 메이, 조엘 에이치 맥키논, 조지 멘데스, 마커스 비 내쉬, 티모시 엠 올슨, 리차드 지 피터슨, 게리 엘 포콕, 아르만도 에이 시에라, 게리 엠 스튜어트, 지 페린 워커, 로버트 비 화이트, 래리 와이 윌슨, 가스 히코 야마시타 형제님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힝클리 대관장님,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와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롭게 부름 받으신 분들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

교회 감사부 보고서 (2000년도)

웨슬리 엘 존스 형제
관리 책임자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존경하는 대관장단 귀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철저히 기준에 따라 일하는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사부는 본부의 다른 부서와 운영 단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의 관리 책임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대관장단에게 보고합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들은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관,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자격 있는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의 위험은 감사의 일정과 실행과 보고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대관장단의 명에 따라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부서와 전 세계의 모든 운영 단체들을 감사할 권능을 갖고 있으며, 감사를 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록, 재무 제표와 재정 보고서, 인력, 시설, 그리고 부동산을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횟수와 성격은 교회 감사부의 임원들이 결정합니다.

미국 회계 감사관 협회와 미국 회계사 협회가 제정한 전문 감사 기준이 감사 지침입니다. 교회 감사부는 이러한 인정된 전문 감사 기준에 따라 교회의 각종 재무 제표와 운영 상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교회 단위 조직의 헌금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감독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2000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의 교회 기금 지출은 성문화된 정책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예산 지출 위원회의 지시하에 예산부가 관리합니다. 2000년에 교회 감사부는 교회 기금을 기부하고 지출하는 일을 관리하며 교회 자산을 보호하는 데 지침이 되는 재정 정책과 절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예산 책정, 관리, 회계와 보고 체제, 그리고 세기된 감사 견해에 대한 관리 부서의 시정 조치 방안의 진척 상황을 감사하고 보고했습니다.

재정, 운영, 예산 및 다른 관리 체제에 대해 손해의 위험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감사에 의거하고 또 시정 조치 방안에 대한 관리

부서의 대응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의거하여 교회 감사부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기금의 영수와 지출이, 모든 면에서 승인된 예산 지침과 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밝힙니다.

데져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및 계열 회사를 포함한 교회 관련 업체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관련 업체들의 관리자들은 독립된 이사회와 각기 그들의 감사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000년에 이 관련 업체들의 재정 업무와 운영 상태는 교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브리감 영 대학교와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체들은 독립 공인 회계 회사로부터 매년 재무 제표 감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감사부

웨슬리 엘 존스

관리 책임자

2001년 3월 31일

2000년도 통계 보고서

마이클 왓슨 형제
대관장단 비서

대관장단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 2,581
지방부 수 ····· 621
선교부 수 ····· 334
와드 및 지부 수 ····· 25,915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수 ····· 11,068,861
2000년에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 수 ····· 81,450
2000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 273,973

선교사

전임 선교사 ····· 60, 784

성전

2000년 동안 헌납된 성전 수 ····· 34
연말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수 ····· 102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휴 월리스 피노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원, 버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윌포드 더블류 커튼, 교회 본부 법률 고문 역임. □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노래하는 릭스 대학 합창단 뒤에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컨퍼런스 센터 오르간의 파이프들

"주님의 손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 그러고 나면 우리는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을 내부에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도움이 될 때입니다."

이렇게 역원들을 지지하는 것은 교회를 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세계 교회의 모든 조직에 있는 회원들은 누가 진실한 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죄라는 유쾌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잘못에 따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2]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그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3]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또 일부 사람들은 오랜 동안, 잘못한 일이나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둔 일, 혹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죄책감과 영의 관계는 고통과 육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수술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자연적인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고통인 죄책감은 그 같은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실망감, 패배감 또는 부끄러움으로 짓눌려 있다면, 치료법이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여러분의 민감한 감정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죄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분들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강한* 어조의 이 말씀들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 분들이 하신 가장 심한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예언자 앨마는 그의 죄책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으매 영원한 *고통에 싸여* 있었느니라."[4]

예언자들은 매우 생생한 단어들을 골라 사용했습니다.

심한 괴로움에 *사로 잡히다*는 영어의 Racked를 번역한 말로서 "극심한 고문을 겪다"[5]라는 뜻입니다. Rack는 고문대라는 뜻으로 옛날에 희생자의 팔목과 발목을 축에 묶어 놓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틀이었습니다.[6]

고통에 싸이다는 영어의 harrowed up을 번역한 말로서 harrow(써레)는 뾰족한 못들이 박혀 있는 제초용 농기구를 뜻합니다. 이것을 땅에 박아 놓고 잡아 당기면 흙이 갈라지고 헤쳐집니다. 경전은 죄로 인해 마음과 영혼이 고통에 싸였다(harrowed up)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어의 Torment를 번역한 말로서 "비틀다"라는 뜻이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죄한 사람도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게 할 만큼 끔찍한 고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7]

예언자들은 "쓰디쓴 고통"[8]에 대해 말하면서 종종 죄의 고통을 불과 유황에 비유합니다. *유황*은 고통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예언자 모사이야는 사악한 자들은 "스스로 저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깨닫는 무서운 자책을 받아 그로 인하여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하여 비참하며 끝없는 고난의 처소로 돌아"[9] 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고문하며 정죄한다. … 남자나 [여자]의 마음에 있는 실망의 고통은 타는 불과 유황 못처럼 강렬하다"[10]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못은 경전에서 지옥을 묘사한 말입니다.[11]

영적인 고통과 죄책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치료법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각각의 죄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다른 죄들에 더해지고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상상

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짐을 지고 다닙니다.

경전은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 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로운 것이 … 이루어지지 아니"[12] 할 것이며, 행복도, 기쁨도, 구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3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속죄는 영적 사망과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속을 얻게 해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적 사망인 타락으로부터 구속시켜 주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죄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 불러 올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죄의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고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13]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14]입니다. 죄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15]

어떤 걱정과 우울함은 육체적 장애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마도 대분의 경우에)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초래한 영적인 고통은 마음의 평화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주하는 격한 말들과 대조적으로 공의의 엄격한 말들과 균형을 이루는, 조용하고 치유해 주는 자비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앨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쓴 잔에서 구함을 얻었으며 죄의 사슬에서 속죄 되었도다. 내가 지극히 암담한 심연에 거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보았고, 나의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 이제 나의 영혼이 괴로움을 모르노라."[16]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17]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러고 나면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을 내부에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도움이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실수에 대한 죄 값은 하나 하나 더해질 것입니다.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속을 얻도록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19] 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찌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20]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21] 수 있습니다. 침수로써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약은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새롭게 됩니다.[22]

속죄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매일 매일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속죄는 기도와 같은 매우 간단한 시작으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 고통과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회개를 통하여 죄책감을 없애고 화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서 신앙개조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써] 즉,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공의는 형벌을 요구합니다.[23] 죄책감은 고통 없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할 율법과 받아야 할 의식이 있으며, 치러야 할 죄 값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치료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수양이 있어야 하며, 대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 후에,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판사로 임명된 우리의 감독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4] 그 영적인 심장 수술은, 육신의 심장 수술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면 두 수술 모두, 새로운 삶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 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 앞에 서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25] 계시가 이어졌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26]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 교회가 지상의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27]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신권을 회복하였고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계시 되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이미 온, 그리고 앞으로 올 계시에 따라 인쇄, 전파, 노래, 건축, 교육, 방송 등이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알고 평화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과 항상 존재하는, 그분의 속죄의 권세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공의*와 *자비*에 관한, 그리고 *경고*와 *희망*에 관한 위엄 있는 경전 말씀을, 같은 메시지를 담은 단순한 시 구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지고 흠집이 많아, 경매인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입찰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일 달러, 일 달러; 이 달러, 겨우 이 달러
라구요?
이 달러, 삼 달러 없으십니까?
삼 달러, 한 번, 삼 달러, 두 번
삼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뒤쪽에서, 반백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낡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고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하고
맑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와도 같은.

음악은 끝이 났고 경매인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을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활과 함께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천 달러, 이천 달러 없으십니까?
이천, 삼천 없으십니까?
삼천, 한 번 삼천 두 번
삼천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일부가 외쳤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의 가치를 바꾸어 놓은 겁니까?"
누군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장인의 손길이죠."

조율되지 않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부서지고 흠집이 난 사람들이
생각 없는 군중들에게 값싸게 경매
붙여집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과도 같이.
죽 한 그릇, 포도주 한 잔
도박 한 게임—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한번, 또 한번 되풀이 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며 거의 망가져 버리려고
하는 순간
구세주가 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와 그것에 변화를 일으킨 구세주의 손길을.[2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2:11.
2. 요한일서 1:8.
3. 요한이서 1:10.
4. 앨마서 36:12; 부분적으로 강조됨.
5. 모사이야서 27:29 참조; 앨마 36:12, 16, 17; 몰몬서 9:3.
6. 니파이이서 9:47 참조; 앨마서 14:6; 15:3; 36:12, 17, 19; 39:7.
7. 모사이야서 2:39 참조; 3:25; 5:5; 모로나이서 8:21.
8. 앨마서 41:11 참조; 사도행전 8:23 ; 모사이야서 27:29; 앨마서 36:18; 몰몬서 8:31; 모로나이서 8:14.
9. 모사이야서 3:25.
10. *데저렛 뉴스*, 1857년 7월 8일, 138쪽. 6:8.
11. 요한계시록 20:10; 21:8 참조; 니파이이서 9:16, 19, 26; 28:23; 야곱서 3:11; 6:10; 모사이야서 3:27; 앨마서 12:17; 14:14; 교리와 성약 63:17; 76:36.
12. 니파이이서 2:11.
13. 빌립보서 4:7.
14. 앨마서 42:8.
15. 앨마서 41:10; 또한 11절 참조.
16. 모사이야서 27:29.
17. 앨마서 36:13, 17~20.
18. 교리와 성약 19:16.
19. 교리와 성약 58:42; 히브리서 8:12; 10:17 참조.
20. 에스겔 33:15~16.
21. 모사이야서 4:12; 니파이이서 25:26; 31:17 참조; 모사이야서 3:13; 4:11; 15:11; 앨마서 4:14; 7:6; 12:34; 13:16; 힐라맨서 14:13; 니파이삼서 12:2; 30:2; 모로나이서 8:25; 10:33.
22. 교리와 성약 27:2 참조.
23. 앨마서 42:16~22 참조.
24. 에스겔 36:26.
25. 요셉 스미스서 2: 17.
26. 교리와 성약 115:4 참조.
27. 교리와 성약 1:30.
28. 요한복음 14:27.
29. Myra Brooks Welch,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in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ed. Jack M. Lyon et al. (1996), 182~83.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원숙한 자매나 부부가 선교사로 기꺼이 봉사하기를 원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신권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있는 일에 관해 여러분에게 꼭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신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배우자가 동반자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많은 성숙한 부부들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봉사를 하셨거나 앞으로 봉사를 하실 모든 용기 있는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관리하는 형제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 "이제 이 한 계명을 주노니, 만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교리와 성약 93:40, 43)

우리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칠 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계 가족과 확대 가족 모두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말보다 모범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전 결혼,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등은 모두 지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 즉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선교 지역에 나가 기꺼이 봉사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줄 유산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고 가정에 질서를 세우도록 형제들에게 명하신 후에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은 여행을 떠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 구원의 복음을 … 속히 전파하라 … "(교리와 성약 93:51)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우리가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한 분들은 그들에게 쏟아진 축복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저활동이었던 자녀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되고, 가족들이 침

례를 받고, 그들이 바친 봉사로 인해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한 부부 선교사는 아들에게 농장을 맡겨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날씨가 가물어 이웃 농장에서는 건초의 수확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한 반면 그들의 농장에서는 두 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건초를 두 번씩이나 수확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선교사로 내보내 보세요."

부부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받는 축복이 그토록 크다면, 수만 명의 부부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단 몇 천 명만이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재정 문제, 그리고 선교 사업의 기회를 찾는 일* 등입니다.

*첫째, 두려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봉사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값진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있는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앞서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3:19, 20 참조) 여러분이 젊은 선교사들을 강화시키고 구도자와 새로운 회원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저 활동 회원에게 지도력 기술과 우정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완전히 활동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언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자신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는 보통 장로들이나 자매 선교사들처럼 전도를 하거나 토론을 외우거나 그들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능력을 다해 봉사하시면 주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는 교회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 우정 증진과 지도력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을 심어 줍니다. 저는 영국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처음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던 부부 선교사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지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고 있던,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방문자 센터를 떠나는 것을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갖고 지명 받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오던 지부에는, 이 부부 선교사가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비회원과의 우정 증진을 한 결과 6개월 후에는 1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애에서 가장 훌륭했던 경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부는 최근에 칠레의 산티아고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어도 잘 몰랐으며 안락한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

솔트레이크 성전 동쪽에 있는 맑은 연못에 성전의 부속 건물과 컨퍼런스 센터의 첨탑이 비치고 있다.

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헌신적으로 그 곳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머지 않아, 12명이었던 작은 지부는 75명의 회원이 있는 지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부의 전 회원들은 버스를 전세 내어 그들의 특별한 친구를 전송하기 위해 네 시간이나 걸리는 공항까지 갔습니다.

부부 선교사가 바치는 봉사는 주님의 사업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부 선교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취합니다.

*둘째, 가족에 대한 걱정*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복음 4:19) 그들이 익숙해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지상에서 보낼 시간의 십분의 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업은 익숙한 환경과 가족, 그리고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 더불어 보내는 즐거운 시간에서 단 몇 분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동안 가족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 주는 저희 가족을 부양할 것이요"(교리와 성약 118:3) 부부 선교사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집안 내의 결혼식, 생일, 가족 모임 및 가족의 다른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부모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수천 번의 설교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적힌 간증과 선교 지역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공헌에 대해 읽을 때, 가족의 유대는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한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여 주시는 봉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교회에서의 부름에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교환하고 선물을 보낼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께서는 은퇴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기준으로 볼 때도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었지만 선교 사업을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건강 및 다른 역경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았으며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들을 두고 기꺼이 떠나는 마음으로 인해 축복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부부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봉사하는 동안 손자 가운데 하나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는 선교 사업을 해야 할지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 준 모범 때문에 이제는 꼭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분들이 살고 계시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어깨에 숄을 걸치고,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스 미터에 동전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선교 사업을 하러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손자 손녀가 열한 명이야. 난 그 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거야."

1830년에 주님께서는 토마스 비 마쉬에게 가족을 떠나 선교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마쉬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일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네 가족을 축복하리라. 참으로 네 어린 아이들도 축복하리니 …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이는 네가 전도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 이로써 네 가족도 살리라 … 잠시 동안만 가족을 떠나 나의 말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 가족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리라."(교리와 성약 31:2, 3, 5, 6)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증손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셋째, 재정 문제*입니다. 어떤 부부는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지만 나이, 건강, 재정, 또는 가족 상황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권 모임 참석을 위해 컨퍼런스 센터로 들어가고 있는 형제들

다른 부부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에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무엇인가 희생이 요구된다면, 축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선교사로 봉사하시도록 격려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십시오. 당분간, 아이 돌볼 사람을 쓸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가족이 받을 영원한 보상은 잠간 동안의 희생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아직 가정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훌륭한 모범은 여러분이 후손에게 남기는 유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모든 시간을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고,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젊은이로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축복 받은 노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부부 선교사로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바치는 때입니다.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봉사하는 축복은 참으로 값진 것이며 그것은 경험한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 지역에서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매일 매일은 그날의 보상을 받는 특별한 날이 되며,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봉사로부터 오는 성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사업의 올바른 기회를 찾는 일입니다. 부부 선교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무궁 무진합니다. 선교 본부에서 도움을 주는 일과 지도자를 훈련하는 모임에서부터 가족 역사, 성전 사업, 인도주의적 봉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라도 거의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앉아 건강, 재정적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다 정리 되면 감독님께 가서 준비 되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자매나 부부가 선교사로 기꺼이 봉사하기를 원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신권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감독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분들을 접견하고 추천서를 작성하시고 격려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몰몬 손수레 방문자 센터의 책임자인 클레어런스 알 감독은 선교 사업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봉사한 것은 젊었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네 번은 영감 받은 신권 지도자들의 접견을 통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독이 봉사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네 번은 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숙한 부부와 독신 자매들은 태국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퇴한 교사들과 교육 행정가들은 오랜 동안 그들의 교사 생활에서 다져진 재능과 은사를 무료로 전해 줌으로써 태국에서 학생과 훈련을 받는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잘 해 냈습니다.

제리와 캐런 존슨은 홍콩에서 봉사하며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선교 사업이 끝나 갈 무렵,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자 그녀가 매우 사랑하게 된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소녀가 존슨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팔을 벌려 마치 비행기가 나는 모습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이구오?"* 그것은 "미국으로 가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존슨 자매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미국으로 돌아간단다." 아이는 존슨 자매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그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하고 존슨 자매는 말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다른 학생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어 함께 울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가 사랑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보내시며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복음 10:8) 많은 것을 받으면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생애에서 많은 것을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봉사하러 나아가 거저 주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필요하실지 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할 일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저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나아가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교 사업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미래의 선교사 데이비드

다윈 비 크리스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복음을 접한 우리의 어린 형제 자매들은 데이비드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예언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매우 자연스럽게 키워 나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면 간증을 느끼고 전하는 특권도 갖게 됩니다. 이런 간증은 행동이나 모범으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브라질 레시페 성전 정초식 내내 쏟아진 엄청난 폭우 속에서 우뚝 서 있던 어린 형제를 결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과 파우스트 부대관장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열 살 가량의 데이비드라는 이 어린 소년은 비바람에도 끄떡 없이, 흰 셔츠와 바지를 포함해 몸 전체가 흠뻑 젖었는데도 꼬마 병정처럼 우뚝 서서 자신이 정말로 주님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훌륭한 청소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에게서 잘 훈육 받았고, 또 초등회 교사들로부터 예언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라고 교육 받았습니다. 복음을 접한 우리의 어린 형제 자매들은 데이비드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예언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매우 자연스럽게 키워 나갑니다. 부모와 교사인 우리는 이 유순한 사랑과 존경심을 강화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인도를 통해서 간증은 계속 커지고 때가 되면 개인적인 계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빗속에 서 있던 어린 형제 데이비드가 준 감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족이란 교회의 기본적이고도 영원한 조직입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것들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가정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께서 속죄를 통해 이미 하셨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회복된 교회의 첫번째 예언자이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살아 계시고 사랑에 찬 이 시대의 예언자이십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선교 사업으로 받았던 축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충실한 신권 소유자들인 시온의 아버지들의 한 명입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중요하고 영원한 가족 전통을 세움으로써 가정 안에 단합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셔츠와 스커트의 주름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주름들도 펴주고 눈물까지 닦아 줄 수 있는 어머니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레시페의 해변에는, 해안에서 암초가 있는 곳 사이에만 머문다면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암초 너머까지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 천만한 상어의 공격 대상이 되며,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해변의 표지판들처럼,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께서는 지상의 아들 딸들이 이 생에 항상 존재하는 상어들, 즉 음란물, 마약,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천부적인 거룩한 감정들을 감소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영감에 찬 안내의 손길을 보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안내의 손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지치지 않는 개인적인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전혀 지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기도와 경전과 금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고귀한 자원이며, 예언자들께서 주신 영감에 찬 글입니다. 우리 모두 그 가르침들을 배우고 또 배웁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상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우리의 데이비드들을 보호하고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앨마 2세는 그의 아들들 모두를 직접 개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힐라맨을 어려서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도

컨퍼런스 센터의 발코니 층을 감싸고 있는 튼튼한 기둥과 대형 유리창들

어려서 배우고 있습니다.(앨마서 36:3)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 데이비드야,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리."(앨미서 37:35 참조)

데이비드는 자신이 인생의 오염된 바닷물 속으로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필멸의 상어가 아직 어린 간증이라는 연약한 영적 근육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뚫거나 문신을 새겨서 "반항자"라는 단체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한 것처럼, 데이비드도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 "(앨마서 37:36~ 37)

우리는 몰몬경의 첫 부분에서부터 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훈을 배웁니다. 부친 리하이는 그의 아들 니파이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파이일서 1:1)

부친 리하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비유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 너는 이 강물을 닮아 쉬임 없이 달음질쳐 의의 샘에 이를지어다 … 오! 너는 이 골짜기를 닮아 굳세고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니파이일서 2:9~10)

성인이 되어 숲에 사냥을 나갔던 이노스는 그의 부친 야곱이 평생에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낮 동안 내내,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 그런 뒤 이노스의 삶은 바뀌었고 그는 가르치러 나아갔습니다.(이노스서 1:4~5)

강력하고 위대한 예언자였던 에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조상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하나님의 길을 모두 가르쳐 주셨느니라."(모세서 6:41)

모든 데이비드들이 그처럼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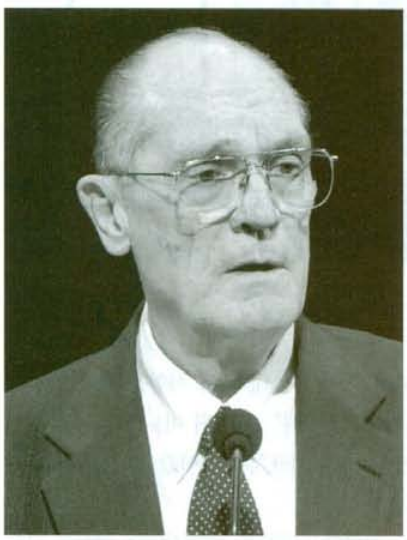
우리 모두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봉사의 축복과 관련하여, 제 아름다운 아내와 저희 자녀와 그 아이들의 배우자들, 저희 손자녀, 저희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헌신의 영원한 본부기가 되고 있는 선교사들, 항상 도움을 주는 친구들, 브라질의 아름다운 백성들, 지도자들, 예언자들, 특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 증거하게 하리라"

엘 알든 포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니파이 백성들의 경전에 대해 영적인 증거를 갖게 되면 항상, 구세주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희 칠십인 정원회는 오늘 칠십인 정원회로 지지 받은 다섯 분의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인간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개선책들이 거의 매일마다 발표되는 세상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인간의 업적은 결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계속되는 이 기이한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음란물과 불법 약물 사용과 배우자 및 자녀 학대와 같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새롭고 현대적인 대답으로 치켜 세워지는 거짓 철학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해 주신 광범위한 통신 수단의 상당 부분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 텔레비전, 비디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이 영혼을 오염시키고 생활을 황폐화시키는 자료들을 쉬지 않고 우리 집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과거의 가정은 대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낙관해도 좋을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오고 내세에서는 영생이라는 기쁨을 가로막을 사악한 폭풍우에 대한 방어책이 없이 우리가 남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50~51)

그분은 분명히 인간이 갈망하던 해답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개개인의 죄와 우리 슬픔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끊임없이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마음이 늘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도하고 위로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순결과 덕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때가 되면 폭력은 사라지고, 분명히 어린양이 사자와 함께 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시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범법의 처참한 결과들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사악함과 원한이 가득한 마지막 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이르러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날 전에 하늘은 어두워지며 땅은 흑암의 휘장이 덮일 것이요, 하늘은 진동하리니, 땅도 그러하리라. 또 시련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을 것이로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모세서 7:61~62)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겠다고 말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편찬되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겠다는 예언대로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은 주님이 알고 계셨던 대로 사악함으로 인해 혼돈이 매우 극심해졌을 때에 나왔습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부친과 다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수많은 언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너무 진부한 것이 된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일학교, 세미나리, 가정의 밤에서 배우고, 선교사가 되면 암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약속을 읽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마치 전에는 이것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

이 약속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즉 영원한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몰몬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확신시키고 그분을 온 나라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약속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제 인생에서뿐 아니라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삶에서 실현되었다는 거룩한 간증을 드립니다.

모로나이의 약속이 성취되어 몰몬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라는 간증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결코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니파이 백성들의 경전에 대해 영적인 간증을 갖게 되면 항상, 구세주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신을 통해 오는 그 간증을 갖게 되면 요셉 스미스가 1820년 봄날 오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분명한 지식도 아울러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 가치가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모로나이의 한 약속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내세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원리 및 의식에 순종함으로써만 이 간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들을 상고해 보십시오. 가끔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고, 상고하고, 간구하십시오.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편견들을 몰아낸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놓으십시오. 영감에 찬 계시들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아버지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울러 요셉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예언자요 오늘날 지상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계시다는 지식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예언자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도자 여러분께 이 약속을 드립니다. 회원이지만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혼란 속에 있는 세상에서 방황하시는 분들께도 이 약속을 드립니다. 범법과 불신앙에 찬 생활로 인해 영원한 것들에 대해 절망한 상태에 있는 분들께도 이 약속을 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간증이 생길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무한히 증가할 것이며, 그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망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베냐민 왕이 한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슬퍼질 것입니다.

"보라 그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러함으로 기력이 진하시리니, 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리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모사이야서 3:7~8)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넘쳐 흐릅니다. 개인적인 계시에 관한 이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원리는 다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도 가르쳐졌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3~17)

이 성스러운 간증을 얻고 나면 , 여러분은 수천 가지의 일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만물은 각기 닮은 것이 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속세의 것이나 영의 것을 막론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하셨더라."(모세서 6:63)

주님의 생애에 대해 숙고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진실로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결국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고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에 마주해서도 평안함을 찾을 것입니다. 혼란이 우리 주위에서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이 생에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속주이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육신을 갖고 태어나신 아버지의 독생자요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간증을 통해서 나오는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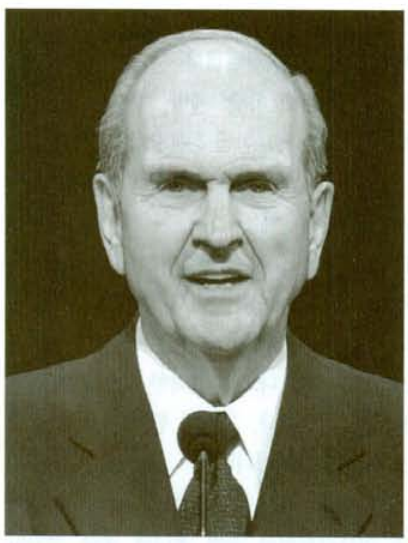
저는 주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다가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과 기쁨 가득한 영생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시대에 새롭게 계시해 주신 대로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이러한 것들이 성취된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한 거룩한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영감에 찬 지시 아래, 과거 어느 때보다 쉽게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성전에는 "주님께 거룩함"[1]이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는 성전과 성전의 목적이 거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한 거룩한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2] 건물이 거룩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부터 주님의 종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의 음성을 높여 왔습니다.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나, 나를 교사로 우러러 보되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한지라 너희에게 죄의 결말에 관하여 가르침이 마땅하니라."[3]

이제 저는 그가 느낀 것과 동일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들을 위해 성전들이 건축될 때, 회원들은 그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모든 성전 의식 및 성약의 기초는 구원의 계획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모든 활동, 모든 공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집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성전으로 귀결됩니다.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자[4]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징으로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신성한 발걸음의 표상으로서 굳게 서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들과 그 곳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 예배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 신학의 가장 심오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5]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그러나 먼저 우리는 합당해야 합니다.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의 과정을 생략하고 맺을 준비가 되지 않은 성약을 맺은 후, 결국 그것을 깨트리는 위험을 무릅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약을 전혀 맺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엔다우먼트

성전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은사인,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은사의 중요성과 거룩한 성약을 지키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성전 의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숙한 약속을 맺는 행위"[6]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7] 계시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다우먼트란 이 생을 마친 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 영원한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의식들을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입니다."[8]

인봉 권능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및 다른 의식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신권의 인봉 권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그분의 사도들을 가르칠 때 이 권능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9] 바로 그 권능이 이 말일에도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처음과 끝이 없이" 영원한 것처럼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신권 의식의 효력도 또한 영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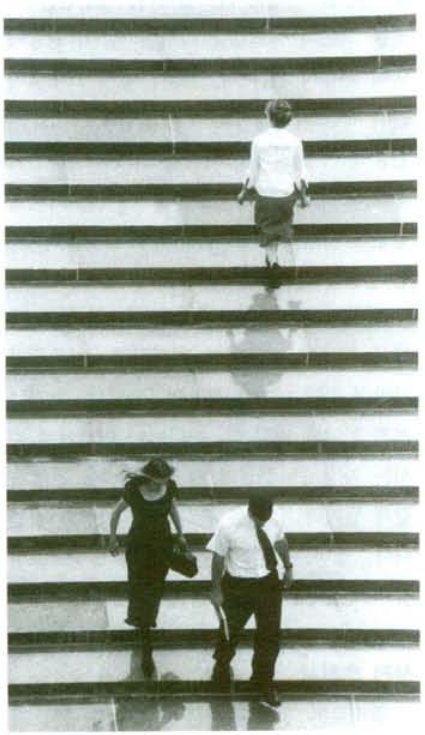
성전 의식, 성약, 엔다우먼트, 인봉을 통해서 개개인은 주님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사망의 장막 너머에서도 인봉됩니다. 우리는 성전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10]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생은 불사 불멸 이상의 것입니다. 영생은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서 곧 하나님이 사시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

준비로는 성전 추천을 받기에 합당한 자

격을 갖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성전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더러운 것도 그분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11] 그러나 잘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환영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판사인 감독 및 스테이크장이 추천서를 신청하는 각 사람을 접견합니다.[12] 그들은 신권 권능의 열쇠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준비가 합당한지 그리고 성전에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접견을 통해 여러 필수 요건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지, 도덕적으로 순결한지, 구세주에게서 부여받은 거룩한 출산의 힘을 존중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요건들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진실로 성약의 자녀로 살며,[13] 죄의 종들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이겨 낼 수 있는지를[14]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견은 우리가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부와 헛된 것"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5]



그러한 요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님으로서 그 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한 특권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표시입니다.[16]

성전을 위한 신체적인 준비

성전에 가기 위한 신체적인 준비란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곳은 평상복 차림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찬식이나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임에 참석한다면 편안한 느낌이 들,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17]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실 것이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티없이 깨끗한 흰 옷을 입습니다.[18] 국적, 언어, 교회 내에서의 직위 등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흰 옷을 입고서 서로의 옆에 앉으며 주님께 모두 평등하게 여겨집니다.[19]

신부와 신랑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곳에서 신부는 디자인과 옷감이 수수하며 요란한 장식이 없는 긴 소매의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도 또한 흰 옷을 입습니다.결혼식에 참관하기 위해 온 형제들은 턱시도를 입지 않습니다.

성전 가먼트를 입는 것에는 깊은 상징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결심을 나타냅니다.[20] 구세주께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필요성을 모범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튼튼한 갑옷의 일부로 가먼트를 충실하게 입습니다.[21]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과 그분이 우리와 맺은 영원한 성약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22]

성전을 위한 영적인 준비

신체적 준비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전의 의식과 성약이 성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밖에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각 성전은 배움의 집입니다.[23] 그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배웁니다.[24] 그분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방법은 태고 적부터 있어 왔으며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묵상을 통해 각 상징이 의미하는 실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25] 성전에서의 가르침들은 매우 간결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겸허한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지만, 가장 뛰어난 석학조차도 그 가르침에 흥분합니다.

영적인 준비는 연구를 통해 증대됩니다. 저는 성전에 처음 가는 회원들에게 Bible Dictionary(성서 사전)에서 다음의 일곱 주제,[26] 즉 기름 부음,[27] 속죄,[28] 그리스도,[29] 성약,[30] 아담의 타락,[31] 희생,[32] 성전[33]을 찾아보고 그 곳에 나오는 짤막한 설명들을 읽어 보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건한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구약[34]과 값진 진주에 나오는 모세서와 아브라함서를 읽어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고대 경전을 읽는 것은 성전 엔다우먼트와 친숙해진 후에 더욱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한 책들은 성전 사업의 유구함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35]

의식마다 성약, 곧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이 맑지 않다면, 우리는 해로운 함유물들을 걸러 내기 위해 그 물을 여과시킵니다. 신성한 성약은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불순한 것들을 마음에서 걸러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기로 선택한다면,[36]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약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시야의 한계 위로 우리를 들어올려 줍니다.

영원한 관점

힝클리 대관장님은 원대한 관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부활을 넘어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 그것은 그분을 영원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을 살아 계신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모든 다양한 의식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식 가운데 첫번째가 침수로써의 침례입니다. 구세주에 따르면 이것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후 성신의 은사인 영의 탄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남자는 신권 성임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남성과 여성에게는 그 곳에 들어가는 축복이 따릅니다. 이러한 성전 축복에는 주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씻음과 기름 부음이 포함됩니다. 또한 복음의 원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주는 의무와 축복의 엔다우먼트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의 영속성을 위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인봉 의식이 포함됩니다."[37]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성전 축복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고통이 단지 잠시뿐이리는 것을 이는 지식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38] 죽음은 성전에서 인봉된 가족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임을 이해합니다.[39]

그러한 관점은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의식과 성약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는 데 필요한 증명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일생의 사명이지만 그 후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이 생에서 받는 도전입니다.[40]

성전 의식은 *개인*의 발전,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며 핵심적인 것입니다. …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으며, 우리는 죽은 조상들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41] 그들을 위한 봉사는 계속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반복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 봉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참석하기 위해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속죄를 행하신 구세주의 모범을 따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 그분 앞에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42] 우리는 의식과 성약과 행위와 가슴 속의 소망으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43]

그렇다면,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개인들은 영적 부패로 고통 받는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은 "의로움과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한 주님의 성약의 백성"입니다.[44] 그들의 모범은 모든 인류의 삶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출애굽기 28:36; 39:30; 시편 93:5 참조.
2. 출애굽기 19:5~6; 레위기 19:1~2; 시편 24:3~5; 데살로니가전서 4:7;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20:69; 110:6~9 참조; 또한 성서 사전, "Holiness", 703~704쪽 참조.
3. 니파이이서 9:48.
4. "Following the Master: Teachings of President Howard W. Hunter," *Ensign*, Apr. 1995, 21~22; Howard W. Hunter, "The Great Symbol of Our Membership," *Tambuli*, Nov. 1994, 3쪽 참조.
5. "Of Missions, Temples, and Stewardship," *Ensign*, Nov. 1995, 53쪽.
6. 고든 비 힝클리,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638쪽.
7. 모로나이서 10:4~5 참조.
8.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41), 416쪽.
9. 마태복음 16:19.
10.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1. 교리와 성약 109:20; 이사야 52:11

또한 참조; 앨마서 11:37; 니파이삼서 27:19 참조.

12. 혹은 지부장이나 선교부장.

13. 니파이삼서 20:26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성약의 자녀",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2쪽 참조.

14. 로마서 6:17, 20; 교리와 성약 121:17 참조.

15. 앨마서 7:6.

16.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상 모든 곳의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고귀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된 영과 축복을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57쪽)

17. 보이드 케이 패커, *The Holy Temple* (1980), 73쪽.

18. 닐 에이 맥스웰, "*Not My Will, But Thine*" (1988), 135쪽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0:16 참조.

19. 이것은 다음 구절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34; 또한 모로나이서 8:12 참조)

20. The Lord assured that even though "the mountains shall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thee, neither shall the covenant of my people be removed" (JST, Isa. 54:10). Surely we would not ever want knowingly to discard from us an emblem of His everlasting covenant.

21. 에베소서 6:11~13 참조; 또한 앨마서 46:13, 21; 교리와 성약 27:15 참조.

22. 1988년 10월 10일자 대관장단 서신. "일부 회원들이, 거룩한 엔다우먼트의 영에 따라 가먼트를 입기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빈번히 목격됩니다.

"성전에서 가먼트를 입은 교회 회원들은 전 생애 동안 가먼트를 입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내의로서 가먼트를 주야로 늘 입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호와 축복의 약속은 그 성약을 충실하고 합당하게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원칙은 가먼트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벗을 경우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들은 수영복이나 정숙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집 근처 마당이나 거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가먼트의 일부나 전체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평상복 안에 가먼트를 입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락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먼트를 벗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영과 같이, 가먼트를 벗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먼트를 다시 입어야 합니다.

"정숙함, 그리고 적절하게 몸을 가리는 원칙은 성약의 내재된 의미이며 우리가 입는 모든 복장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주님과 맺은 거룩한 성약을 기억하기 위해,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가먼트를 입어야 합니다. 가먼트를 입는 방식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내적인 결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23. 교리와 성약 88:119; 109:8 참조.

24. 요한복음 14:6 참조.

25. John A. Widtsoe, "Temple Worship,"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Apr. 1921, 62. 참조.

26. 각국의 언어로 된 경전 지침에서 이에 해당하는 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7. Page 609, paragraphs 1, 4.

28. Page 617, paragraphs 1~2.

29. Page 633, paragraphs 1~3.

30. Page 651, paragraphs 1~2.

31. Page 670, paragraphs 1~2.

32. Pages765~66, paragraph 1.

33. Pages 780~81, paragraphs 1~3.

34. 출애굽기 26~29장, 39장; 레위기 8; 사무엘하 12장(v. 20); 역대하 6~7; 이사야 22장; 에스겔 16장.

35. 교리와 성약 124:40~41 참조.

36. 모로나이서 10:32; JST, Matt. 16:26 참조.

37. "Temple and Temple Work" *Ensign* Feb. 1982, 3쪽.

38. 빌립보서 4:7 참조.

39. 앨마서 42:8 참조.

40. "성약",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23쪽.

41. 교리와 성약 128:15.

42. 니파이이서 9:41 참조.

43.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44. 니파이일서 14:14.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룩함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느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를 돕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해가 흐른 후 돌이켜봤을 때, 그 의미가 새롭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저는 선도부의 일원으로 일하라는 학교 교무부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도 지명을 받은 날, 선도 부원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점심을 싸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특별한 즐거움이었고 어느 엄마가 가장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는지 보려는 경쟁 또한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 가져온 도시락들을 바꿔 먹곤 했습니다.

선도 지명을 받은 어느 날, 저는 학교 갈 때가 되어서야 도시락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침 식사로 마지막 남은 빵을 지금 막 써 버렸고 그날 오후까지는 빵을 굽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남아 있던 도시락 거리로는 지난밤 저녁 때 먹고 남은 커다란 롤빵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롤빵은 맛있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팬에 만드셨는데, 팬 위쪽에는 큰 것이 오게 하고 아래쪽에는 작은 것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큰 롤빵만 하나 남아 있었는데 크기는 식빵만 했지만 물론 두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도원들의 어머니들이 준비했을 도시락을 생각하면 롤빵만 달랑 들고 가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롤빵을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저는 되도록 눈에 안 띄려고 구석진 곳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할 때, 친구들은 모두 제가 뭘 싸 왔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당황스럽게도 친구들은 모두 그 큰 롤빵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친구들은 저를 놀리기는커녕 모두들 그 롤빵을 한 조각씩 먹어 보기 원했습니다! 롤빵 도시락은 결국 그 해의 가장 멋진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롤빵 도시락이 그날 점심 시간의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단지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친숙한 것들에 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한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숙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회복된 교회의 회원 자격일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지닌 것은 값진 진주인데도, 때로는 이 귀중한 보물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진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치를 알아볼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 사업의 부수적인 혜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 예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높은 가치입니다. 자신의 보물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데는 큰 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부는 주님의 교회 회원이 갖는 독특하고도 귀중한 축복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과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 다소 무관심하게 되고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여하는 데 덜 용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세상의 길과는 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리의 길을 열어 주는 위대하고 고귀한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산의 가치를 돌이켜보고 그 가치를 과소 평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이나 자만이 아닌 신뢰와 확신을 갖고 우리의 공동 유산인 귀중한 가르침들을 소리 높여 전파하도록 권유합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근면과 끈기로 아무도 원하지 않던 곳들을 아름다운 도시들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석방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이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성도들을 상대로 근절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브리감 영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을 미주리 주로부터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

다. 1839년 2월 미주리 주로부터 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교회 회원 가운데 일부는 또다시 성도들을 한 곳에 모으는 지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건너 그 강둑을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잠시 머물면서 회원들이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새로운 방향을 제시 받는 데 필요한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힘의 구심점들을 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해 4월에 요셉과 하이람, 또 함께 수감되었던 동료들이 미주리 주에서 출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839년 4월 22일에 일리노이 주 퀸시에 도착했습니다. 예언자는 곧바로 성도들이 모일 장소를 찾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강의 둔덕에 밝은 미래가 보이는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나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곳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 곳은 물이 빠지지 않은 습지였습니다. 습지였던 땅을 일구어 그 곳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나부에 처음 세워진 집들은 오두막과 텐트와 일부 버려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후 성도들은 통나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자금이 허락하자, 보다 정교한 판자집이 세워졌고, 그 후에 보다 견고한 벽돌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목적 세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첫째는 경제적, 둘째는 교육적, 셋째는 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의 첫번째 소망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재능이며 능력, 재물 등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들로 이러한 축복에 대한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유산 가운데 소중한 한 부분이 교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리이며 둘째는 노동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시간과 돈과 봉사를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바치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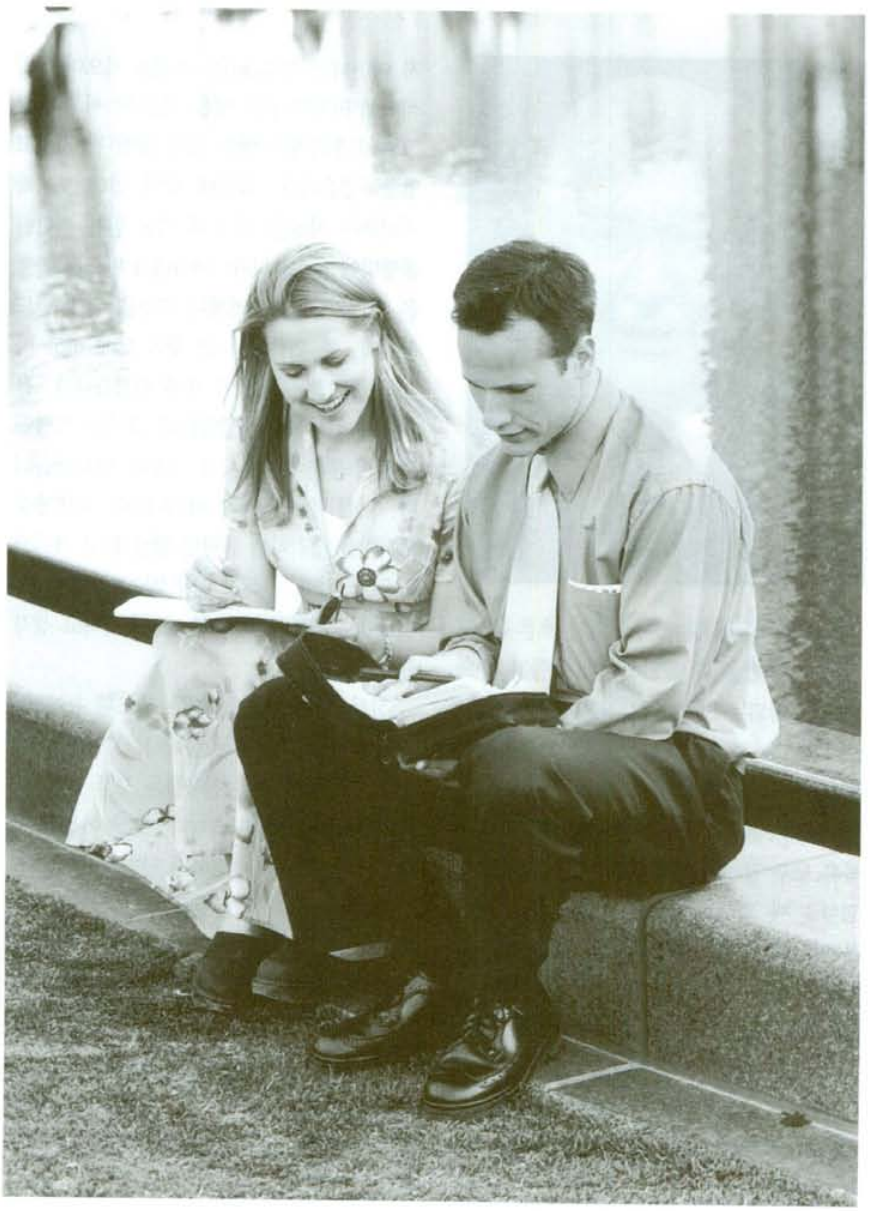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한일서 4:7~9, 11)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요한일서 3:17)

계시된 훌륭한 제도인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도록 격려하는 사랑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자발



적으로 식사 두 끼를 먹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감독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감독은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거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며, 헐벗은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소망을 갖고, 금식의 원리에 근거하여 관대하게 내주도록 계속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경제적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나니 … "(교리와 성약 68:31~32)

저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관해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특별히 염려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의 가치에 관해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응석을 과도하게 받아 주는 것을 명백하게 봅니다.

어느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를 돕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생각했던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요건은 교육입니다. 1840년초에 그는 일리노이 주정부에 나부 법인의 허가를 신청하며, 또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몰몬이즘 백과 사전*에서 다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 이념과 실천은 지식의 영원한 속성을 강조하고 배움이

인류의 영적, 도덕적, 지적인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교육에 대한 태도,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몰몬이즘 백과 사전* 제2권, 441쪽)

세상 및 영적인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현대 경전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파이이서 9:29)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 19)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예언자의 마지막 소원은 영적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바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준 한 가르침은 정규적인 가정의 밤을 가지며 그 곳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만나 복음 원리를 공부하고 가족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함께 조언하고,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에 한 가족씩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영원한 가족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장엄한 성전이 나부에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은 모

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임을 일깨워 주는 등대였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이 맺어지고 복음의 구원 의식이 집행됩니다. 성전을 반복해서 방문하면 우리는 이러한 성약을 새롭게 하고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세계 각지에 성전들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의식들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충실하게 봉사하고 성약을 지킨다면 위대한 영적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집에 자주 방문할 때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성전은 시온을 건설하고자 힘쓰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배타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성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동정심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경제적 복지의 두 가지 기초는 사랑과 근면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사회는 진보하는 공동체로 청소년에게 예절과 공손함을 가르치고 회복된 복음의 더욱 깊은 진리들을 또한 가르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영적인 중심지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성령을 동반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살고자 하는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의 보증 표시인 화평과 화목과 안전, 인류에 대한 사랑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역사 정보는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에서 인용.(교회 교육 기구 교재, 제2판, 193~223쪽)

신권 모임
2001년 3월 31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나 우리가 낟알 하나만큼의 신앙이라도 갖고 시작한다면, 양들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봉사로 인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커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예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 회원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신권의 회장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각 정원회는 신권의 열쇠를 통하여 맡은 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집사조차도, 교회 회원을 돌보는 이 위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다음 말씀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르심대로 힘써 일하라. 머리가 발을 향하여 발이 필요없다 말하지 말라. 발 없이 어찌 몸이 서 있으리요." 그런 후에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집사까지도 그분의 임무 지명 목록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집사와 교사는 교회를 지키며 교회의 상임 역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109, 111)

새로 성임된 집사와 최근에 개종하여 성임된 회원까지도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잘 설명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경전의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는, 자신과 그분께서 신권 직분에 부르신 사람들을 목자로 묘사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살핍니다. 경전의 이야기에서 양들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양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양들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고용된 종처럼 오직 편리할 때나 보상이 있을 때만 양을 보살핀다면, 우리는 주님의 표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의 표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요한복음 10:11~12)

교회의 회원들은 양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양이며,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신앙과 비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그의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질책하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전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찐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에스겔 34:1~2)

양들은 굶주리게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던 목자들은 그 음식으로 양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한 위대한 목자는 그 음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모로나이서 6:4)

목자가 양들은 굶주리도록 내버려둔 채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양떼를 먹이는 많은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 정원회 회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의 정원회 회원 한 사람이 저의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소년은 정원회 모임에 한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으며 정원회 회원들과 어떤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어머니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속한 집사 정원회의 회장단은 평의회를 가졌습니다. 훌륭한 고문과 교사는 매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회장단 모임에서, 이 열세 살 된 목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소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들이 그 소년에게도 절실이 필요하리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그의 보좌 한 명에게 그 헤매는 양을 찾아가 보도록 지명했습니다.

근처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시티 크리크의 물이 컨퍼런스 센터 남쪽의 바위 수로를 따라 흐르는 가운데 회원들이 컨퍼런스 센터 앞을 걷고 있다.

저는 그 보좌가 소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 임무 지명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좌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제 집 옆을 지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소년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올라가는 모습을 의구심을 갖고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목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곳이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분쯤 후에 그는 되돌아 내려왔는데, 그 옆에는 그 잃어버렸던 집사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몇 번인가 일요일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소년은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로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세 명의 소년이 한 방에서 조그만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으며, 그 중 한 소년이 길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른 한 소년과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그 회장단이 만나 회의를 했던 방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백발의 노인이 제게 다가오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손자가 여러 해 전에 형제님의 와드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소년의 삶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은 저에게 오래 전에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던 그 집사를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당시의 그 집사에게 대신 감사를 전해 줄 수 있는지 또 이제는 성인이 된 그의 손자가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영원한 진리를 듣고,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목자들은 주님에게서 받은 그들의 신뢰에 충실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신뢰에 충실하고 또 지

속적으로 충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킬 것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사도들을 성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경험이 없는 종들의 손에 그분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그 종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 종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 그분께서는 혼자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신권을 지닌 종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태복음 26:38)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아와, 그분과 함께 깨어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태복음 26:40~41)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목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짧은 대화에는 어떤 확신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깨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사랑에 끝이 없고 결코 주무시지 않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신의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를 그 양들에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으로 그분의 권세를 가져와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양을 죽이려는 이리는 분명 목자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도 보살펴야 합니다. 목자인 우리도 조금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죄도 성신을 해칩니다. 여러분은 영을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장소에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을 듣고 순종하여 합당했다면, 여러분이 막을 수도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슬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고대의 한 예언자에게 주어진 경고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에스겔 33:7~8)

실패에 대한 벌은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공을 위한 기초를 어떻게 쌓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한 메시지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목자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낟알 하나만큼의 신앙이라도 갖고 시작한다면, 양들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봉사로 인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커갈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목자가 행해야 하는 간단한 일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양, 곧 우리의 책임이 있는 모든 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응답은 올 것입니다. 어떤 얼굴이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은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들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보살필 때,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용기를 키워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야. 내게는 보살펴야 할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리고 나는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 그분은 방편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한 사람이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어 성전에서 부부 인봉과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열세 살이었는데, 다른 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집을 관리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버는 적은 수입으로 그는 다섯 식구뿐 아니라 그 작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 정원회에는 13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원회는 또 다른 101명, 즉 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집사, 교사, 또는 제사 직분을 지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 114명의 영혼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었으나, 일요일과 주 중에 하루 저녁 외에는 봉사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펴야 하는 양들을 만나고 그들을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그의 기도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를 통해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이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 가족들이 합당하게 되도록 돕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늘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누가 그의 보좌가 되어 그와 함께 가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어떤 가족이 그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담하여 그의 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는 한 가지 방식을 따랐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관심과 믿음을 보게 되면 즉시 감독을 만나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감독에게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성전에 가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성전이 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간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정원회 회장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스테이크 지도자가 가르치는 성전 준비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끝마친 것도 아니었으며, 또 모든 사람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과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할 때마다 정원회 회장은 영원히 인봉된 가족이 누리는 축복과, 가족이 헤어질 때의 슬픔에 대해 간증을 전했습니다. 모든 초대는 구세주의 사랑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가르친 열두 명이 장로에 성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원회 장로들 가운데서 네 명이 대제사에 성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숫자들로는 기적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들의 가족들은 세대에 걸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서로에게 인봉되고 또 자녀들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늘의 도움을 받고, 또 충실한 부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영감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장로 정원회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참된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양떼를 보살폈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께서 한 사도, 곧 토마스 비 마쉬에게 가르쳤던 진리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양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내는 곳은 어디나 가라. 네가 행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보혜사께서 알려 주시리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야기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31:11~13)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충실한 목자들과 함께 그분의 양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사탄이 오락물이라고 선전하는 외설물은 독성이 강하고 교활한 뱀으로서 잡지나 인터넷, 비디오와 텔레비전 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가설 활주로를 건너가다가 몇 명의 남자들이 가는 가지로 엮은 바구니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바구니 뚜껑을 열자 코브라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리를 계속 불자, 뱀은 점점 몸을 높이 세워 거의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뱀은 무너지듯 바구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브라가 바구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피리를 불던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코브라를 어루만지더니 조심스럽게 바구니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처럼 위험한 동물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해 주던 분은 재빨리 그런 행동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인도의 이쪽 지역에서는 독 있는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순간 제 기억은 농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로 달려갔습니다. 여름철이면, 우리는 겨울 동안 저장할 건초를 밭에서 헛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부친은 쇠스랑으로 건초를 퍼서 마차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건초를 마차에 싣기 위해 그 건초를 발로 밟아 눌렀습니다. 하루는 마차에 건초 더미를 던져 올렸는데 그 안에 방울뱀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걱정이 되는 한편 흥분되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 뱀은 시원하고 감촉 좋은 건초 더미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햇빛에 다이아몬드 무늬의 등가죽이 빛났습니다. 잠시 후 방울뱀이 찌르륵 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데이빗, 이런, 세상에,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오늘 저녁 저는 독 있는 뱀을 가지고 노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들은 길고 미끌미끌한 몸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세상은 이 위험한 것들을 전혀 해롭지 않게 보이게 하며, 심지어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뱀과의 놀이는 마음을 독으로 채우고, 그 독은 성령을 몰아내 버립니다.[1]

형제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오락은 종종 사악하고 잘못된 것을 즐겁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주님의 권고를 기억합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 … 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2]

사탄이 오락물이라고 선전하는 외설물은 독성이 강하고 교활한 뱀으로서 잡지나 인터넷, 비디오와 텔레비전 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외설물은 자존심을 파괴하고 자제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저의 부친이 같이 놀 수 없다고 경고하신 방울뱀보다도 우리의 영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이 영적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3]

오늘날 전파 매체를 통해 다가오는 유혹들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굳센 용기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유혹에 말려들 만한 곳을 찾아가려면 집에서 차를 타고 최소한 한 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우스를 몇 번만 클릭하면 인터넷에서 유혹거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을 피하고자 한다면, 옛날의 모로나이 사령관처럼 약한 지역들을 강화하는 "요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재와 흙"으로 취약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행동 원칙이라는 형태의 "요새"를 만드십시오.[4] 데이트를 하게 되면, 단체로 하도록 계획하고 단 둘이서 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들—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중에는 혼자 있게 되면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컴퓨터와 텔레비전은 자녀들의 침실이 아니라 거실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제가 아는 아버지들 중에는 출장 중일 때, 호텔 TV를 켜지 않기로 결정한 현

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요새"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강건함을 나타냅니다. 경전에는 모로나이 사령관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된다면 "지옥의 모든 권세가 영원토록 흔들릴"[5]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강한 진지"[6]들이 바로 그의 승리의 열쇠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자신의 "강한 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축 할 한 가지 주요한 요새는 문제에 당면하기 전인 바로 지금, 한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는 우리가 부적절한 매체를 시청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바로 지금 결심하면 "문제는 이미 우리 뒤에 가 있게 된다"[7]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또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 손녀딸인 제니퍼가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으로부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함께 관람할 영화를 정했으며, 제니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던 아이가 들고 온 표는 처음에 계획한 영화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내 주는 영화야.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구."

제니퍼는 깜짝 놀랐고 상황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니퍼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부터 이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니퍼는 당당하게 서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는 보지 않을 거야. 부모님도 허락하시지 않을 거고." 그러자 친구들이 대꾸했습니다. "왜 그래? 부모님이 아실 리 없잖아!" 친구들의 말에,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시느냐, 모르시느냐는 문제가 아냐. 난 그냥 성인 영화는 보지 않을 거야!"

난처하기도 하고 화가 난 친구들은 제니퍼를 데려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제니퍼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굽히지 않자, 친구 아이들은 표와 잔 돈을 제니퍼 앞에 던져 버리고는 자기들끼리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한 외로운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니퍼와 우리 가족에게는 훌륭한 밤이었습니다.[8] 제니퍼가 자신감과 자존심과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9]

알면서도 독이 있는 영적인 뱀과 놀려고 하면 위험은 배로 늘어납니다.[10]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더 착한 아이로 만들지 못하셔도 걱정마세요. 지금 이대로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말

신권 모임 중에 노래한 솔트레이크시티 내 스테이크들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연합 합창단

이죠."

그런 근시안적인 소년처럼 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면서 성스러운 성전 성약과 의식을 받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울뱀의 독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해독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뱀에 물린 자리는 날카로운 칼로 베어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상처를 통해 감염된 피를 해독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제발 방울뱀과 놀려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11]

일부 젊은이들은 신권 승진을 하고,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성전에 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그 동안 그들의 영에 퍼졌던 독의 고통을 깨닫기도 합니다. 영적인 죄는 가장 독성이 강한 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독이 퍼진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해독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회개라고 합니다.[12] 실제 뱀에 물렸을 때와 같이, 빨리 사용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13] 용서의 기적은 실제 일어납니다.[14]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 주십니다.[15]

영적인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16]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간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부모님과 감독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십시오.[17] 여러분은 겁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의 길은 어렵지만 혼자서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지도자들께서 귀중한 격려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용서의 권세와 자유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18] 구세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 때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19]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을 순결하게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19]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합니다.[20]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21]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표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 … 라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22]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이름을 짊어지겠다고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이 신권으로, 여러분은 일어나서 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시지 않겠습니까?[23]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성신권의 회원으로 부름 받고 성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 신권의 열쇠들과 거룩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외설물을 멀리 하십시오."[24]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25]라고 권고하십니다.

뱀의 독이 여러분의 영혼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26]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3; 모세서 8:17 참조.
2. 이사야 5:20; 니파이이서 15:20.
3. 사무엘하 11; 교리와 성약 132:39 참조.
4. 앨마서 53:4~5 참조.
5. 앨마서 48:17.
6. 앨마서 53:4~5 참조.
7. "청소년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3쪽.
8. 갈라디아서 5:16~21 참조.
9. 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10. 모사이아서 27:10~11, 앨마서 1:15 참조.
11. 누가복음 15:21 참조.
12. 이사야 1:18 참조.
13. 교리와 성약 18:11.
14. 모사이야서 26:29 참조.
15. 니파이이서 9:23; 26:27 참조.
16. 앨마서 34, 니파이삼서 18:29~32 참조.
17. 교리와 성약 64:7 참조.
18. 요한복음 8:32.
19. 니파이이서 2:25; 9:1; 모사이야서 2:41; 4:3 참조.
20.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21. 요한복음 13: 35.
22. 마태복음 11:29~30.
23. 교리와 성약 101:22 참조.
24. "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9쪽.
25.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2쪽.
26. 니파이일서 17:35.

신권의 권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권의 권세는 무한하지만,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신권의 권세는 각자의 의로움이나 순결함의 정도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무한한 특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는, 심지어 우주까지도 그 권세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현재에도 창조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의로움이 수반될 때, 신권의 권세를 통해,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살고, 죄를 용서 받으며, 병자가 치유되고, 맹인이 시력을 되찾고, 생명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권을 갖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1]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특히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2]

따라서 신권의 권세는 무한하지만,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신권의 권세는 각자의 의로움이나 순결함의 정도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신권의 권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더럽거나 결함이 있는 전선으로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신권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불결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검손하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면 어떤 불의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양에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 교육, 인종, 문화적인 배경과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합당한 남자는 그분의 신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당하게 성임 받은 사람으로서 손과 마음과 생각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나 신권의 무한한 권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남태평양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잘 배웠습니다.

저의 첫번째 임지는 선교부 사무실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조그만 섬이었는데, 그 곳에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백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근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페키 장로님이 동반자가 되었는데, 그 분은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8일 밤낮을 배멀미를 하며 간 곳은 니우아토푸타푸라는 곳이었습니다. 더위와 모기, 새로운 음식과 문화, 낯선 언어에 향수병까지 겹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한 가족이 여덟 살 된 아들을 안고 오는데, 아이의 온 몸이 축 늘어져 있고, 숨이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통하게 울면서 아이가 망고 나무에서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제 팔에 안기면서 "장로님은 멜기세덱 신권이 있으시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의 언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눈에 비친 사랑과 신앙 때문에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동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합당한 권능이 없어요. 멜기세덱 신권은 장로님과 지부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부장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소란한 소리를 듣고 밭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 분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부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린 뒤 그 아이를 지부장님께 넘겨 주려고 했습니다. 지부장님은 뒤로 물러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아이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부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 성별된 기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손과 흠투성이 옷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은 그 아이를 제게 남겨 둔 채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그 분이 깨끗한 몸과 옷과 마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구합시다."

그 훌륭하신 통가의 지부장님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강력한 신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축복에 참여했다기보다는 단지 그 일의 증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 … 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 자로다"[4] 그 작은 섬에서 합당한 한 분의 신권 소유자가 주님의 산에 올랐으며 신권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와 어린 소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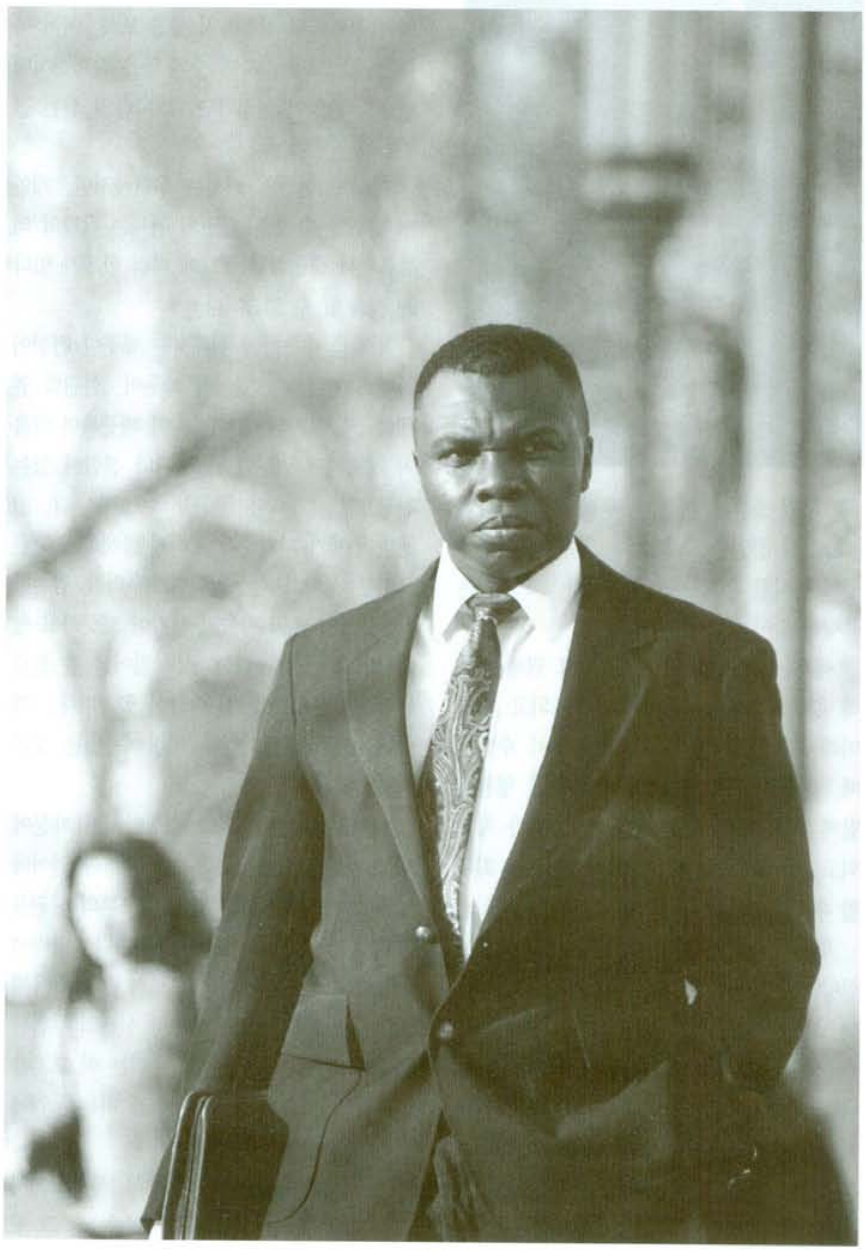
지부장님의 눈에서 신앙이 불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신앙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3일째 되는 날, 그 여덟 살짜리 어린 소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은 거대한 대양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고, 전기도, 병원도, 의사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랑과 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손과 마음이 깨끗하며, 몸과 의복을 외적으로 정결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움과 순결함으로 신권을 행사하는 지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분이 나타낸 개인적인 신권의 권세는 지상 너머의 무한한 신권의 권세와 연결될 만큼 컸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에 무한히 펼쳐진 은하수들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구가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 또 제 자신은 얼마나 미세한 존재에 불과한지에 놀라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거나 외롭거나,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대양의 조그만 섬에서 주님의 신권의 권세가 청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고 순결한 한, 그러한 연결은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순결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신권의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선교 사업과 성전과 동료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참된 봉사에는 노력과 큰 희생과 온전한 비이기심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할수록 순결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과 생명과 사랑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신권을 소유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어둠의 왕인 사탄은 최대한 빛과 생명과 사랑을 제지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신권의 권세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대, 분노, 게으름, 외설물, 이기심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악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손과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하도록 유혹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신권의 권세를 제약하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더럽혀 놓으면 신권의 권세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순결함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망라한 이 세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빛과 생명과 사랑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순결함을 그만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 여러분, 성인 전용물이라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고귀한 신권의 생득권을 팔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해변에 아무리 공을 들여 모래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 바닷물에 씻겨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손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지고한 신권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견고하며 영원한 대저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저의 친구요,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신권의 권세를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개인의 신권의 권세가 종국에는 우리가 지닌 신권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통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41~42.
2. 교리와 성약 121:37.
3. 부처의 말씀.
4. 시편 24:3~4.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인생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원리를 존중하십시오. 그 네 가지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 거룩한 신권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범세계적인 신권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성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1]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세대 동안 주님의 종들에 의해 성취된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신권을 지닌 청남 형제들과 그들과 같은 또래인 청녀 여러분이 많은 면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유망한 세대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손주들의 축복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장래가 우리보다 훨씬 유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원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2.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
3. 거룩한 신권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
4.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것.

오늘 저녁 저는 이 네 가지 위대한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촉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번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말한 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

로 만든 신상들에"[2]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려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상입니다.

신성한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류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거나 물질적인 부를 얻는 일에 도취되는 등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으며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며 베드로가 함께한 사람들과 바닷가로 끌어낸 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3] 베드로는 어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구세주께서는 생업이 어부였던 그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선이나 은행 구좌, 자동차, 값진 의상, 주식, 증권, 입금 증서, 또는 다른 어떤 소유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4]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구세주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5]

저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듣거나, 텔레비전에서 너무나도 무심결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지 말라"[6]는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며 자주 기분이 상합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을 보면 "그 이름을 자주 반복하여 부름을 피하려고"[7] 거룩한 신권을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이름을 좇아 부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8]라는 첫번째 계명에서 비롯됩니다.

구세주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신권의 권능을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그 무엇보다도 존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를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성스러운 사랑을 공경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산고를 겪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저에게 끼친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영향력을 잊지 못합니다. 그 분이 주신 권고와 훈계를 잊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분의 무한한 사랑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그 분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 링컨과 더불어 "현재의 나 또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는 모두 천사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9]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요리, 바느질, 해어진 옷을 깁거나 수선하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없이 지내심으로써 제한된 돈이 아들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누려 본 적이 없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이 심어 주신 그 분의 변함 없는 신앙입니다.

형제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들을 보여 줍니다. 아버지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신권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의로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내를 동반자로 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확고부동한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대부분의 사랑은 모범, 염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충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인격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대학을 졸업하실 때 그의 부친 조지 에프 리차즈는 그와 형인 리차즈 이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이 어디를 가든 그 곳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임을 믿는다." 그들의 마음은 부친의 말씀에 담긴 사랑과 긍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척추에 강철 막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10]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는 4분 동안에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비통한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학교였으나 학교에는 무너진 벽돌더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네 곁에 있으마"라고 아들과 한 약속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아들의 교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신권 모임 동안 신권 소유자들이 컨퍼런스 센터의 3개 층의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곳으로 달려가 벽돌을 하나씩 걷어 내며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장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의 우려가 있으니 구조대원들에게 작업을 맡기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파내려 갔습니다. 밤이 오고 날이 샜습니다. 38시간을 파헤친 뒤 그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멘드!" 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아빠? 저에요. 아빠! 제가 다른 애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 계시다면 반드시 저를 구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조 된다면 그들도 구조 되는 거라고요. 33명 중에 우리들 14명이 남았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삼각형 모양 공간이 생겨서 살 수 있었어요."

"얘야, 어서 나오너라!"

"아니에요, 아빠. 다른 애들 먼저 내보내요! 전 아빠가 절 구해 주실 거란 걸 알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가 저를 위해 거기 계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11]

고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과의 관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들 간에는 사랑과 봉사와 도움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신권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신권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 의복을 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의 의복을 걸치지는 않지만 성찬을 축복하거나 전달하고 병자를 축복할 때 적절한 복장을 함으로써 존경을 표현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집에 부정이 있도록 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12]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신권의 권세와 권능은 그것을 행하도록 허락된 사람과 또한 합당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만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며 또한 주님께서 영예롭게 해 주십니다.[13]

우리는 침례 성약, 성찬 성약, 성전 성약,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님을 공경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어 참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희생 곧 나 주가 명한 모든 희생을 바쳐, 이로써 언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는 모두 내게 용납된 자니라."[14]

네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봉사한 분들은 우리가 가르친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전 영국에 있는 한 선교부에서 봉사한 어느 장로는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선교 사업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지저분한 아일랜드 소년 하나에게 침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베푼 침례의 전부입니다." 몬태나에 있는 집으로 귀환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한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1873년 영국에서 봉사하신 장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지저분한 아일랜드 소년 하나에게 침례를 주었을 뿐 선교 사업이 실패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문객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과 악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평의회에 있는 찰스 에이 칼리스입니다. 제가 바로 형제님께서 침례를 주신 그 지저분한 아일랜드 소년입니다."[15]

그 작은 아일랜드 소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잠재해 있는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리스 장로는 그의 대가족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25년간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13년 동안 사도로 봉사하면서 수천 명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청남이었을 때 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를 알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진 신성한 씨앗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상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지로 빛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얼굴에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신성의 일부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필멸성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성 앞에서 움츠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16] 우리가 신성한 유산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이 자라나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원하고, 그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위대한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2. 가족 관계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

3. 거룩한 신권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

4.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것.

형제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신권 형제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한 집단으로 지니고 있는 신권의 권세는 오늘날 지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상에서 감리 대제사로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 의해 집행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분의 영감에 찬 지도력에 순종하고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간구합니다. 그 분의 위대한 부름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소년과 성인으로서 68년 동안 거룩한 신권의 영적인 권능이 주는 온화함과 위안을 누려 왔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에게 미친 이 위대하고 기이한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길 바랐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저는 신권의 열쇠, 그리고 권능과 더불어 회복된 복음의 기이함과 영광에 대해 간증을 전하는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사무엘상 2:30.
2. 다니엘 5:23.
3. 요한복음 21:1~15 참조.
4. 출애굽기 20:3.
5. 마가복음 12:30.
6. 출애굽기 20:7.
7. 교리와 성약 107:4.
8. 출애굽기 20:3.
9. *The Home Book of Quotations* (1934), Butron Stevebson에서 인용, 1350쪽.
10. Lucile C. Tate, *LeGrand Richards: Beloved Apostle* (1982), 28쪽.
11. Mark V. Hansen, "Are you going to to help me?" in *Chicken Soup for the Soul*, ed. Jack Canfield and Mark Victor Hansen(1993), 273~274쪽.
12. 사무엘상 2:30.
13.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14. 교리와 성약 97:8.
15.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602~603쪽.
16.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41), 168쪽.

구조대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꽉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저를 겸손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최근에 성임된 집사도 있고 신성한 부름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해온 대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무에 대해 더욱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꽉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신권 조직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집사는 그가 지닌 신권을 통해 권세를 가지며,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신권에 의해서 의식을 받고 죄를 용서 받고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이러한 목적으로 계시되었고 우리 머리 위에 인봉되었습니다."[1]

한번은 최근에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에 성임된 형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무척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것이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행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참된 간증을 갖고 있으며 곧 선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께 얼마 전에 받은 편지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신권의 봉사와 의무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한 남편이 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들의 전형적인 탄원입니다.

"몬슨 부대관장님께.

"저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불행하며 모든 것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은 비록 저의 생활에서는 떠나갔지만 결코 저의 마음에서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와 같은 잃어버린 말일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때때로 갈 길을 보여 주고, 격려해 주며, 두려움을 떨쳐 주고, 간증을 나누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을 기억했습니다. 그 곳에는 1831년 조셉 멜로드 윌리엄 터너가 그린 걸작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위험과 죽음을 암시하는 사나운 바다가 그려져 있으며, 좌초한 배에서 나오는 불빛이 멀리 가물거리듯 보입니다. 앞쪽에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 높이 치솟은 구명 보트가 있고 남자들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보트에서 힘껏 노를 젓습니다. 해변에는 한 아내와 두 아이들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럽게 바다 쪽을 응시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그림의 제목이 "구조대에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보트처럼 좌초되어 파멸에 직면한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정과 가족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조하러 가겠습니까?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부름을 충실히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 있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2]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연극 *쉐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할 수 없다.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갈릴리에 있는 어부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3]고 말씀하시며 그물을 버려 두고 그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

인을 부르시며 "대열에 합류하라"[4]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와 함께 전투의 계획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5]

저는 의무라는 고귀한 말을 사랑합니다. 야고보의 서한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6]

저의 세대에서 많이 불렀던 "바라면 이루어지리니"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간증을 나누고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불행하게도 신권 활동의 대열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줍시다. 교회의 활동과 성장의 토대가 되는 멜기세덱 신권을 강하게 만듭시다. 이 신권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족과 가정과 정원회를 강화시켜 주는 지지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들에게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와, 그분의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고 영의 동반을 누리게 하여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7]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세주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오라"[8]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의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죄의 슬픔에서 나오십시오. 불신의 죽음에서 나오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들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더욱 구세주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영생의 약속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을 때 그가 말한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9]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영적인 겨울잠을 잔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영적으로 활발히 활동 할 수 있습니까? 한 시인은 죽음에 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 그가 잠드니라"[10] 저는 이러한 새로운 출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니 그들이 깨어나니라"

태도와 습관과 행동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영원한 가능성을 입증해 왔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결심을 해 왔습니다. 인간은 일단 훌륭한 것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범한 것에 오래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구세주의 훈계에 따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으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야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또다른 진리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친 한 교도소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죄수들을 교화하려는 더피 소장의 노력에 대해 혹자는 "표범의 점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라고 비난했습니다.

더피 소장은 "나는 표범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고 있소. 그리고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래 전,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선교부장으로 떠나기 전, 쉘리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와드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쉘리는 젊었을 때 주먹깨나 쓰는 사람으로 거의 권투 선수급이었습니다. 싸움은 주로 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귀환하고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쉘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저와 제 가족을 인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쉘리, 먼저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문제는 형제님께서 캐나다에 계실 때 해결했습니다. 저의 가정 복음 교사는 학교 횡단 보도 안내원이었는데 저희는 매일 횡단보도에서 만날 때마다 복음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봉되었으며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잇따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대업에 참여하게 하려거든 먼저 당신이 그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확신시켜라."[11]

친구라면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이상의 방문을 할 것입니다. 친구는, 공로를 인정 받는 일보다는 사람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는 걱정하고 사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손을 내밉니다.

어느 와드에나, 사람들 마음속의 벽을 허물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소질을 가진 듯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엘 에간이 그랬습니다. 그는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보좌였습니다. 그는 어떤 가장과 친하게 지냈으며 교회에서 그를 재활동시킨 다음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용기를 주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은퇴한 고위 간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드에서 가장 훌륭한 지명을 받았습니다. 실직자에게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일이죠. 금년에만 12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체구가 작아서 "작은 에드"라고 불렸던 그가 눈빛을 반짝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혼자서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평생 남을 도왔던 왈터 스토버 형제의 삶의 공식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토버 형제의 장례식에서 그의 사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왈터 스토버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을 향해 일어서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12]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의 언어를 습득하십시오. 이 언어는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독서나 암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면 벽을 허물 수 있고, 장

애를 극복하며,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시련의 날에 이러한 지식과, 희망과, 이해는 지친 영혼과 슬픈 마음에 위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절망의 그늘은 희망의 빛에 의해 물러가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며, 대중 가운데서 자신이 실종된 듯한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지식으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위해 터너의 그림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좌초를 당한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들은 구명 보트를 타야 할 신권의 책임이 있는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의무를 깨닫고,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조대 대열*에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In Brian H. Study ed.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President Wilford Woodruff, His Two Counselors, the Twelve Apostle and Others*, 5 vols. (1987~1992), 2:87.
2. *데저렛 뉴스 세미위클리*, 1878년 8월 6일자.
3. 마태복음 4:19.
4. "We Are All Enlisted", *영문 찬송가* 250장.
5. 교리와 성약 107:99.
6. 야고보서 1:22.
7. 에베소서 2:19.
8. 요한복음11:43.
9. 요한복음 9:25.
10. Alfred, Lord Tennyson, *In Memoriam A.H.H.*, section 85, stanza 5, line 4, spelling modernized.
11. *The Colleced Works of Abraham Lincoln*, ed. Roy P. Basler, 8 vols.(1953), 1:273.
12. 마태복음 25:40.

영구 교육 기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회의 열쇠입니다."

형제 여러분, 말씀 드리기에 앞서 다양한 분들로 구성된 여기 계시는 이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시온의 찬송가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주님의 영감을 구하면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849년, 우리의 선조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2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선교사들이 꾸준히 개종자를 내고 있었으며 한 번에 수 백 명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침례를 받은 그들은 시온으로 집합하고자 했습니다. 이 곳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기술을 필요로 했으며 이 곳으로 오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 또한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여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영감을 받은 한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영구 이민 기금"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후원을 받았던 이 제도는 가진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융자는 개종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이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돈을 또다른 이민자들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순환되는 자원이었습니다. 진실로 "영구 이민 기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의 도움으로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개종자들이 시온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숙련된 석공이었으며 다른 여러 사람들은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건축 일에 엄청난 기여를 했으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차와 손수레를 끌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1856년 와이오밍 벌판에서 약 200명이 동사하는 그 끔찍한 손수레 부대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여 이 계곡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모일 형제는 영국 폴리머스의 석공이었는데 17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는, "나는 평판이 좋

든 나쁘든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성약을 맺었다. 이것이 내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고든 비 힝클리, *제임스 헨리 모일*(1951년), 18쪽]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석공이었지만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영구 이민 기금"에서 돈을 빌려 1854년에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뒤 대평원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라이온 하우스에 석공으로 취직하여 하루에 3불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하여 빌린 돈 70불을 즉시 이민 기금에 상환했습니다. 그는 "그런 후에야 나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회했습니다.(*모일*, 24쪽)

영구 이민 기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기금으로 축복 받은 분들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선조들을 위해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 여러분은 오늘날 번영하고 있으며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자국에서 부름 받은 이 젊은 남녀들은 멕시코, 중미, 남미, 필리핀 등지에서 명예롭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거의 없지만 가진 것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기부한 "일반 선교사 기금"에서 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부름 받아 온 장로 자매 선교사들과 더불어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봉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합니다. 신앙과 헌신으로 일합니다. 그리고는 해임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소망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빈곤 속으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제한된 능력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가난의 대열에서 이탈하고자 기술을 배우느라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기금은 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헌금을 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구 이민 기금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것을 "영구 교육 기금"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모은 돈으로 주로 귀환 선교사인 야망에 찬 젊은 성도들에게 돈을 융자해 주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후에 이들이 취직을 하면 약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기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원

대회 참석자들이 컨퍼런스 센터의 광장과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근처의 교회 본부 건물에서 바라본 모습.

의 원장들은 현지에 있는 교육의 기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술 학교에 다니면서 컴퓨터, 냉동 기술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전문 직업 훈련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육원장이 진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종교 교육원에 다녀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교육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교육원장은 감독과 스테이크장에게 이들의 합당성과 도움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자의 이름과 필요한 융자 금액을 적어서 교회 본부로 보냅니다. 이 금액은 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로 직접 납부될 것이며 그들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이를 감독할 위원회를 둘 것이며, 이 분야에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자원 봉사를 하기로 하신 명예 총관리 역원 한 분을 총 책임자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자원 봉사를 할 책임자와 서기 외에는 별도의 직원도 없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데 사실상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년 가을부터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훌륭한 기술을 습득한 이 젊은이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융자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십일조와 헌물을 낼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는 그들로 인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그 날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시도입니다만, 우리는 그 필요성과 성공을 믿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서 시행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장차 가족을 갖게 될 젊은이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며 강력한 지역 지도자를 갖게 되는 교회에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비용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이미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권 계통을 따르고 지역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꼭 맞는 기술과 필요한 전문 분야를 다룰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며 훌륭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수혜자들은 융자금을 상환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수혜가 아닌 차용과 상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독립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충실하고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 알선 서비스를 실행

솔트레이크 성전과 템플 스퀘어를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
오른쪽으로 돔형의 태버내클이 보이고 왼쪽 위로 어셈블리 홀이 보인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2001년 7월

대관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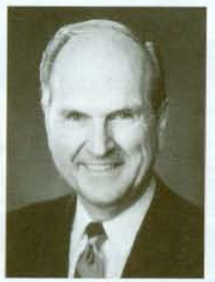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칠십인 회장단

엘 알든 포터

얼 시 팅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말린 케이 젠슨

데이비드 이 소렌슨

벤 비 뱅크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안헬 이브레아 |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 닐 엘 앤더슨 | 메릴 제이 베이트먼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몬트 제이 브러프 | 존 케이 카먹

셀던 에프 차일드 | 엘 위트니 클레이튼 | 겨리 제이 코울먼 | 스펜서 제이 콘디 | 진 알 쿡 | 퀜틴 엘 쿡 |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로버트 케이 엘린바흐 | 존 비 닥슨 | 찰스 디디에이 | 본 제이 페더스토운 |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 월터 에프 곤잘레스 | 존 에이치 그로버그

브루스 시 하펜 | 도널드 엘 홀스트롬 | 에프 멜빈 하몬드 | 해롤드 지 힐램 | 에프 버튼 하워드 | 제이 이 젠슨 | 케네스 존슨

엘 라이오넬 켄드릭 | 더블류 롤프 카 | 오시히고 가꾸찌 | 크리 엘 코모드 | 존 엠 매드슨 |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 린 에이 미컬슨

글렌 엘 페이스 | 렉스 디 피네가 | 칼 비 프랫 |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 린 지 로빈스 | 세실 오 사뮤엘슨 | 스티븐 이 스노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 챈스 비 워크먼 |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칠십인 제이 정원회

리차드 디 올레드 | 에토스 엠 애모림 | 이 레이 베이트먼 | 엘 에드워드 브라운 | 더글러스 엘 클리스터 | 발 알 크리스텐슨 | 다윈 비 크리스텐슨

리차드 이 쿡 | 키스 크로켓 | 아데마 다미아니 | 듀엔 비 제라드 | 에이치 엘드리지 갈레스피 | 로널드 디 할버슨 | 웨인 엠 헨룩

키스 케이 힐버그 | 제이 켄트 졸리 | 데일 이 밀러 | 업 엠 온슨 | 메릴 시 옥스 | 로버트 시 옥스 | 로버트 에프 오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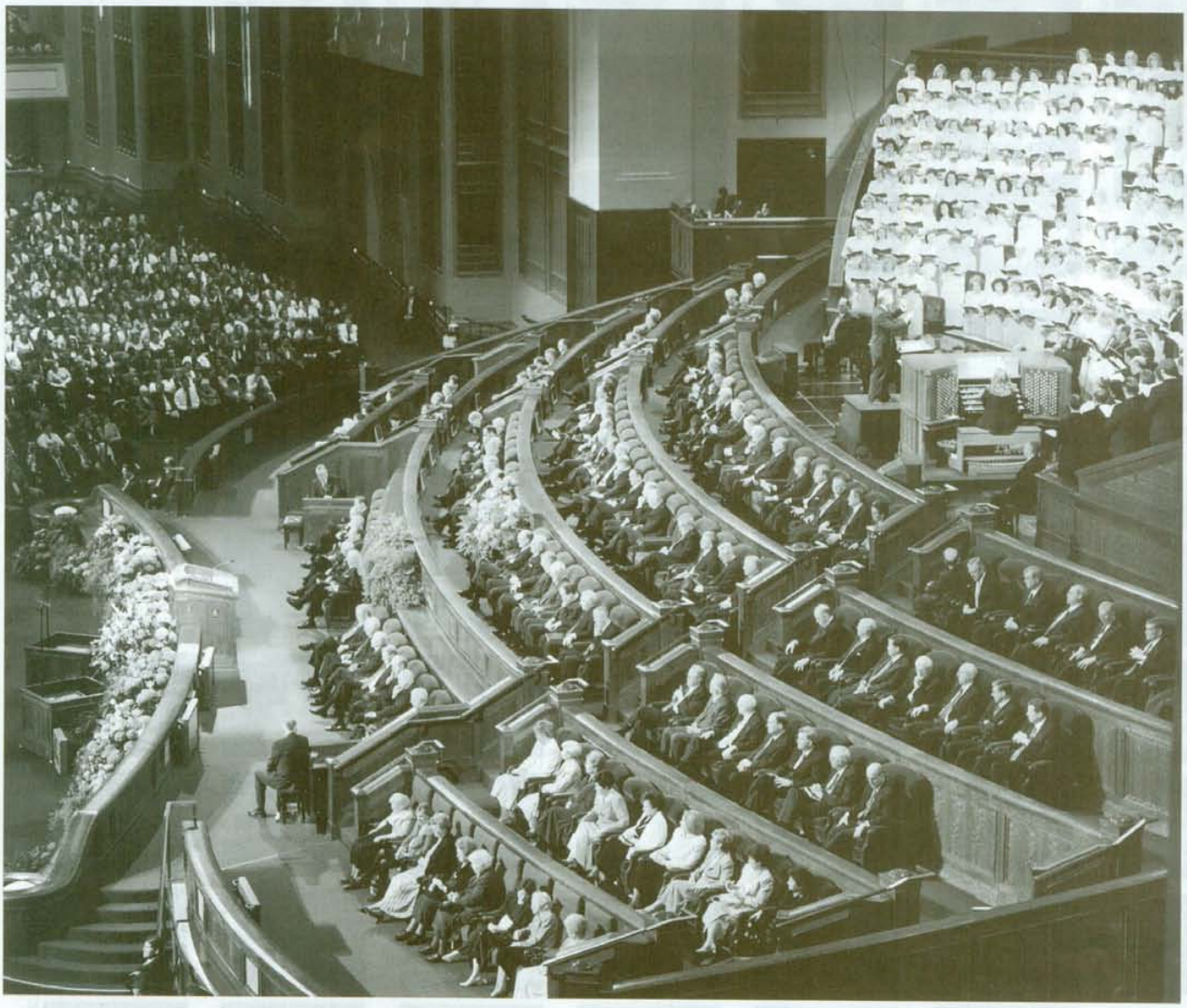
스티븐 비 오브슨 | 웨인 예스 피터슨 | 브루스 디 포터 |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 네드 비 루에시 | 알 콘래드 슐츠 | 데니스 이 시먼즈

도널드 엘 스태헬리 | 로버트 알 스토이어 | 데이비드 알 스톤 |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 제럴드 엘 테일러 | 디 리 토블러 | 고든 티 와츠

스티븐 에이 웨스트 | 로버트 제이 훼튼 | 리차드 에이치 윈컵 | 리차드 비 워스린 | 레이 에이치 우드 | 로버트 에스 우드 | 에이치 로스 워크맨

감리 감독단

리차드 시 에즐리
제1보좌 |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리 감독 | 키스 비 맥엘린
제2보좌



맨위의 왼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맨 위의 오른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대회 장소에 입장하고 있다. *위:* 크레이그 제솝 형제의 지휘하에 대회에서 노래하고 있는 태버내클 합창단.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다섯 줄의 단상 좌석에 앉아 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구직자 소개 사무실이 주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문제는 영구 교육 기금에서 관여합니다. 직업 알선 센터는 기술은 있지만 적당한 구인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다룹니다. 전자는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기금이며, 후자는 이미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기 위해 함께 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신권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르우벤 클라크 2세, 1950년 4월, 대회 보고, 180쪽)

영적인 면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도들을 돕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대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일백년 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현세에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는 내세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회의 열쇠입니다.

이 훈련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회에 적합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습니다. 관대한 친구들과 조직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이 일을 성공시킬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번성케 하시고, 영구 이민 기금이 그 기회를 선용한 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으며 이는 필요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약속한 대로 상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요한복음 12:8)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세대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순환하는 기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리와 성약 81:5)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운명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충실한 자가 땅의 훌륭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후의 햇빛이 컨퍼런스 센터 실내의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일요일 오전 모임
2001년 4월 1일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구세주의 속죄를 통한 죄 사함의 완전한 혜택은 회개와 침례로 시작하여 성신을 받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일은 저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덟 살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형제들에게 이 위대한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침례 받은 후에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례 받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계단을 내려가 물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 의식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침례는 죽음과 장사 지냄, 부활을 의미하며, 물 속에 잠김으로써만 행해질 수 있기"[1]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물이 많았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구세주께서 지정하신 모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새"[2]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비록 여덟 살이었지만 침례 기도문은 저의 영혼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주신 어빈 지 데릭 형제님은 저의 이름을 부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아멘."[3]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침례 받은 이후로, 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방법과 권능으로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얼어붙은 호수나 바닷가, 연못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연못은 침례식을 위해 일부러 파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연못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1840년, 당시 십이사도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윌포드 우드럽은 레드베리 근교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큰 농장과 작은 연못을 갖고 있는 존 벤보우를 만났습니다. 존은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히 듣고 싶어했던 연합 형제회의 회중에게 우드럽 장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1840년 3월 7일자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루종일 연못의 물을 깨끗이 하고 침례를 줄 준비를 하였다. 후에 나는 이 연못에서 6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4]

구세주께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5]

니고데모는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6]

여덟 살부터 팔십 또는 구십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독일 민주 공화국의 루이스 울프는 1989년에 침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94세에 거듭났다."[7]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자에 의해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며, 확인 의식을 받아 "불과 성령으로 죄 사함을"[8] 받음으로써 완성됩니다.

몇 년 전에 앨버트 피터스는 동반자와 함께 경험했던 어떤 남자의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사모아의 사시나 마을에 있는 아티아티라는 사람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면도도 하지 않고 지저분한, 불구의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사

발로우 브래드포드의 지휘 하에 노래하고 있는 태버내클 합창단의 여성 파트.

들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을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여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첫번째 토론을 전하고 간증을 한 뒤 떠났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아티아티의 상태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그는 22년 전 소아마비를 앓아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완전히 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날 다시 아티아티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말끔히 하고 침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 당신들이 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누군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 동안 두 선교사들은 진실하고 지적인 이 사람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쳤고 그는 진리의 강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침례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자기와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을 얻어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침례탕은 12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그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가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구역 책임자가 신성한 침례 의식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침례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터스 장로와 동반자가 아티아티를 안고 침례탕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티아티는 "저를 내려놓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저하자 다시 "저를 내려놓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아티아티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 받는 일에 누군가에 의해 옮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그는 일어섰습니다. 20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선 것입니다. 아티아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물로 들어 갔습니다. 놀란 선교사가 그의 손을 잡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침례탕에서 다시 예배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으며 거기서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티아티는 계속 나아져 갔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터스 장로에게 침례 받던 날 아침 걸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면, 내 수족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9] 우리는 아티아티가 진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부인인 바바라 밸라드 자매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그 뒤로 십이사도 정원회 소속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부인인 엘리사 워스린 자매가 보인다.

아티아티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며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10]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11] 얻어 "새 사람"[12]이 되고 합당성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합당성의 표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자 원하며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 사함을 얻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자에게는 모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 들여야 하느니라."[13]

물에 잠겨 침례를 받는 것은 "복음의 첫째 되는 의식이며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14]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를 줄 때 죄 사유함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과 성신을 받는다는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모래주머니로 [침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5]

구세주의 속죄를 통한 죄사함의 완전한 혜택은 회개와 침례로 시작하여 성신을 받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니파이가 말한 대로 침례는 문이며, "그 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사함을 얻는"[16] 것입니다. 침례의 문을 지나면 신권과 성전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성약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신의 특별한 은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과 함께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에 의하여 확인 받음으로써 주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17]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합당할 경우, 일생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더 큰 이해와 발전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 주며 우리의 영혼에 감명을 주어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과 권위도 우리에게서 이러한 지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18] 진실로 성신의 은사가 없는 것은 면역 체계가 없는 육신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옴을 믿습니다.[19] 이 영은 성신의 은사와는 구분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신과 성신의 은사에는 차이가 있다"[20]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은 성신의 권세로 계시를 받아 복음의 참됨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권세를 통하여 진지한 구도자들은 침례 받기 전에 몰몬경과 복음의 원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신의 집행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빛과 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신의 은사가 "성령의 일반적인 나타내심보다 영원한 증거가 되며 영적으로 더 고귀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21] 그것이 더 고귀한 축복이 되는 이유는 성신의 은사가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22]

물과 성령에 의한 침례는 완전한 구원에 필수적이므로 영원한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성전에서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침례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고 또한 실행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해 가르치면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

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23]라고 물었습니다.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예언자 엘리야의 오심에 관해 말하면서 이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24] 이 일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족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6억 6천만 명의 이름이 패밀리서치(FamilySearch™)[25]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은 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성신의 침례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72년 전에 부모님의 친한 친구로서 고결한 분이셨던 조셉 에이 에프 에버렛 형제님에 의하여 합당한 권능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의 중요성을 인증하여 주실길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26] "옛 죄를 깨끗케"[27] 하여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개종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오직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28]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성서 사전(Bible Dictionary), "침례", 618쪽; 또한 마태복음 3:16; 사도행전 8:37~39; 로마서 6:1~6; 골로새서 2:12; 교리와 성약 20:72~74; 128:12~13 참조.
2. 마태복음 3:16.
3. 교리와 성약 20:73 참조.
4. 다음 서적에서 인용함.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1964), 117쪽.
5. 요한복음 3:2~3.
6. 요한복음 3:4~6.
7. "94세에 거듭남", *탐불리*, 1994년 6월호, 24쪽.
8. 니파이이서 31:17.
9. Albert Peters, "One Trembling Step at a Time", *엔사인*, 1994년 6월호, 56~58쪽 참조.
10. 앨마서 5:14 참조.
11. 앨마서 5:14 참조.
12. 모사이야서 27:26 참조.
13. 교리와 성약 20:37.
14. 성서 사전(Bible Dictionary), "침례", 618쪽.
1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297쪽.
16. 니파이이서 31:17; 또한 교리와 성약 19:31 참조.
17. 사도행전 19:2~6.
18. 니파이이서 31:18 참조.
19. 교리와 성약 93:2 참조.
2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7쪽.
21.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vols. [1965~75], 5:4.
22. 성서 사전(Bible Dictionary), "성신", 704쪽.
23. 고린도전서 15:29.
24. 말라기 4:6; 또한 교리와 성약 138:47; 요셉 스미스서 2:39 참조.
25. www.familysearch.org 참조.
26. 로마서 6:4.
27. 베드로후서 1:9.
28. 모사이야서 4:3 참조.

"희망의 쟁기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속죄를 활용함으로써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모로나이서 8:26)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91; 45:26 참조) 그 확연한 차이는 역행하는 세상의 추세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은 회복의 일부분으로 밝혀진 원리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세상에서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5:31 참조)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는 권태와 폭력이라는 모순된 혼합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에베소서 2:12; 또한 앨마서 41:11 참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말일에 교회의 회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가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지 못하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례 없는 대중 매체가 있지만, 외로운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술이 가져다 준 연대감은 결코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닥쳐온 폭풍과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해 슬퍼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유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유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역경]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기]"(힐라맨서 12:3)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조용히 그분의 충실한 백성을 개인적으로 연단하시지만, 여러 사건들은 또한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맑게"(교리와 성약 105:31; 또한 교리와 성약 136:31 참조) 될 하나님의 보다 높은 길과 왕국을 비추어 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몹시 험난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부모들과 기능이 마비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과 폭력과 외설물로부터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결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모로나이서 10:22) 것인데,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실에 놀라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마귀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니파이이서 2:27; 또한 18절 참조)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의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용감한 자들은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니파이일서 11:17) 못할 때조차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혹하고 냉혹한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갈채를 보내며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힘과 선함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인 우리는 유사한 상황이 닥쳐온다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반면, 그토록 뛰어난 성품을 형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업료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입니다.

어떤 사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돕는 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국가 내에서 개척자가 되거나, 평화가 사라진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또한 결코 늦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1:35 참조) 또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 그러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 "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현재 온전한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곳에서 그들이 행하도록 마련하신 모든 것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여호수아 24:15 참조) 제자들은 거친 세상에서도 "굳게 지키며"(교리와 성약 9:14), "끝까지 충실하며"(교리와 성약 6:13), "[자신의] 길을 계속"(교리와 성약 122:9) 갑니다.

그러나, 견디고 순종한다는 것은 피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들을 온유한 가운데 그러나 당당하게 지니고, 더 큰 의무들을 맡기 위해 충분히 분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결국 "예수의 팔에 안기는"(몰몬서 5:11)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현재 다소 손가락질로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니파이일서 8:33 참조)

나중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태복음 25:21) 하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된다면, 현재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편,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개[라]"(고린도전서 9:10)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과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 의해 오늘 우리가 받는 모욕은 내일의 우리를 높이 들어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앨마서 42:8, 16 참조)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모든 일에 시련을 겪기를"(교리와 성약 136:31) 바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겪게 됩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리라."(모사이야서 23:21 참조) 주님의 시간 안에서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때가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배우도록 합시다.

"인내로 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의 안위로"(로마서 15:4 참조), 또한 "이러한 증거를 가짐으로 하여"(야곱서 4:6; 니파이이서 31:20 참조) 가지게 된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요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11:1; 또한 이더서 12:6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밭이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고린도전서 9:10) 마침내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어야 합니다.(니파이이서 31:20; 또한 앨마서 29:4 참조)

하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작은 일에 대한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열왕기하 5:13) 하도록 명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도를 고쳐 겸손해졌을 때, 나아만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열왕기하 5:14, 15 참조) 작은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되며 큰 일은 더욱 하기 어려워집니다.(모사이야서 5:13 참조)

"희망의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수확의 법칙을 이해할 뿐 아니라 수확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은 변화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의 눈"(앨마서 5:15)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값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부활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에 귀착됩니다.(모로나이서 7:40~41; 앨마서 27:28; 교리와 성약 6:13; 14:7 참조)

그 영광스러운 속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경전 구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무한하신 속죄"(니파이이서 9:7; 또한 앨마서 34:12 참조)가 요구한 것은 무한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물러서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비롭게도 그분은 물러서지 않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준비를 마치"(교리와 성약 19:19) 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빈틈없이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니파이삼서 11:11) 행하였습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이 말씀에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러운 속죄의 과정에서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도록"(모사이야서 15:7)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높으신 주권자에게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선택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승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승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으로 난 자기를 버리기 전에는 몸에 제대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육으로 난 자기를 버림으로써 수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에베소서 6:11, 13 참조)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모사이야서 14:12; 또한 이사야 53:12; 교리와 성약 38:4 참조)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구에 자신의 영혼을 "버려" 그 영혼을 비워 버린다면, 더 큰 기쁨을 느낄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경전 구절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교리와 성약 88:106; 또한 교리와 성약 76:107 참조)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위안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맹렬한 진노를 참으셨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늘 쉽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란 견디기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깨 위에 짊어진 나무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십자가인 양 오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실 때, 모든 것보다 낮아지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 또한 교리와 성약 122:8 참조) 절망 속으로 내려가시던 그 길이 얼마나 깊으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심연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한층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험을 힘들게 여기지 맙시다.(앨마서 7:11~12 참조) 게으른 마음이 환영 받지 못하듯, 미워하는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온전히] 참예"(빌립보서 3:10; 또한 고린도전서 1:9 참조)하려면, 참된 제자로서의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병과 슬픔과 마음의 고통 또한 짊어지셨습니다.(앨마서 7:11, 12; 마태복음 8:17 참조) 그분은 몸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완전한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며 동시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기에]"(교리와 성약 133:50)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신 경우(모세서 7:28 참조)를 보면, 예수님의 무한한 속죄의 고통과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과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신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는지를 말해 주는 구절을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구세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그 후에는 그분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요한복음 6:66 참조) 물러서려 하는 것에는 돌아서는 것뿐 아니라 중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행복하게"(니파이이서 5:27) 살아가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남자와 여자가 됨으로써,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 또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니파이삼서 27:27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속죄의 축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6:14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기꺼이 안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앨마서 29:4, 6 참조) 두려움이란 때로 용납되며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속죄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경전 구절들을 우리 자신에게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음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 실제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니파이일서 19:23 참조) 무한한 속죄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속죄를 통해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잘못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속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모로나이서 8:26)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삶의 시내산에 오르는 등산로에서 그토록 필요로 하는 소망과 사랑도 없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요한일서 5:3, 4 참조), 개인적으로 하도록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며, 비통해 하지 않고 쓴 잔을 마실 수 있게 되며,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경험을 하며, 우리의 뜻이 점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며, 비록 훈련의 시련들이 힘겹다 해도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네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는"(교리와 성약 122:7)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교리와 성약 84:38 참조) 포함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비할 데 없는 은사들을 사용하여, 인내하며 밭이랑의 끝까지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약속이 따르는 초대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단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증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옛날처럼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탄은 실재하며 지상에 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파괴와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며,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경고의 음성"(교리와 성약 1:4)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며, 또한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긴박하고 간절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인 동시에 권유이기도 합니다. 1831년 11월 1일에 주어진 다음의 계시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17, 35)

주님께서는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때때로 자연 재해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파괴적인 세력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파괴적인 재앙을 불러오는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입니다. 1831년에 주어진 예언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평화가 거두어지고, 사탄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감쪽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유혹이 산재해 있으며, 무례함과 다툼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끔찍하게 여겨졌던 일들은 이제 오히려 평범한 것이 되었으며, 처음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이내 사람들을 사로잡고는 곧 그들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이 악이라는 재앙은 "온 세상[이] … 죄의 사슬 아래서 신음"(교리와 성약 84:49)할 때까지 계속 세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경고의 음성"을 전해 드립니다.

• *세상적인 욕정을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관능을 자극하지만, 영혼을 노예로 만듭니다. 육욕이라는 거미줄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 *세상적인 부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매혹적인 것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주는 행복은 허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디모데전서 6:10)

•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주는 보상은 거짓이며, 그 밑바닥은 절망입니다. 사랑과 친절과 개인적인 성취와 진정한 자기 가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서 찾는 것이지 자신을 위한 봉사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위험한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항구는 있습니다. 초기에 주어진 계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36)

성도가 되면 안전합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을 말일성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이외에도, 구세주로부터 보다 나은 삶의 길로 초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래 전, 아버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성전복을 구입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복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제 시선은 계산대 위에 놓인 "말일성도 전용"이라는 표지에 쏠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의 머리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말일성도 전용'이라고 되어 있을까? 왜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 용'과 같은 말을 쓰지 않을까? 왜 '말일성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강한 본성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래 전에 경험했던 그 의문의 시간은 자신을 다듬는 값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단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냉소와 불신에 찬 오늘날의 세상에서 회원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성도가 지녀야 할 영성과 경계심이 요구됩니다.

성도답게 된다는 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올바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미덕이 표현되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는 2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본질입니다. 가정은 그저 호텔 정도가 아니라 "작은 천국"(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64년 4월, 5쪽)입니다. 가족은 단순한 사회적, 법적 또는 생물학적 집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기본 단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생활화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말일성도들은 일상사에서 좀더 선해지고, 좀더 친절해지고, 좀더 고결해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라 …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이 과정을 따라가면 말일성도들은 위험한 모래톱 같은 세상의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대로 살면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힝클리 대관장님이 해주신 예언적인 안내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회원들에게 성약을 서너 가지라도 지키면서 살도록 권유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약 가운데 *첫번째*는 *성찬의 성약*인데, 우리는 이 성찬을 취하면서 구세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분의 성약에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둘째, 십일조의 성약*입니다.… 여기에는 … 주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

"*셋째, 성전 성약*입니다. 그 중에 희생의 성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심, 곧 그 희생의 율법에 내재해 있는 본질인, 희생에 대한 의지가 바로 속죄의 핵심입니다. … 헌납의 성약은 필요하다면 이 위대한 사업의 전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심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충실함과 순결과 도덕성으로 결합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정절의 성약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백성들이 이러한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만족스러울 만큼 저절로 잘 될 것입니*

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146~147쪽; 사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내용임)

*세상적인 욕정*은 거룩한 성찬식이 우리 생활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 성약을 통해 충실한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교리와 성약 59:9; 또한 10, 12~13 참조)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주님의 십일조의 법을 양심적으로 지킬 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것입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명령을 받지 않고도 기꺼이 바치는, 보다 높은 율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식과 금식 헌물은 속히 바칠수록 좋으며,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빈민을 축복하고 가족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이사야 58:6~11 참조) 십일조의 성약은 충실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거나 그와 연관되는 일에서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는 일*은 희생과 헌납과 기타 거룩한 성전 성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성약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갖고 계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토록 굳세고 강해 보이는 악들을 물리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지상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말일성도들의 삶에서 영원한 성약들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세상 끝까지 말씀과 모범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킵니다.(교리와 성약 1:19~23 참조)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희생: 영원을 위한 투자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희생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 그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키워줄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엄마로서 저는, 구약에 나오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 주님께 그의 어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간 그 당시, 사라는 최소한 10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곧 그가 그 커다란 신앙의 시험을 홀로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필멸의 인간도, 영감을 받았거나 그런 영감을 받을 만큼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Teachings of Lorenzo Snow*, 116쪽, quoted in 100 Gospel Topics book, 303쪽)

아담 이래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은 희생의 법을 지켜왔습니다. 희생은 해의 왕국 율법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희생을 치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희생을 매우 아름답게 정의하셨습니다. "희생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물 … 시간 … 힘 … 재능 … 신앙 … 그리고 간증을 드리지 않고서는 경배드릴 수가 없습니다."(*Teaching of Gorden B. Hinckley* [1997], 565쪽)

형제 자매 여러분, 희생의 법은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 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으로서, 경배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줄 기회를 축복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과연 희생의 원리에 완전히 개심했습니까?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구세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찐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고] … 와서 나를 좇으라" (마태복음 19:21)

우리가 구세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생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을 가르치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내어 주는 것, 선교 사업에 우리의 노력을 바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

컨퍼런스 센터 동쪽 보도 위에 길게 줄지어 선 대회 참석자들.

들에게 희생하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삭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저의 할아버지는 저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치기 일을 하셔서 네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셨습니다. 대공황 기간에 저의 어머니는 캐나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어머니에게 매달 송금되던 50달러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은행에서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매우 난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융자를 받아서 매달 12퍼센트라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은행 측은 할아버지의 대답에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으며, 선교 사업을 하는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은행 측에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양들은 모두 당신네가 돌보시오. 내가 양들을 은행 문 앞까지 몰아다 드리리다." 은행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은행이 운영하던 양 목장을 돌보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 이외에는 그 모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니는 선교 사업을 완수했으며 할아버지의 모범은 가족들에게 희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희생을 가르칠 때, 우리는 욕구를 자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 로버트 이 리 장군은 한 여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과도한 물질적 풍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결코 얻는 일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외로운 이웃을 돕거나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을 통해서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주의를 집중할 때, 자신의 필요 사항은 덜 중요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옵니다.

둘째,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충실한 말일성도들의 선함에 감격하게 됩니다. 할머니에 의해 양육된 컬럼비아의 한 젊은이는 여러 개의 구두 수선 가게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를 위한 여분의 기금도 내놓았습니다.

음식과 옷, 가구 등을 나누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19:26 참조)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에 데저렛 복지 시스템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여 유행이 지나기 전에 옷들을 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옷을 입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나눌 때 많은 보상이 옵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날로 저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26) 우리는 모두 생활 가운데서 나누어 주고 내어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생의 세 번째 영역은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와드나 지부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부부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 분들이 선교사를 사랑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교회 교리와 문화를 가르치며, 얼마나 큰 선을 행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힝클리 대관장님은 한 부유한 지역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셨는데 그곳에는 부부 선교사가 단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더 많은 회원들이 봉사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자녀와 손주들이 그들과 헤어져 있는 것을 섭섭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메일의 발명으로 부부 선교사들은 언제라도 다정한 편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쌓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모험심과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동 주택차로 여행을 하거나 안락 의자에 앉아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 주에 교회의 모든 청년는

교회 내의 저활동 친구를 한 명씩 데려와 활동화 시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청남 여러분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메간은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두 친구를 위하여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그 중 한 친구를 세미나리 과정에 등록시켰으며, 또 다른 친구는 선교사 토론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이 두 청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여러분의 학교 복도까지 찾아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희생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시간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예배의 형태 중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키워줄 수 있게 해 줍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 보상은 영원하며 끝이 없습니다."(*Teaching of Gorden B. Hinckley*, 567~568쪽)

이러한 투자를 하도록 기대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안을 느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희생의 원리를 더욱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우리를 구세주께 더 가까이 데려가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우리 생활에 오는 축복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금방 그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도시의 이 거리 저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는 택시 운전 기사와 함께 차를 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침내 그 기사는 포기하고, 차를 멈추고는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묻습니다. 자매님들, 이러한 경험을 해 보신적이 있으시지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길 안내를 따를 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인생의 어렵고 혼잡한 도로를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시대로, 예절, 정직, 성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표준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화평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철학이 디기와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우리의 절망을 증폭시키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명확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편견없는 음성은 없습니까? 오늘날의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도록 우리에게 항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음성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한 음성은 살아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의 음성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171년 전 이 달에 조직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를 통하여 그의 교회의 회원들에게 한 편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세주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교리와 성약 21:4~5)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

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6)

일년 반 후에 주님께서는 이 중대한 약속에 다음과 같은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리와 성약 1:14)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생활에 오는 축복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대관장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권고를 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또 신속해야 합니다. 고대의 니파이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라고 하였던 것처럼 예언자의 권고에 따를 때 안전과 평안, 번영과 행복이 함께했음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결국에는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열왕기하 5:10)게 되리라는 지시를 받았던 나아만의 경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권고를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서 행하라고 받은 지시, 곧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씻으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의 자부심과 완고함 때문에 주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실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결국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몸을 일곱 번 담가서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열왕기하 5:14)

나아만이 자신의 자부심과 예언자의 권고를 듣지 않으려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언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단순한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된 위대한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힝클리 대관장님은 가족,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분께서는 10월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어머니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아버지와 신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부모들에게 이러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지상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일에서 그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자녀이며 여러분의 살 중의 살로서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3쪽)

그러고 난후 지난 11월에 바로 이 연단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되고 가슴에 울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지식을 쌓으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지니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항목은 모든 말일성도를 위한 훌륭한 표준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원리들을 지난 주의 청녀 모임에서도 그들에게 반복하셨으며, 저는 그 원리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도자로서, 주어진 예언자의 권고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으리리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가슴에 미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언어로 저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였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쪽)

신권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짐을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이해하여 여러분께로 다가오게 하며, 외로움에 빠진 이들에게 위안과 지지를 안겨주길 바랍니다. 인도와 인내심을 간구하십시오. 비록 심각한 죄를 진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십시오. 이해와 친절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영감을 간구하십시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7쪽)

우리는 그분의 권고를 연구하고 우리가 피하거나 다르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저는 예언자의 말씀이 있기 직전에 두 번째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였던 열일곱살 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노변의 밤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귀걸이를 빼고는 부모님에게 말하였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우리가 귀걸이를 한 쌍만 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귀걸이 두 쌍을 다는 것이 이 청녀를 위해 영원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으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매의 기꺼운 마음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자매가 지금 비교적 단순한 것에서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보다 심각한 것에서 그

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자만과 완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참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권고를 경청한다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힝클리 대관장님이 주신 권고를 토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서로 가르치고 또 가정의 밤에서 그리고 가족 평의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을 알고 공과 중에 그리고 지도자 모임에서 가르치며, 와드와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서 나이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우리 회원 모두의 생활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대관장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분의 보좌들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함께 *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에 실려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 청소년과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현재 비디오로 나와 있으며 또 가정의 밤과 감독의 청소년 토론을 위해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 와드의 청소년들이 다시 듣고 또 이해하고 교회 대관장의 인도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결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예언자를 따름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를 두루 여행하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권고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이 전에 했던 것 보다 더 훌륭한 몸차림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말을 피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지혜롭게 택하고, 외설물과 불법적인 마약을 멀리하며, 건전하지 못한 음악회와 위험스런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

신권 모임 전에 컨퍼런스 센터의 남서쪽 문 밖에 줄지어 선 신권 소유자들

는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대관장의 권고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들은 참된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라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래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여러분을 깨끗하고 충실하며 주님 앞에 참된 자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느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로서 당신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4월호 41쪽)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연차 대회에서 가르친 것들에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가르침을 적용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에 무관하게, 서로간의 관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귀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힝클리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여러분께 나타내어 보일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간증이 강화되고 또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알도록 성신이 여러분께 속삭일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기적을 낳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신앙은 간증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충실함의 토대가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즐겁게 바치는 희생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의 마음은 여러분께 닿아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족의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이 사업을 사랑하며 그 힘과 성장력, 전세계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극히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저의 생각과 말씀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103번째의 성전을 헌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천명이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물과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연사 중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여러분이 전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남편과 함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뉴욕 주에 살았던 소년에 대해 말했으며, 그 소년은 열네 살이었을 때 야고보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많은 종교가 서로 참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린 요셉은 지혜를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숲으로 들어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시현을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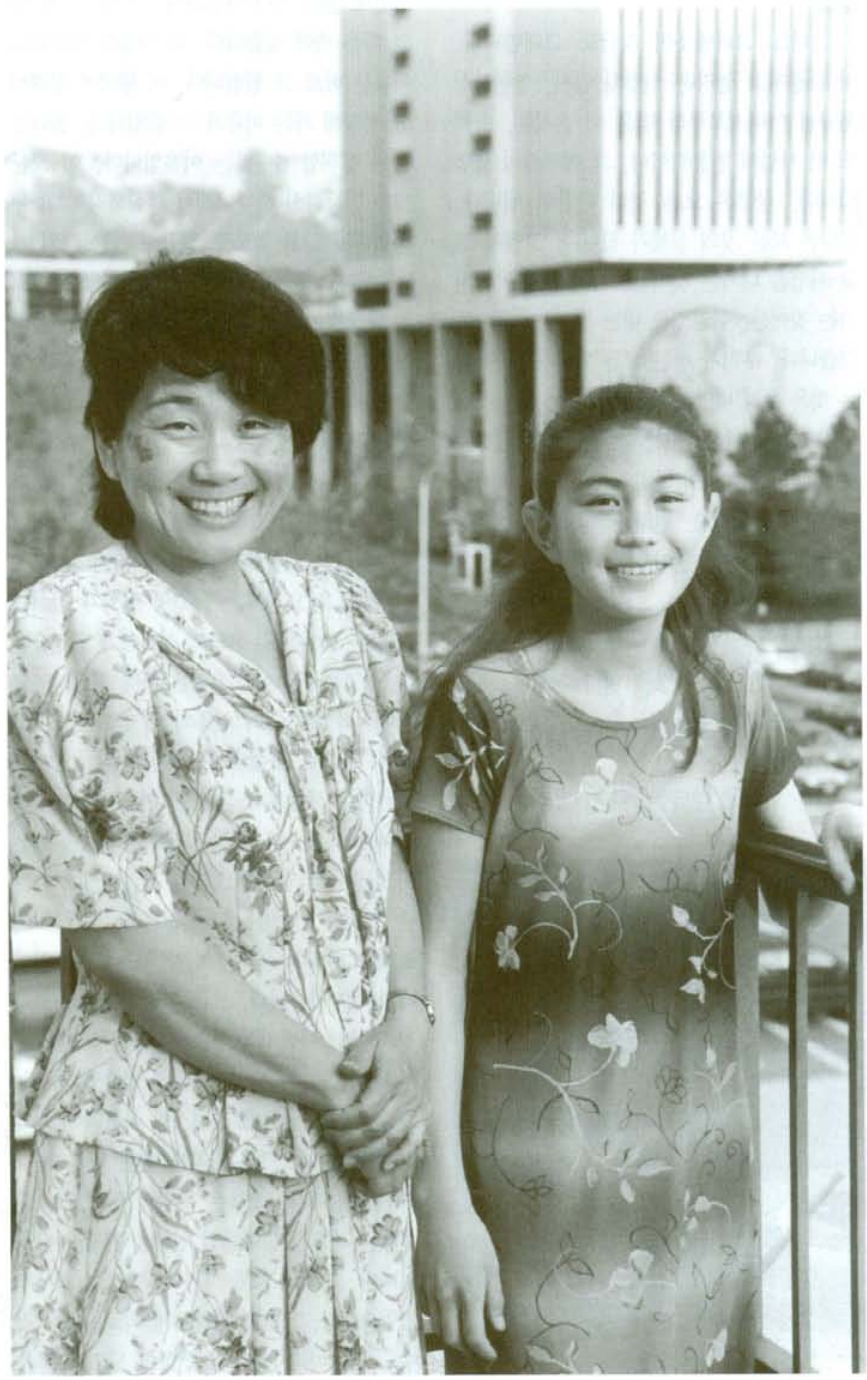
다른 계시가 뒤따랐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서 금판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신권의 열쇠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신앙이 싹터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자라났습니다. 성전 결혼에 대해서, 성신권의 권능으로 가족이 영원히 결합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들은 이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검 절약하여 저축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았을 때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우루과이에서 유타로 여행하여 영원한 결혼으로 결합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인봉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새로 건립된 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성전에서 메이트론 보조로 봉사하고 있으며 남편은 성전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적은 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저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신의 기적으로 감동을 받아 수천 명이 믿고 받아들여 회원이 되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영원히 훌륭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울수록 신앙이 커집니다. 그리고 원리에 원리를 받아 들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개종하는 것도 신앙이며 가르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받아들여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의 훌륭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중에는 브리감 영, 프랫 형제, 윌라드 리차즈,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이들의 부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받아들인 신앙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은사로 감동을 받았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하던 일들을 기꺼이 중단하고 그들이 전해 들은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저는 팔리 피 프랫이 몰몬경을 읽고 교회에 들어온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서 표제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이 책을 받아 번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여러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읽었다. 식사하는 것도 귀찮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밤이 되었을 때는 잠자는 것도 귀찮았다. 잠을 자기보다는 계속해서 읽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책을 읽는 동안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이해하듯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37)

신앙의 은사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는 여생을 선교 사업에 바쳤으며 이 위대한 사업과 왕국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들이 일리노이 주의 나부와 네브라스카 주의 윈터 쿼터즈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들은 나부를 건설했지만, 후에 이를 버리고 아이오와 주를 건너 임시 거주지인 오마하 북쪽의 카운실블러프스와 윈터 쿼터즈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옮겨가야 했던 수많은 말일성도들의 신앙과 충실함에 대한 간증으로 서게 됩니다.

윈터 쿼터즈 성전 부지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대업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수 많은 사람들의 묘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들이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해 온 이야기는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들이 견디어 낸 고통과 희생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같은 날 돌아가신 아내와 처남을 마차 곁에 묻고 계시는, 개척자였던 저의 할아버지의 조그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신앙이요? 그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거나 비극이 발생하면 신앙의 고요한 음성은 밤 하늘에 북극성의 위치가 분명하듯 확실하게 들립니다.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관해 확신을 주고, 이에 관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롭고 놀라운 표출이며,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개척기에 이러한 신앙을 행사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글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소중하고 놀라운 신앙의 은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은사는, 아직도 이 사업의 원동력이며, 그 메시지의 생명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실체가 됩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든, 십일조를 내는 것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결과 뒤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간절히 바라고 조용히 알아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기자 회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 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그분은 왕국과 자녀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사업과 왕국의 힘은 비록 인상적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자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 왕국이 강대하고 성장해 가는 이유가 그 힘입니다.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신앙의 은사에서 왔습니다.

일전에 아루바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루바가 어디 있는지, 그런 곳이 있기나 한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루바는 베네수엘라의 해변에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곳은 네델란드의 보호령이며 이 넓은 세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그 모임에는 18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앞 줄에는 8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6명은 장로이고 2명은 자매 선교사였습니다. 회중은 여러 인종의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조금이었으며, 대부분 스페인어를 썼고, 다른 언어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회원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거기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를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부름 받은 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실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8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들에게 외로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기에 부름

받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자매들은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18개월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구나"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훌륭한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봉사를 통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 참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에 찬 신앙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든,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이든, 몽골이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나가 봉사합니다. "이 대업은 참되니 비용에 상관없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 하고 조용하게 속삭이는 위대한 힘의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생활을 접어 두고, 학교를 떠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지는 곳이 어디이든지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떠나는 수 천명의 영리하고 능력 있는 젊은 남녀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힘으로 가르칩니다. 여기 저기에서 신앙의 씨를 뿌리며 그 씨가 자라나 힘과 능력을 지닌 개종자를 냅니다.

신앙은 간증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충실함의 토대가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즐겁게 바치는 희생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왼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라." (교리와 성약 27:17)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신앙의 정신으로,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시대에 이 땅에 회복된 주님의 왕국임을 증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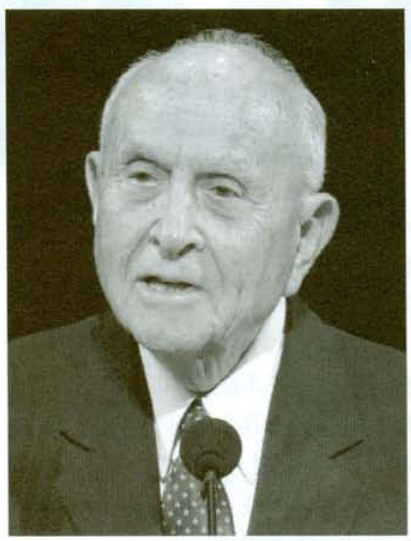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당신께 그리고 구속주께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당신을 진리 안에서 섬길 때 이것이 저희들의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일요일 오후 모임
2001년 4월 1일

감사와 봉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 속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일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영의 계획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제가 이 단상에서 잠시 말씀 드리는 동안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1890년 5월 1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간 성전으로부터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 남녀가 로간 성전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포장된 길이요? 전혀 없었습니다. 덤불 사이를 달리는 마차 길은 어떠냐구요? 예, 바로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행을 마치는 데 적어도 6, 7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남부 아이다호와 유타의 5월에는 비가 내립니다. 말 한 필이 이끄는 마차에 옷가지와 여러 물건들을 싣고—제 생각으로는 말믹이도 어디엔가에 실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떠나는 길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멋진 옷이나 따뜻한 옷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침낭도 없었습니다. 밝은 전등이나 취사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밥을 짓기 위해 건초더미를 모아 성냥으로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여행하여 성전에서 결혼함으로써 저에게 가져다 준 축복과 그에 대해 그 분들께 갖고 있는 저의 감사한 마음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 그 분들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영감과 지도력으로 전 세계에 성전이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해도 성도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 겪었던 불편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러한 축복들은 저의 부모님, 그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생애에 영향을 주었던 교사 및 훌륭한 친구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열한 살 때쯤 작은 우리 마을에 한 남자 분이 교회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이올린을 조금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명을 받으셔서, 제 생각으로는 재고 정리 할인점에서 집어 오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에게 바이올린을 하나 사주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바이올린 연주 발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분은 저의 집에 오셔서 기초적인 바이올린 연주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쯤 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트로이메라이"라는 작품을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저보다 네 살 위인 저의 누이가 제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그 때 졸업생 대표 연설자는 코니 맥머레이 양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여자 애들이 남자 애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대표 연설을 하는 곳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물이 가득 찬 물주전자와 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이사회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단상에는 학교 이사회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들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맥머레이의 멋진 졸업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는 탁자의 물주전자 밑에 있던 작은 받침대가 점점 탁자 끝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내 물주전자와 컵과 함께 그 받침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니 맥머레이는 기절했습니다.

황급히 물을 닦아내고 단상 위의 의자들을 다시 정리하고 난 뒤 이제 데이비드 헤이트 군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작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고 누나는 청중석에서 피아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작고 초라한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집어들었고 누나는 피아노에 앉아 첫 음을 쳤습니다. 나는 "계속해, 어서 연주해."라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조율을 해야지."

나는 "아냐, 아냐, 집에 있는 피아노로 이미 조율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킴볼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 아시겠지만 그 때 그 시절에는, 피아노 한 대와 책 몇 권이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까만 줄 조이개로 바이올린 현을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아노마다 키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누이가 "조율해야 돼."라고 했을 때 "아니야, 집에서 이미 다 조율했어."라고 답한 것입니다.

누나가 도입부를 치고 저는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속도를 늦추었고, 저는 계속해서 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저의 연주를 듣고 있는 100여 명의 관객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도 카네기홀에 있는 청중들을 바이올린 조율 때문에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일은 뒷방에서 준비해 두었다가 시작할 때는 곧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고 나는 "계속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주는 끝이 났고, 그 후로 저의 누이는 며칠간이나 저와 말을 안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나의 작은 마을, 친절과 선함으로 저를 길러준 그 마을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아내 루비가 나의 인생에 동반자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오늘 날 나의 삶에 일부가 된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사랑하는 요한과 안드레를 만났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요한복음 1:36) 그리고 구세주께서 젊은이들 즉 침례 요한, 사랑하는 자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분은 "무엇을 구하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분께 "어디 계시오니이까?"(요한복음 1:38)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보라"(요한복음 1:39)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따라갔고 이 일에 대한 간단한 기사에는 그들이 10시쯤 될 때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 거하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구세주와 여러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면전에 있다고, 그분과 함께 앉아 그분의 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설명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고귀하고 훌륭한 성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은 후 기록은 안드레가 이 사실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대회를 갖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에 대해 말하는 지금, 우리가 귀하고 성스러운 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발견했을 때 그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요한복음 1:41)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나눌 때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감사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주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에 있는 분한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조지 스트와트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서 그 분이 놀라시겠지만 그 분은 40년 전 그 분이 15세일 때 제가 스코트랜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분은 특히 그라스고우 지역의 톤리에뱅크에 있던 자신의 집에 선교사가 방문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분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은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책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 그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계속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어 복음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분은 그가 얼마나 자주 선교부에 왔으며 우리가 그 분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그곳 지부에서 시작한 상호향상회에서 젊은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었을 때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작은 지부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그 후 네 자녀를 낳았는데 한 아들은 워싱턴 디시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고 또 한 아들은 영국의 리드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한 딸은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또 한 딸은 귀환하는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삶과, 선교 사업을 한 그의 아들과 딸들의 삶에 내린 축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 분은 각기 다른 와드에서 네 번 감독으로 봉사하였고 그의 부인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세 차례 봉사했습니다. 그 분은 현재 에드버그 스테이크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곧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는 우리의 생애에 기적이라는 무늬를 짜 넣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는 우리의 생애에 기적이라는 무늬를 짜 넣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이 그와 그의 부인과 그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 모두의 생애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도 교회에 활동적이고, 그와 그의 아내는 직장에서 은퇴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이 사업의 장엄함과 큰 영향력, 영적인 방향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전율을 느낍니다.

캘리포니아의 월넛 크리크에서 온 앤드루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분들은 네 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이번에는 짐바브웨로 부름 받아 짐바브웨 블라와요 지방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다섯 번째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저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킨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당에 있는 이동형 작은 오르간을 가지고 블라와요에 있는 소년 소녀들에게 오르간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예배당 다른 방에 작은 피아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오르간이 있는 방에 한 반

그리고 작은 건반이 있는 방에 한 반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끝마친 뒤에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활동화 과정의 일환으로 성전 준비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곳을 떠나기 전, 28명의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블라와요에서 요하네스버그 성전까지 거의 1000km의 거리를 일박 이일이 걸려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70대 후반이 어떠한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주변을 거니는 이 두 늙은이는 우리의 생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대의 희열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곳 솔트레이크 병원에서 은퇴한 저명한 심장 전문의인 알렌 베이커 박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분은 부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심각한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노인 부부 선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봉사의 사례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사업이 참되다는 저의 증거와 저의 간증과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은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가능성이 놓이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축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 속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일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영의 계획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금식의 법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힘찬 기도와 함께 하는 금식은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의 계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때에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이 교회 전체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의 원천이 되시는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천 년 전에 한 남자가 모래와 자갈 섞인 갈릴리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참으로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그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1]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일에 지상에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세주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선언하신,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2]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금식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중요하고 심오한 실천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회원들은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하고 또한 매달 한 번씩 금식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 우리는 연이어 두 끼를 음식이나 물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금식 헌금을 바칩니다. 그 헌금액은 적어도 취하지 않은 그 두 끼 분의 음식에 해당하는 액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이 금식 주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육체적으로 건강한 회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참됨에 대해 증거하고, 또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금식의 율법은 아마도 인류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 고대에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은 반복해서 교회 회원들에게 금식과 기도의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3]

우리는 경전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금식이 기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금식은 완전한 금식이 아니며, 단지 굶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금식을 그저 먹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여야 합니다. 힘찬 기도와 함께 하는 금식은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의 계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때에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 내부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켜 주고 또 자제심과 자기 수양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종종 우리의 의로운 기도와 간구가 보다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간증도 커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금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 가정과, 매일하는 일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한 정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새로운 고등평의원으로, 그리고 새로운 감독으로서 여러분의 직분과 부름에 필요한 영을 얻고 싶다면, 일정 기간 금식을 시도하여 보십시오. 그저 한 끼의 식사를 건너 뛰고 나서 다음 식사 때 두 끼 분의 음식을 취하는 그런 금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기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분과 부름에 필요한 참된 영을 주고 그 영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4]

컨퍼런스 센터의 발코니와 옥상 정원 및 광장으로 이어지는 컨퍼런스 센터 남쪽 문 근처의 계단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본보기가 있게 하여, 음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합시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를 금식하고 그들이 취하였을 음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감독에게 주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풍성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기쁜 마음과 기쁜 안색으로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한, 그들의 생활은 항상 풍성할 것입니다."[5]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금식의 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보라 주께서 저들을 다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심에 니파이인들은 심히 기뻐하여 주 저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니, 참으로 크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더라."[6]

모사이야 왕의 네 아들의 경우에서 금식과 기도의 강력한 결합의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였으나, 수 천 명의 레이맨인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탐구하고 또 온 몸을 바쳐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습니다.[7]

금식할 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또 궁핍한 이들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느끼는 궁핍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구제하기 위해 감독님에게 헌물을 바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줄 때, 우리가 "날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8]

몰몬경의 또다른 예언자 앰율레크는 우리

가 궁핍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종종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9]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굶주린 이들, 그리고 고통 받는 이들의 외침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에 만연한 가난을 보고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여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금식 헌금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는 것 입니다. 금식 헌금으로 감독에게 주어지는 모든 돈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이 그 지역의 필요량을 넘게 되면, 그것들은 다른 지역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도로서, 저는 그분에 대해 증거하며 세상을 두루 여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또 다른 것을 증거, 즉 수 백만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궁핍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수 백만의 가족들이 매일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로 인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10]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를 호소하는 그들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둘러 그들을 도우러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언자 모로나이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그러한 자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 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11]

저의 와드의 감독님이셨던 저의 아버님께서 저의 작은 빨간 수레에 음식과 의복을 가득 채우시고는, 교회의 집사였던 저에게 그 수레를 끌고 와드의 궁핍한 가족들을 방문하게 하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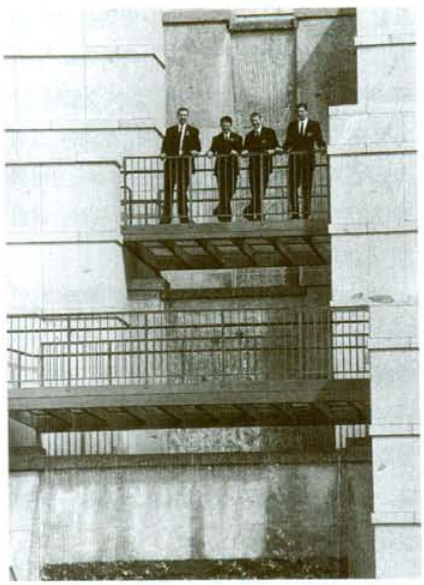
종종 금식 헌금이 바닥나면, 저의 아버님께서는 와드의 궁핍한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개인 돈을 써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 공황기로서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가정을 방문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든 어머니, 실직하여 낙담한 아버지, 굶주림으로 핼쓱한 얼굴을 한 다섯 아이들, 이 가족 모두가 굶주리고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레에 필요한 물건들을 넘칠 듯이 가득 싣고 그분들의 현관으로 걸어 올라 갔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 환히 빛나던 감사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짝 웃었으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과 많은 다른 경험들은 저의 가슴 속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봉사하셨던 저의 아버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한 교회의 충실하고 관대한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또한 궁핍한 가족에게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수레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금식의 기쁨을 가르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이 스스로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녀들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금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식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금식하기를 가르치면, 그것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 따르는 유혹들에 맞설 수 있



컨퍼런스 센터 외부의 3개 층을 가로질러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다.

는 힘을 키워 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금식 헌금을 내야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헌금 분량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분량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온 우리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려는 기꺼움의 척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의 와드의 감독이셨고 또 훗날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셨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의 성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만 주지 마시고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충분히 바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12]

교회에서 집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금식 헌금을 모으기 위해 모든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께서는 젊은 감독이었을 때, 그 분의 와드에 있던 집사들이 금식 헌금을 모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알게 된 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청남들에게 그 부름을 주는 대신에, 이 현명한 감독은 그들을 솔트레이크시티의 복지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곳에서 소년들은 교환대에서 일하는 신체 장애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통조림 깡통에 상표를 붙이는 맹인과 선반에 물건을 놓고 있는 연로한 형제님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한 후 몬슨 부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년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매달 성스러운 기금을 걷는 그들의 노력이,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일자리 없이 곤궁하게 지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격하고는 감격했기 때문입니다."[13]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궁핍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의 무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도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금식일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금식 헌금을 바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집없는 사람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수준의 관심과 비이기심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14]

합당한 영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금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켜주고, 자기 수양 능력을 강화시켜 주며,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밝혀주며, 유혹에 대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역경의 시기에 대비하여 준비시켜 주며, 하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언된 풍성한 축복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15]

우리가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온 율법과 신지자의 강령"[16]인 큰 계명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룩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지극히 작은 자"[17]에 대해 연민을 가졌던 그분께서 오늘날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18] 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원리에 따르는 풍성한 축복을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 앞에 살다 가신 위대한 사도들과 함께 음성을 높여 간증하고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2:36~40.
2. 교리와 성약 42:29.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Will a Man Rob God?*, 208쪽.
4. *The Teaching of Ezra Taft Benson* (1988), 331~332쪽.
5. *History of the Church*, 7:413.
6. 앨마서 45:1.
7. 앨마서 17:2~3.
8. 모사이야서 4:26.
9. 앨마서 34:28.
10. 에베소서 2:19.
11. 몰몬서 8:37.
12. "금식의 축복", *성도의 벗*, 1982년 12월호, 4쪽.
13. "주님의 길",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7쪽.
14. "교회의 위치",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54쪽.
15. 이사야 58:9, 11.
16. 마태복음 22:40.
17. 마태복음 25:40.
18. 교리와 성약 81:5.

사랑과 간증으로 하나가 되어

존 케이 카먹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간증을 통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 구세주에게 이르는 길은 요셉과 몰몬경입니다."

십칠 년 전, 저는 새로 부름 받은 여섯 명의 칠십인을 대표하여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말씀을 하라는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부름을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모임의 중간 즈음이던 말씀 순서를 기다리면서, 저는 두 분의 훌륭한 사도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었지만 테버내클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쉬튼 장로님께서 저의 그러한 느낌을 알아채시고는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광경이라는 걸 저도 알지만, 저 사람들은 모두 형제님의 친구들입니다." 말씀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섰을 때, 저는 성도들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셜리와 저는 그 후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전세계를 다녔으며 가는 곳마다 그와 똑같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 보답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특별해지고 강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모든 대륙과 바다의 섬들에서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한 하나됨이 바로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1] 분열과 대립이 전세계에 만연하여 있으나,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한 몸"으로 있습니다.[2] 우리의 예언자의 영적인 지시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 사회적 지위, 또는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차려진 잔치에는 그 아름다움을 취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3] 클라이맥스를 향해 연주해 가는 훌륭한 교향악단처럼, 교회도 지금은 조용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면서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러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 수도 없으며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설득하며, "지혜와 사랑과 빛으로" 축복하고 인간의 마음을 "결코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4]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5]

단합을 가져오는 그런 사랑은 우리 개인들의 간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회원들께서는 이 대회에서 간증을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간증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몰몬경이 참되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굳은 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초는 제가 난관과 의심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몰몬경을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여 왔으며 그 때마다 영을 느껴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차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았던 대규모 선교사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스테이트 거리에 있는 솔트레이크 선교부의 본부에서 약 5일간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킨 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형제님이셨는데 그 분은 교회의 뛰어난 지도자이며 영감을 주는 교사였습니다. 그 분은 모여 있던 선교사들에게 몰몬경이 참되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유를 들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나누었던 다양한 이유들을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성신의 증거 이외에도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들, 장소, 동물들, 그리고 사물들을 지칭하는 특이한 이름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러한 특이한 이름들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아라비아 사막의 남부에서 "네이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새겨진 연대는 기원전

700년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마엘은 네이홈이라 불리는 장소에 묻혔습니다. 네이홈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준 이름 중의 하나입니다.

몰몬경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잭 웰치 형제는 대차 대구형 또는 X형 배치를 명확히 형성하고 있는 구절들을 모사이야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그 책이 현대의 저서가 아니라 고대의 저서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책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와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견해를 계속해서 발견해 내고 있으며 또 그것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한 저명한 문학 교수는 몰몬경에 관한 자신의 일생일대에 걸친 연구를 담고 있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은 몰몬경에 있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자세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6] 통계 학자들은 몰몬경이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이 비록 저의 간증에 더해졌지만,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증거인 성신이 주었던 강력한 증거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변하지 않은 채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증거는 또한 여러 번 저에게 되풀이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몰몬경에 인쇄되어 있는 증인들의 간증이 가진 가치와 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마틴 해리스는 금판과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금판을 다른 여덟 사람에게 보여 주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7] 이러한 증인들은 그들의 간증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책에 인쇄되어 있던 그들의 간증에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덟 명의 증인들은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 판들을 보고 또 들어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증인들도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증인들의 선언이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사 옛 세대에서

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한다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8]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책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드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앨마*는 그 책의 주된 메시지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많도다. 보라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보다 더욱 중대한 일이 있으니,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어 주의 백성들에게로 오실 때가 멀지 아니한 일이라."[9] 그렇습니다. 당연히 앨마에게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식보다도 예수의 오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속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은 그 부제가 선언하고 있듯이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입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어 보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로서의 간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화가였던 저의 친할머니가 애리조나 주의 일몰 광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입니다. "존 케이, 누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 질문에 직접 답하시면서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단다. 그래, 정말 그분께서 만드셨어." 할머니께서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지시 아래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히브리서 1:1~2 참조)[10]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손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핵심 교리이지만 보다 더 저에게 위안을 주고 유익이 되는 것은 접근하기 쉽고 개인적인 그분의 자비와 도움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친숙한 찬송가 가사가 예수의 영향력과 성역이 지닌 중요한 면에 관한 저의 느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드나 성하나 어느 때든지

부하나 빈곤에 너 허덕일 때나
집에서나 외국 어느 곳에서나
도움을 구할 때 도와 주시리[11]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듯한 그러한 고통의 순간, 즉 걱정이나 절망을 겪을 때, 오해나 경시 받을 때 구세주께서는 필요한 시간에 그러한 구조와 도움을 제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12]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러한 평안을 얼마나 필요로 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도움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나 제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 왔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간증을 통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 구세주에게 이르는 길은 요셉과 몰몬경입니다.[13]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참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는 "할렐루야,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시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예언자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2:25.
2. "주 예수의 군병들", *찬송가*, 185장.
3. 마태복음 8:11.
4. "인간이 자유 의지로", *찬송가*, 175장.
5. 요한복음 13:35.
6. 리차드 딜워스 러스트, *Feasting on the Word: The Literary Testimony of the Book of Mormon* (1997).
7. 여덟 목격자의 증언, 몰몬경.
8. 교리와 성약 20:11.
9. 앨마서 7:7.
10. 히브리서 1:1~2 참조.
11.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12. 요한복음 16:33.
13. 교리와 성약 5:10.

성전 경험을 승화시킴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단순히 성전에 가는 것과 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전 수가 계속 증가 하면서 더 많은 수의 교회 회원들이 성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교리와 성약 6:12)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성전과 거룩한 의식은 참으로 성스러운 것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성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에 가는 것과 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성전 경험을 고양시킬 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한 경건의 영과 예배의 영을 느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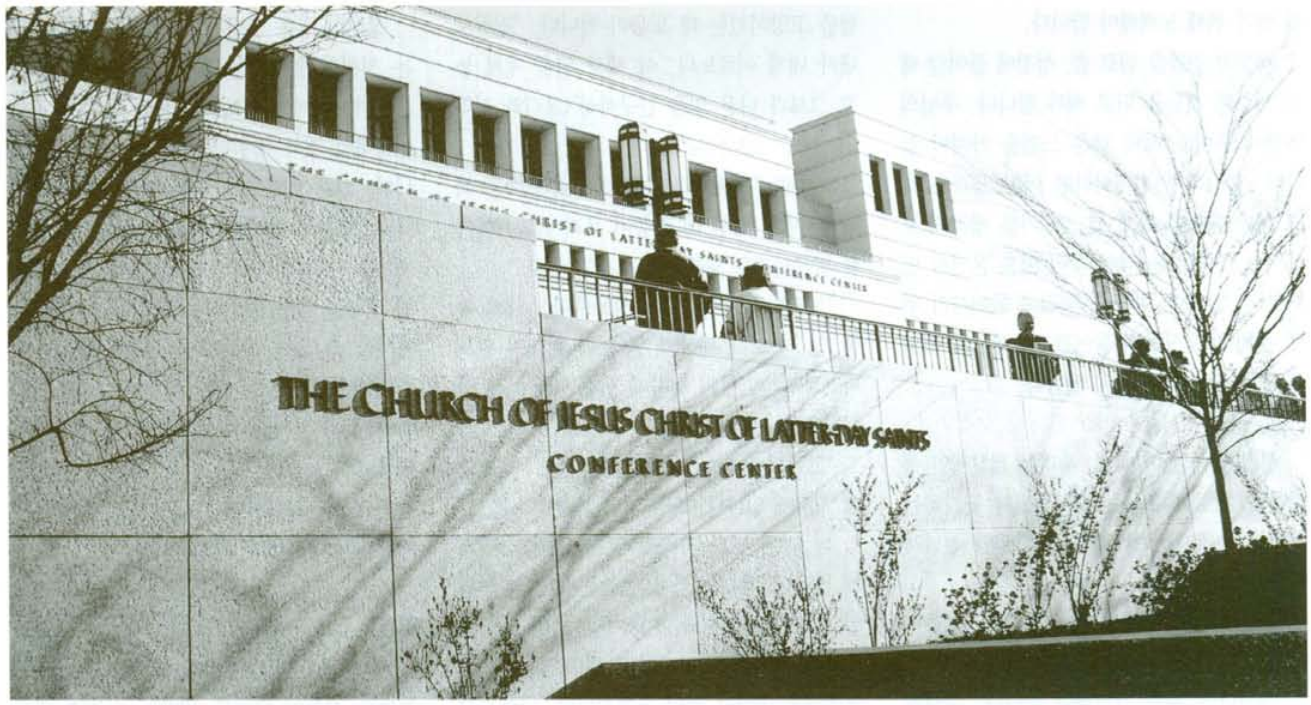
경건의 영

성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내 성소를 [경건히 대]하라"(레위기 19:30 참조)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와 경배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경건이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식 및 성약과 주님의 종들, 주님의 예배당, 주님의 성전을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갖고 있는 내적인 느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집, 즉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초대하신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되고, 준비를 갖추고, 성전을 삶의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경건히 한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고, 영의 속삭임을 잘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영이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노스 템플 가에서 바라본 컨퍼런스 센터 전경

성전에서는 경건한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사소한 것이 아니며 세속적인 일도 아닙니다. 경건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룩한 본질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경건히 하기 위해서는 그 곳이 정결한 장소이며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결한 장소. 성전은 정결한 장소입니다. 성전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 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 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 "(교리와 성약 97:15~16)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준비시켜야 합니다. 앨마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 몸에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앨마서 5:19)

성전에서 경건함으로써 우리는 그 곳을 정결하고 거룩하며 영이 방해 받지 않는 곳으로 만듭니다. 주님께 거스릴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 … 교회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 심지어 복장까지도 준비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그분의 면전에 앉기에 적합하고 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Improvement Era*, 1962년 7월호, 509쪽)

경건은 주님의 면전에 있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이며, 가장 경건하고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고 있고, 진실로 그 곳이 주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영

성전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경건은 지상 최고의 예배 형식입니다. 경건은 해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광의 등급들을 본 시현에서, 이 해의 왕국의 예배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 이같이 해의 영광을 보니, … 그곳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이라.

"그 보좌 앞에 모든 자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더라."(교리와 성약 76:92~93)

성전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면전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전 경험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성전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둘째, 더 많은 빛과 지식

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함.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면전에 들어갈 때와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면전에서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실현될 이 일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으면, 주님의 면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생각

성전 뜰에 들어설 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주어지는 성스러운 책임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에스겔 11:5)

2. 대화

구세주께서는 성전에서의 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한 말을 모두 금하며 모든 웃음 소리, … 교만, 경박한 마음 … [을] 그치라."(교리와 성약 88:121)

우리가 성전 뜰에 들어서면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뒤로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대화도 뒤로 해야 합니다. 직장일이나 오락 또는 시사와 관련된 것들을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성전 내의 어느 곳에서나 항상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른바 성전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내의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되는 곳에서는, 의식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화 외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 장소들은 성스러운 곳이어서 결코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세주께서 주신 사랑에 찬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함으로써 성전 경험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세상 일을 제쳐 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하라"(교리와 성약 25:10)

어쩌면 구세주께서 데이비드 휘트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네 마음은 네 창조주이신 내게 속한 일 … 보다 세상의 일에 더 얽매여 있도다. 또 너는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

"그런고로 너는 홀로 내게 간구 … 해야 할 처지에 있나니"(교리와 성약 30:2~3)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함.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에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고 마땅히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67)

니파이는 우리에게 "정성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예배해야"(니파이이서 25:29)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신의 영은 성전에서 교사가 됩니다. 그는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영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은 빛과 지식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다면, 성전 경험을 하는 동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결론

우리 모두 경건의 영으로 성전을 정결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로 대하는 가운데 성전 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더 많은 빛과 지식을 구함으로써 성전 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왕국 건설

브루스 디 포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의 교회는 그 초기 시절부터,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던 보통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약 25년 전, 저희 가족은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매우 과중했기 때문에 저는 여가 시간을 거의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있는데 와드 초등회 회장님이 오시더니 2주 동안 초등회 임시 교사로 봉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시 초등회는 평일 오후에 모임을 가졌는데, 제 일정상 초등회 반을 가르칠 시간을 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회를 가르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국제 정치학 관련 서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쩐지 초등회 공과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초등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서야 공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나와 교정 끝에 있는 와드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음은 느려졌고, 몇 분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초등회 교실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미 어린이들은 개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가였는데, 그 멜로디와 가사 내용은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나 너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
새 계명 주니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면 너 내제자인 줄
다 이 일로 알게 되리라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노래에 감화되어 문가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동안, 영은 저에게 지금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 편에 있는 대학의 수많은 교실과 연구실에서는 저명한 학자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가치있었다 할지라도, 대학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했고 또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 바로 제 앞에 주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조용히 건설하는 일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초등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획의 한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1831년 10월, 주님은 회복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리와 성약 65: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그 왕국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자의 지혜 안에서,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은 그날 제가 초등회에서 목격한 것 만큼이나 평범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지상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 이야기와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먼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된 선교사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왕국의 건설이 우리 자신의 와드나 지부와는 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외적인 팽창과 내적인 단련 모두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 "(교리와 성약 82:14)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아야 하거나 교회나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 줌으로써 가족 안에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안에 왕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수할 준비를 하면서 들판에서 수고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와드와 지역 사회에서 왕국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이라는 들판에서 수고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초기 시절부터,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던 보통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부름 받

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지런히"(교리와 성약 107:99) 행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현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대의는 한 세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복음 교리*, 111쪽) 여러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가족, 즉 가정이라는 조용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양육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대관장단은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시간을 갖고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하고 자녀들과 함께 건전한 활동 시간을 보내도록 당부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한때 자신들이 배운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진리의 횃불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게 되고 왕국은 더욱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밝은 세상의 등대수"(찬송가, 11장)인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부친께서는 자주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복음 토론 시간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그 시절을 되돌아 보면서, 그때 가족과 가졌던 복음 토론 시간이 제 자신의 간증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 산"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이사야 4:5)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가정에 임재할 때가 오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왕국에는 교회와 가족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1)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진실로 소망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볼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의 증거"(요한계시록 19:10)로 밝아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지고 성결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공부와 명상은 우리의 영혼 속에 왕국을 건설하는 데 절대 필요합니다. 모든 참된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에 대해 조용히 상고하고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다시는 하나님이 취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업의 입안자요, 완결자가 되시며, 교회의 초석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힘과 권세를 통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그 왕국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에 하늘 왕국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다음의 전승가는 회복의 찬가도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소리 널리 울려 퍼지네
심판대에 앉은 주님 우릴 심판하시네
우리 응답 빨리 하며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의 하나님
("전승가", *찬송가*, 22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초점과 우선 순위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현명하게 사용되는 가용 정보가 쓰지 않고 늘리기만 한 많은 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훌륭한 대회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주님의 종들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이 영원한 원리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14~30)에서, 구세주는 이 원리를 재산을 활용하는 것에 관련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책임의 원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통해 얻은 영적 자원이나 현세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할당된 귀중한 시간들과 날들에 적용됩니다.

저는 이 책임의 원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시간과 정보의 사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시간을 절약시켜 주는 현대의 장비들 덕택에 우리 대다수는 선조들보다 훨씬 여가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초기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너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교리와 성약 60:13) 말며 "게으르기를 그치라"(교리와 성약 88:124)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지니 왔다 하는 그 순간 벌써 사라지네 마음 두지 않으면 기회도 가버려 이 생도 빨리 가니 오 마치 하룰세"("촌음을 아껴 쓰고", *찬송가* 147장)

여가는 최신 데이터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저하게 늘어 났습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인터넷이나 콤팩트 디스크 같은 도구들은 정보와 지식과 이미지들의 놀랄 만한 보고를 손 끝 하나로 마음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패스트 푸드 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일 또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자원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다니엘 12:4)는 예언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듯이 보입니다.

크게 늘어난 여가와 이것의 사용에 관한 무수한 대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기본 원리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는 영원한 율법과 원칙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I.

평범한 다음 이야기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다른 언어권이나 문화에서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도로 옆에 작은 가판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하나 구해 농장으로 몰고 가서, 멜론을 하나에 1달러씩 주고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몰고 가판대로 가서, 멜론을 하나에 1달러씩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농장으로 가서 같은 가격에 멜론을 가득 트럭에 실었습니다. 다시 길가로 돌아와 같은 가격에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다시 멜론을 싣기 위해 농장으로 가는 길에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돈이 안돼, 그렇지 않아?" 그러자 다른 동업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돈이 안되네." "좀 더 큰 트럭을 구입해야 할까?"

우리 역시 더 많은 정보를 실을 큰 트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동업자처럼,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초점입니다.

최신 기술로 인해 대규모 도서관들의 장서들이나 다른 자료들을 손끝 하나만 움직여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목적없는 검색을 하며 무수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 속의 두 동업자처럼, 분주하게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끌어 담지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노력에서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말들의 지식은 [가져다 주나] 말씀의 무지를 [몰고 오는] 끝없는 순환"으로 "지혜가 지식 속에 상실되고, 지식은 정보속에 상실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티 에스 엘리어트, "바위에서 울리는 합창", *시와 대본 전집* [뉴욕: 하코트, 브레이스 & 월드], 96쪽)

우리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브라함 링컨

보다 수천 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들보다 우리가 수천 배 더 교양 있고 사람들에게 수천 배 더 봉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독립 선언문과 게티즈버그 연설을 포함하여 이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준 것들의 숭고한 특성은 뛰어난 정보 자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서관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제한된 정보량을 지혜롭게 영감에 따라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되는 가용 정보가 쓰지 않고 늘리기만 한 많은 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이 명백한 교훈을 법대 학생이었을 때 배워야 했습니다.

45년 전 저는 수십만 권의 법전이 있는 법대 도서관을 찾아 갔습니다.(오늘날 그 같은 도서관에는 전자 데이터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한 수백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들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로, 저는 여러 날을 필요한 자료를 찾아 수백 권의 책들을 뒤적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는 조사에 집중한 후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멈추어 찾은 것들을 분석하고 결론을 짓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리포트를 결코 끝낼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숙련된 연구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를 곧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자료들을 통한 정보 과다에 직면한 우리는 초점을 갖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거할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예언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디모데후서 3:7)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를 지식으로, 성숙한 지식을 지혜로 개발하기를 구하는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로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도 또한 초점을 필요로 합니다. 풍부한 정보와 영상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초점을 갖고 통제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사회악인 외설 문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데저렛 뉴스*는 최근 사설에서, "후미진 뒷골목의 상점 판매대에 숨겨져 있던 사진들이 지금은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외설물에 대한 경고", 2001년 2월 21~22일자, 12면) 인터넷은 외설 문학을 힘 하나 안들이고 집이나 방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넷은 또한 그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악한 목적을 위해 어린이들을 스토킹하는 데 사용하는 성인들의 약탈적 행위들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과 청소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월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를 복음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웹사이트는 지난 30년 간의 모든 연차 대회 말씀들과 교회 잡지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든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엄밀하게 맞추어지면 유인물은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인물들은 복음 원리를 간증과 함께 명확하게 가르치려는 우리의 노력에 오히려 폐가 됩니다. 너무 많은 보충 자료는 특정 원리들에 대한 학생들의 초점을 흐리고 사신들의 생활에 석용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원리들을 구하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빈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즐기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바로 그것이 초점입니다. 니파이는 또한 자신이 경전에서 가르쳤듯이,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기르쳐 주는 것[이]"(니파이일서 19:23) 되도록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과거의 훌륭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초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써, 브리감 영 대관장이 140년 전에 청중에게 주었던 충고와 힝클리 대관장과 다른 주님의 종들이 바로 이 순간 이 대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의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또는 오래 전에 우리에게 준 충고가 스테이크장이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서 하신 말씀이나 감독이 지난 일요일에 권고한 말씀과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신이 어제 밤 혹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 무엇을 속삭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현대의 정보 홍수가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차지하여 오늘날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작고 조용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초점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주의가 우리 손 끝에 그토록 풍성한 정보의 부를 가져다 준 신기술의 선택적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저는 브리감 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학과 예술에서의 모든 발견은 그것이 인류에게 참으로 진실되고 유용하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대한 발견들을 활용해야 하며 … 자녀들이 나아와 위대한 대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유용한 모든 분야에서 지식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데저렛 뉴스*, 1862년 10월 22일)

II.

우리는 또한 우선 순위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순위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연차 대회에서 가르쳐진 대부분의 가르침은 우선 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선 순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먼저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우선 순위의 으뜸으로 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분의 자녀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며(모세서 1:39 참조)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출생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봉하는 일들을 수반합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우선 순위에 관한 일부 가르침과 예들을 살펴보면서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했듯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택하든 결과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식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종교적 지식은 우리가 성전에서 받는 것들입니다. 그 지식은 엔다우먼트의 명백하고도 상징적인 가르침과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주어질 수 있는 계시를 구하고 듣고자 갈망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의 속삭임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보물을 땅에]"(마태복음 6:19)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보물, 곧 우리의 우선 순위가 경전에서 일컫는 "세상 재물과 헛된 것들"(앨마서 39:14)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은 재물, 교만, 우월, 권세의 세속 4중주가 펼쳐내는 온갖 연주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경전은 우리에게 "네가 그것을 지닐 수 없음이라"(앨마서 39:14)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경전이 충실한 자에게 약속한 보물인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교리와 성약 89:19)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마태복음 5:6) 자신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는, 영원한 보물을 구하는 사람들의 좋은 모범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모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상적인 일들을 제쳐 두고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선남 선녀들입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젊은 선교사들입니다. 나아가 저는 원숙한 나이에 선교 지도자로나 부부 선교사로 선교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놀라운 봉사는 그들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며, 그들의 인상 깊은 모범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가장 잘 드러납니다.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세가지는 쏜 화살, 이미 한 말, 잃어버린 기회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들은 재생하거나 저축해 둘 수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선택을 위한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으며 그 후 영원히 가버립니다.

훌륭한 선택은 가족 생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어떻게 여가를 함께 보냅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우선 순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저 방에 앉아 같이 텔레비전이나 보는 시간의 효과와 개별적으로든 모두 함께든 가족이 대화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대회 참석자 몇몇이 컨퍼런스 센터 내의 작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한 가족이 스포츠 경기나 토크 쇼나 연속극을 보는 시간에 비교하여 경전 공부나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까? 저는 우리 대다수가 쓸데 없는 연예 프로는 과다 섭취하는 반면에 생명의 떡은 과소 섭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교육이나 직업, 거주지, 결혼, 자녀 출산 등과 같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미칠 *영원한 결과*가 어떠할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바람직해 보이는 어떤 결정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영감에 찬 우선 순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과 가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우선 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는 베냐민 왕의 현명한 조언과 위안을 주는 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웁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야서 4:27)

말일성도의 궁극적인 우선 순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그 분들의 구원의 의식을 받고 개인적인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해야 합니다. 둘째, 성전 의식과 그 거룩한 장소에서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가 굳건해지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 영원한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과학이나 성공, 재물, 교만, 우월, 권세의 어떠한 결합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들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길을 마련했으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다음 대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대회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고, 유혹과 죄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목표를 높이고자 열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영감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연사들의 기도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감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의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제가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요즈음 이 일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도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도 그랬으며 그랜트 대관장님도 말년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맥케이 대관장님, 스펜서 킴볼 대관장님까지도 지팡이를 갖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행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진찰을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모두 영감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어제 아침에 왔을 때보다 좀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반년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 항상 감탄합니다. 우리들은 이틀 동안 26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우 많은 수입니다. 각 연사들에게는 제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씀의 주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각 말씀은 아름답고 웅대하게 짜여진 융단의 실가닥과 같았습니다. 저는, 전세계의 많은 청중들 거의 모두가 한 두 가지 이상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 내가 들어야 했던 말씀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회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즉,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고, 유혹과 죄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목표를 높이고 교회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큰 모임을 갖지만, 매년 6개월마다 갖는 이러한 모임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대회는 실로 세계 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며 크고 작은 나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정수는 낯선 이름을 가진 먼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에게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개종자에게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제가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곳은 현대의 개척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지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대회를 마치면서 복음 대로 생활하고, 더 충실하고 더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되겠다는 강한 결의로 나아갑시다.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고, 회원으로서 절대적으로 교회에 충실하기로 결심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기원과 교리에 있어서 신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멸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계시는 우리의 교리와 신앙과 가르침의 원천이 되며,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계시의 기본적인 요소는 요셉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며,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진리 안에서 신앙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고,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이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청녀 대회
2001년 3월 24일

해의 왕국의 길잡이

새론 지 라슨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니파이처럼 자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과제를 완수하려고 애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것 같은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조차도,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당혹스럽게 하고, 얕잡아 보곤 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하는 어려움은 저마다 다르지만, 도움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니파이의 경험을 살펴봅시다.

그는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배를 지으라는 엄청난 과제를 주시기 전에 그가 배를 본 경험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주님께서 그를 도와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수시로"(니파이일서 18:1) 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니파이는 사람이 배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해 줍니다. 그는 "주님이 일러 주신"(니파이일서 18:2)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나 니파이는 자주 산에 올라가 주께 기도했으며, 주님께서는 내게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셨느니라."(니파이일서 18:3)

니파이처럼 자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사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단념시키려는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니파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녀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이 니파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기 이닌 여러분의 삶을 짓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상 생활을 마쳤을 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이 언젠가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올 준비를 갖추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그분의 지침에 따라 짓도록 요구하십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진로를 바꾸게 하거나, 적어도 발전을 더디게 하려고 그 기회를 노리는 훼방꾼과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니파이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통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휴대폰, 인공 위성 수신기, 컴퓨터, 인터넷이 있기 훨씬 오래 전에, 하나님과의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있는 온갖 종류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힘은 우주 어디에든 미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그분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니파이처럼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 삶을 짓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험난한 인생의 역경을 거쳐 안전하게 집으로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힘을 얻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특수 장비나 경험, 사회적 지위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다음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77~79 참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놀라운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왜 그러한 인도를 거부하려 합니까? 제 어린 딸이 피아노를 연습할 때, 저는 딸에게 레슨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곡을 다섯 번 이상 쳐 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안돼요, 엄마. 다섯 번은 너무 많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몇 번을 해야 할 지 네가 결정하렴." 하고 제가 말하자, 그 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뇨. 엄마가 결정하세요—하지만 다섯 번은 너무 많아요!"

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속삭이는데 그것이 쉽거나 편하거나 인기있는 것이 아닐 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고 싶지만, 좀더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한 나이였을 때 저는 성신이 저에게 다른 것을 말해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에는 10명이 있었기에,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동생 셜리와 저는 한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파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셜리는 그 또래의 친구들과 파티에 갔으며 저는 제 친구들과 갔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셜리는 곧장 집으로 갔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도시에서는 신나는 장소인 대형 곡물 창고와 묘지 주변으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먼저 "나 집에 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깔깔대며 짐짓 멋진 시간을 보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파란 차를 보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나를 찾는 아빠의 차일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마자 정말로 파란 차가 나타났으며 저의 아빠가 도로 한 복판에 서서(당시에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멈추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아빠는 차문쪽으로 와서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론, 아빠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차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그토록 매정하고 냉담할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은 왜 파티가 끝난 것을 엄마와 아빠가 알지 못하도록 집 밖에서 기다려 주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제가 동생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 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 그 당시에는 제가 친구들 앞에서 그처럼 창피를 당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때 일을 돌이켜보니, 사실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사의 무리나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음성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제가 가진 어떤 느낌에 불과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도 미묘하고 너무도 조용해서 쉽게 무시해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기대된 어떤 일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기 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 했을 때에도, 성신은 여전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릇된 일을 행하고도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마치 시험을 볼 때 옳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답을 적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시끄러운 음악이나 라디오, 또는 비디오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영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거나 유혹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입니다."(청녀 사무실 보관 편지) 레이맨과 레뮤엘은 너무도 많은 경우에 듣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니파이일서 17:45) 성스러운 속삭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성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의 영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녀 야영에서 간증 모임을 갖던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경전을 읽거나 기도할 때였을 것입니다. 혹은 이 모임에서 음악을 듣거나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속에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신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이 느껴지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 경험을 활용하여 거듭거듭 영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성신은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통하시는 방법에 대해 배우십시오. 아만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날 세미나리 시간에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들었던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 갑자기 그 뜻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신의 [영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복음의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편지)

때로는 영의 속삭임이 불안한 느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가 나에게 '싫다고 말하고 그곳을 벗어나라' 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캐롤라니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자신의 축복문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편지)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며 위대한 가치를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와 같이 크기 때문에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작은 지부에서 이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부 대회를 위해 한 가정에서 모였는데 청녀 모임은 지하실에서 가졌습니다. 청녀 주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주위에는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깔개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부 청녀 회장, 스테이크 청녀 회장, 본부 청녀 역원과 홀리라는 이름의 한 어린 청녀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성신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주님께서는 수많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듯이 한 명의 소중한 청녀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선 순위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슬픔을 느끼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느낌을 알고 계시며 그 고통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시므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지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만큼 작은 소도시에서 자란 저를 아셨다면, 그분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분께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시골 지부의 한 청녀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는 그 진리를 체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그것이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킴

캐롤 비 토마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영성은 영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런 후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축구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특별히 보통 재능이 아닌, 여러분이 전에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하나의 재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능 보다도 … 모든 자질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영성을 위한 재능입니다." (*The Millennial Messiah* [1982], 234) 영성은 영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고, 그 후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웠던 몇몇 청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생하면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후에 받게 되는 성신의 특별한 은사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신의 힘에 의해 생활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계시 … 그리고 간증의 힘입니다."(Bruce R. McConkie, *Doctrines of the Resto-ration: Sermons and Writings of Bruce R. McConkie*, ed. Mark L. McConkie [1989], 93) 일단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알면, 영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합니까? 영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열네 살이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영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 특별히 성찬식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평화스러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영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그것이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뿐이었습니

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좋은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고, 증거해 주며, 또 저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 해 줄 수도 있으며, 어떤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 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청녀들은 영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소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신에 관해 아무런 경험도 해본적이 없는데 그것은 대부분, 마땅히 가르침 대로 생활하지 못한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성신(이 주는 위로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청녀 사무실 보관 편지)

이러한 느낌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청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성신이 그녀에게 영을 느끼고 싶다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항상 따뜻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의 음성은 매우 조용한 음성으로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구세주께서 신세계를 방문하셨을 때 충실한 니파이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연약한지라 …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할 줄로 내가 아노니, …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니파이삼서 17:2~3)

구세주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약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말입니다. 케이티가 바로 그렇게 행했던 청녀입니다. 여러분께 그 청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의 권고 대로 다섯 달 동안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거의 단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거기 계심을 알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는 당신께서 교회를 통해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여 왔으며 이제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곧바로 누군가가 팔로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랑스러운 케이티,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빠가 어린 딸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편지)

성신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은 케이티에게 복음이 참되다고 증거했습니다. 케이티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집으로 가서, 꼬박 다섯 달 동안이나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케이티는 자신의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재능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면 음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행복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룩 자매가 영성을 위해 재능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덟 살 된 저의 여동생은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할까 봐 무서워 했습니다. 어느날 밤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 왔을 때 저는 동생에게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교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보라고 권유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순간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경전을 펼쳐서 동생에게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신에 관하여 간증한 뒤, 평안을 얻고 싶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뒤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는 이층 침대 위에 열 살 된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생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할 때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영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신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청녀 사무실 보관 편지)

여러분이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부룩 자매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간증을 전했고, 여동생을 위해 기도했으며, 윗 침대에 있던

다른 여동생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그녀 자신의 영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간증을 선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 …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68:8)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청녀 야영에서 간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 야영 모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에게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함께 힝클리 대관장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힝클리 대관장님을 사랑한단다. 오늘날 지상에 살아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하는데는 10초 정도가 걸렸지만, 저의 손주들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는 영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범으로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제가 이 말씀의 원고를 쓰고 있을 때, 저의 딸 질이 집으로 와서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담아온 달콤한 영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딸 아이가 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면서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십시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16) "여러분이 그분과 갖는 매일의 대화는 마음에 평안을, 다른 어떤 근원에서도 올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16)

여러분은 식구들이 기도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일곱 자녀의 어머니로 몹시 분주했을 때, 이이들 중 하나가 "우리, 가족 기도 하는 것을 잊었어요"라고 말해 줄 때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때로 뒷문 옆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은 학교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 가정의 영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화가 있다면, 평안의 영이 깃들이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성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느낌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니파이인들 가운데 계실 때,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며 " …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니파이삼서 17:15, 17)

니파이인 어린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예수께서 … 저들의 혀를 풀어 주신지라, 저들이 …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들"이었습니다.(니파이삼서 26:14)

영의 힘으로 여러분 또한 가족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으며 또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니파이삼서 17:24)

여러분은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간증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위해 사신의 재능을 나눌 때, 따뜻함과 생활을 다스리는 영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옳습니다. 청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세대의 일원"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718) 여러분은 가족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참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 청녀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여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성을 위해 여러분이 재능을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가 간구하는 바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영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보혜사, 안내자, 증언자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
본부 청녀 회장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여러분은 인도를 받아 인생 항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어린이 노래책*, 35쪽)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경전이 말해주듯이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하신 것처럼 여러분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으신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구세주 곁에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에게 사랑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교회 회원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분이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을 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 보혜사는 … 성령[이니라]" (요한복음 14:16, 26)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을 떠난 후에 너무나도 값진 은사인 보혜사를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대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인생의 사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인생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실패하기 위해 이 지상에 보내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는 자리에서 머리 위에 여러 손들이 얹혀지고 "성신을 받으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성령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이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은사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받아 들이고, 자신의 생활에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처럼 고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신은 위로하고, 인도하고, 증거합니다.

첫째, 성신의 위로하는 힘에 주목해 봅시다. 어렸을 때 저는 몹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사가 권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소아마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이 심각해지자,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성결한 기름을 붓고 그들이 합당하게 지니고 있던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병고침과 도움과 인도와 위안을 간구했습니다. 그런 후 부모님은 저를 이웃 마을에 있는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그는 서둘러야 한다며 곧바로 우리를 두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솔트레이크 시티로 보냈습니다. 저는 소아마비가 확실하다고 속삭이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저를 부모님의 품에서 떼어내어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한 마디의 작별 인사도 못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척추액 채취를 포함한 고통스런 진단 절차를 마친 후, 그들은 저를 병원의 "격리 병실"로 데려갔으며,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저는 그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소아마비에 걸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어두웠고 너무 아팠으며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이 침대의 난간 옆에 무릎 꿇고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며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위안의 권세를 보내주셨고 그 힘은 조용한 사랑의 느낌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성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위안이 필요한 한 소중한 청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환경과 부모 사이의 불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형제 자매들에게 매우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장녀로서 가족 내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자문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해결책이란 없으며 마음에 고통을 느끼거나 근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또한 없지만,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이 소녀의 마음에 있는 느낌들을 아시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느낌 또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성령이 가져다 주는 화평의 은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청녀 여러분, 위안과 여러분에게 올 그 은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요지는, 성령이 인도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세 된 한 소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매님도 친구를 바꿔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으며 또한 부모님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그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세미나리 교사와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혹시 저 아이들을 알고 있니?"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저는 그들과 어울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미나리 교사는 자신이 그 애들에게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 애들 중 한명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생회 간부였고, 이렇게 말하긴 싫지만 그 아이는 인기 절정의 아이였습니다. 그 애가 저에게 그날 밤 농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날 밤은 제 생애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평온한 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녀는 저를 다른 두 명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린 곧 친구가 되었지요. 이 사건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떠실 지 모르지만, 저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밖에 보지 못하는 저보다는 모든 것의 결과를 아시는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도록 하고 싶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아주 외롭다고 느낄 때 조차, 일생동안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청녀 사무실에 보관 중인 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

청녀 총회를 위해 지도자 및 어머니와 함께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청녀들

라. 이 성신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모로나이서 8:26)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여러분은 인도를 받아 인생 항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지입니다. 성신은 증언자입니다. 이 성령은 알려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속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 덕택에 우리는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한 뒤,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해줄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속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마음 속에 진리를 증거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도 그 진실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을 포함하여, 예전 사람들의 간증의 메아리까지도 함께 듣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세에서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따르기로 한 용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메아리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Mission Work and the Atonement," *Ensign*, Mar. 2001, 11~12) 모로나이서 10장 5절에서 우리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간증은 성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의 간증을 자주 나누십시오.

성령은 보혜사, 안내자, 증언자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신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은 그분의 영향력과 영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과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권유이며,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기를 희망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녀 한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모두 활동이 저조하거나, 최근 개종했거나, 회원이 아닌 소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청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녀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눈 하늘의 감미로운 축복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축복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청녀들이 위안받고, 인도되고, 더 강한 간증들을 갖게 될 지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교회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 단 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이 초대를 받아 들인다면, 내년에는 두 배가 되는 청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부모님과 지도자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과 거둔 성공에 대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에서 저는 세 번째 요지를 설명하는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권유를 받아 들여 여러분이 쓰게 될 이야기가 저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인간들 가운데 사셨던 날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노래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 앞에서는 가셨지만, 우리의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찬송가 가사로 저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내 두려움 모두 없애고 눈물 씻어 주시는 주 맘의 고통 위로하시며 모든 축복 나눠 주시네." (찬송가 68장) 저는 그분이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은사를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신앙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청녀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네이돌드 자매님과 토마스 자매님 그리고, 라슨 자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홀에 모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다른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 각 지역에 모였습니다. 이십 개국 이상의 언어로 모두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각 회원들의 모국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며 동시에 굉장한 기회입니다. 영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성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적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위대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젊음의 시기에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미래는 찬란히 빛납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신앙과 업적에 관해 말하며, 선과 사랑과 평화를 말하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 곧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잘 조절하면 매우 훌륭한 것이 됩니다. 결실 없고 가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표류시키지 마십시오.

일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의 고등학교 앨범을 한 권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이 오래 된 책을 보다가 싫증이 나면 그걸 저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책장을 넘기면서, 73년 전인 1928년도의 동창생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 생을 살다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더러는 별 목적 없이 살다 가기도 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젊은 시절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 때 젊었고 영리했으며 기운이 넘쳤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름이 지고, 걸음도 느립니다. 그들의 삶은 아직도 의미가 있지만 이전과 같은 활력은 없습니다. 제가 알았던 여자 아이들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과도 같았던 이 젊은 남녀들에 대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겼습니다. 야망도 있었습니다. 지구를 휩쓸고 간 어둡고 무시무시했던 대공황이 닥치기 일 년 전이었습니다. 1928년은 높은 희망과 화려한 꿈의 시절이었습니다.

조용할 때는 모두 몽상가가 되어 소년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산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삶에 대해 꿈꾸었으며, 소녀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여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교회의 청남 청녀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여섯 가지 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행동은 성공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다시 권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훌륭한 것들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성공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이런 태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청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로 그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것들은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앨범에는 어떤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기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매력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은 "재미"라

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 아이들과 밤낮으로 데이트도 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졸업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했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술이 그녀의 인생을 사로 잡았습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술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슬프게도 그녀의 삶은 아무것도 성취한 것 없이 시들어 갔습니다.

같은 앨범에 다른 여자 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별로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빛이 났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자기가 되고 싶은 타입의 여성이 되는 꿈을 꾸었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엮어 갔습니다.

재미를 즐길 줄도 알았지만 언제 그것을 멈추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 어떤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에 점심을 싸왔습니다. 자기가 살던 농장과 비슷한 분위기의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멋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높았고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볼 것이 뭐가 있을까? 또는 그 남자에게 볼 것이 뭐가 있을까? 이들은 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훌륭한 것을 서로에게서 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들은 결혼했습니다. 절약하며 일했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아내는 한동안 계속 일했으며, 그러다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동부에서 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나는 즉시 그녀가 오래 전에 고등학교 때 알게 된 그 소녀였음을 알아보았고 그 때의 그 소년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녀는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고 자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동부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학회에서는 전국에서 온 남편의 동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계속 활동적이었으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존경을 받아 왔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꿈꾸었던 여성이 되었으며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두 소녀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두 글자의 단

사색 중인 젊은 여성. 그 앞의 창문으로 컨퍼런스 센터 남쪽면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어 '재, 미'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인생에는 목적도 없고, 안정도 없었으며, 사회에의 공헌이나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때 이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쪽의 인생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근검 절약을 의미했으며, 계속 생존하기 위해 일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했고, 초라한 음식과 옷,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잡기까지 수 년 동안 살아야 했던 값싼 아파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모지처럼 보이는 땅에서도 나무는 자라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서로 나란히 아름답고 놀랍게 꽃피워 만발한 나무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이웃에 대한 봉사에 관해 말했고, 서로에 대한 비이기적인 태도에 관해 말했으며, 동반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신앙을 말했으며,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의 필요를 들어 주었을 때의 행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과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잘 해야겠다, 조금 더 헌신적이어야 겠다, 목표를 좀더 높여야 겠고, 아내를 더 소중히 사랑해야 겠으며, 아내를 돕고 아끼고 보살펴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진실하며, 매우 간절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타입의 여성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비도덕성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며,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상처를 남깁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학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재미가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진지한 것이고 위험 부담이 크나, 자신을 훈육하고 주님의 힘을 간구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면, 즉 비도덕적인 행위에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님을 먼저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있으며, 과거를 버리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주님께서는 부모님들과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던 악을 뒤로 제쳐 놓으십시오. 희망을 새로이 하여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유일한 길은 악의 덫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경계선에서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42쪽)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때때로 경험해보고 싶고, 강력하며 설득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잠시라도 늦춰서는 안됩니다. 충동에 몸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수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했듯이 유혹에서 도망하십시오.

이 세상에 덕처럼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변색되지 않고 빛이 납니다. 그것은 고귀하며 아름답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의 결실입니다.

청녀 여러분은 남자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결코 덕의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류든지 성적인 행위에 빠져들도록 권유하거나, 격려하거나, 요구하는 남자는 함께 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이 파괴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를 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단련시키면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결혼을 할 것이며 결혼 생활은 이전의 제약 조건에 비할 때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 가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교리와 성약 121:45) 이 말씀은 근면과 단련을 통하여 준수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덕으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

"성신은—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효과적이 되도록 자신을 교육시키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직업에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소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만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생활비를 벌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 사항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주님께 지시를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결심을 세우고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모든 영역이 이제 여성에게 열려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여성상에, 사회에 봉사하고 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새겨 넣으십시오.

저는 일전에 간단한 치료를 받고자 몇 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 명랑한 전문 간호사와 곧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면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방면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가 세 명 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만큼 많이, 또는 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의 아무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합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종류의 자매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의 불친절한 행동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특히, 남자 아이들이 여러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으십시오. 빛나는 눈으로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앞으로 나아가되, 위대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십시오. 인생을 사랑하고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끝까지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지상에 왔으되 신성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하라고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라고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상에서의 은사를 부여해 주셔서 능동적이며, 놀랍고, 목적있는 경험을 하여 영생으로 인도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장과 경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격려하기 위해, 영원한 결혼으로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성약을 굳게 하여, 그분이 사랑으로 살피고 돕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선택된 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곧 그분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훌륭한 딸들인 바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 …
세상 권위 네 앞 길을 막으나 낙심 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
날까지 주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복을 세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추구해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대신한 저의 약속이며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2001년 3월 31일~4월 1일에 개최된 제171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한 교회의 어린이를 위한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훌륭한 백성이 됩시다. 친절한 백성이 됩시다. 이웃 같은 백성이 됩시다. 진정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됩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친구는 공로를 인정 받는 일보다는 사람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는 걱정하고 사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손을 내밉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의 첫번째 출생은 육신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자에 의해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며, 확인 의식을 받아 "불과 성령으로 죄 사함을"(니파이이서 31:17) 받음으로써 완성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도움이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 또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참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권고를 경청한다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힘찬 기도와 함께 하는 금식은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의 계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때에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물론 사랑이 많고 행복한 말일성도의 생활의 모범보다 더욱 강력한 선교사 메시지는 없습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면 어떤 불의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양에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학교

닐 엘 앤더슨 장로
제1보좌

말린 케이 젠슨 장로
회장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2보좌

청남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제1보좌

로버트 케이 갤린바츠 장로
회장

존 엠 매드슨 장로
제2보좌

상호부조회

버지니아 유 젠슨 자매
제1보좌

매리 앨런 스무트 자매
회장

세리 엘 듀 자매
제2보좌

청녀

캐롤 비 토마스 자매
제1보좌

마거렛 디 네이돌드 자매
회장

새론 지 라슨 자매
제2보좌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자매
제2보좌

2001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에 갖는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를 지정하고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1년을 위한 주제와 지정된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 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들 가운데서 정원회나 그룹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사들이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의나 발표 시간이 아니라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그룹 회원들에게 토론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그룹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언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1. 우리 가족의 개심에 미치는 경전의 역할

신명기 11:18~19; 디모데후서 3:14~17; 니파이이서 25:21~23; 모사이야서 1:3~7.

보이드 케이 패커,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14~23쪽.

헨리 비 아이어링,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5~88쪽.

댈린 에이치 옥스, "영을 양육함", *리아호나*, 2001년 8월호에 실릴 예정임.

"가정에서 복음을 배움",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234쪽.

2. 우리 조상들의 생애에서의 경전의 중요성

신명기 31:10~13; 요한복음 5:39;

2002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02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관한 주제와 참고 자료들은 2001년 7월에 교회 웹 사이트(www.lds.org)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올려지게 된다.

니파이일서 3:1~4, 19~20; 모사이야서 1:2~7.

제임즈 이 파우스트, "씨와 땅에 관하여",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4~57쪽.

엘 톰 페리,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6~9쪽.

"경전", *복음 원리*, 제10장, 52~56쪽.

3. 총관리 역원들을 따르라

마태복음 7:15~23; 교리와 성약 21:1~6; 43:1~7; 124:45~46.

엠 러셀 밸라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3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예언자들을 지지함",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5쪽.

"총관리 역원을 따르라",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정*, 제13과, 103쪽.

4. 폭풍우를 피하는 우리의 피난처

이사야 41:10; 앨마서 36:3, 27; 교리와 성약 58:2~4; 121:1~8; 122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소망, 영혼의 닻",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0쪽.

조셉 비 워스린, "안전한 항구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1쪽.

"시험과 역경과 고통",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정*, 제15과, 121쪽.

5. 성신의 인도를 구함

요한복음 14:16~17, 26; 니파이이서 32:2~5; 모로나이서 10:5~7; 교리와 성약 8:2~3.

보이드 케이 패커, "불의 갈라진 혀",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쪽.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4쪽.

리차드 지 스코트,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5쪽.

"성신의 은사",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제30과, 214쪽.

6. 참된 제자들은 복음을 나눔

마태복음 5:16; 교리와 성약 4편; 18:14~16; 88:81.

고든 비 힝클리,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8쪽.

엠 러셀 밸라드,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37쪽.

헨리 비 아이어링, "경고의 음성",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5쪽.

"선교 사업", *복음 원리*, 제33장, 211쪽.

7. 청소년을 강화함

디모데전서 4:12; 앨마서 37:35; 38:2; 41:10; 신앙개조 제13조.

고든 비 힝클리, 2000년 11월 12일, 노변의 모임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고든 비 힝클리, "어머니의 최대의 도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고든 비 힝클리, "너희 자녀들이 큰 평안을 얻으리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4285 320)

"도덕과 순결",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제34과, 240쪽; "순수한 생각",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정*, 제9과, 71쪽.

8. 주님 앞에 청결하게 됨

이사야 1:18; 모사이야서 4:10~12; 교리와 성약 19:16~20; 58:42~43.

토마스 에스 몬슨, "영원한 항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6쪽.

헨리 비 아이어링, "미루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8쪽.

"회개", *복음 원리*, 제19장, 122쪽

9. 여성의 존엄성

잠언 31:10~31; 에베소서 5:25~28; 야곱서 2:28~35.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0쪽

리차드 지 스코트, "여성의 존엄성",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3쪽.

러셀 엠 넬슨,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5쪽.

"말일성도 여성상",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제14과, 96쪽.

10. 감사

시편 100편; 누가복음 17:11~19; 모사이야서 2:19~22; 교리와 성약 78:19.

고든 비 힝클리,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4쪽.

토마스 에스 몬슨, "감사하는 태도",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2쪽.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정*, 제35과, 293쪽. □

참고 지도서

2001년에 사용함
***아론 신권 교재 2*, 제 26~50과**

다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교재 2*에 있는 공과들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고 자료들은 교재의 공과들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과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고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제26과: 합당한 생각

고든 비 힝클리,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14~15쪽.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6쪽.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벗*, 1997년 9월호, 28~32쪽.

주: 이 공과에 언급되어 있는 필름스트립,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제27과: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

보이드 케이 패커,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성도의 벗*, 1997년 6월호, 8~14쪽.

엘 톰 페리,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6~38쪽.

졸트 솔트라, "어느 쪽이 무거운 짐인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9쪽.

제28과: 안식일

얼 시 팅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48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기회의 시대",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12쪽.

디 켈리 옥든, "안식일을 기억하라", *성도의 벗*, 1998년 5월호, 16~23쪽.

"어서 오라 주일 아침", *찬송가*, 150장.

제29과: 인생의 목적

조셉 비 워스린, "준비하는 시간",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14~17쪽.

키스 비 맥멀린, "귀향을 환영하노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3~95쪽.

듀앤 비 제라드, "구원의 계획: 인생의 비행 계획",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77~78쪽.

"촌음을 아껴 쓰고", *찬송가*, 147장.

제30과: 사랑

제임즈 이 파우스트, "사랑의 모범",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2~5쪽.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작은 일에서",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2~34쪽.

"사랑의 끈으로 둘러쌈",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25쪽.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제31과: 용서

오로라 로자스 데 알바레스, "용서를 통해 하나가 됨",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44~46쪽.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성도의 벗*, 1998년 9월호, 7쪽.

로더릭 제이 린튼, "용서하는 마음", *성도의 벗*, 1998년 6월호, 28~33쪽.

제32과: 성령의 은사를 발전시킴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벗*, 1997년(1월호와 7월호 제외)

제33과: 너희는 학문을 구할지어다

고든 비 힝클리,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2~7쪽.

고든 비 힝클리,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성도의 벗*, 1997년 11월호, 16~24쪽.

대린 리스고우, "배움의 보상",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48쪽.

제34과: 모범의 힘

헨리 비 아이어링, "경고의 음성",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2~35쪽.

리차드 엠 롬니, "더 높이 날아 오름",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10~17쪽.

리사 엠 그로버, "자신의 두 발로", *성도의 벗*, 1998년 3월호, 34~39쪽.

"선한 영향 주는 삶", *찬송가*, 173장.

제35과: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

엠 러셀 밸라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7~40쪽.

엘 톰 페리,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3~75쪽.

마우로 프로페르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32~33쪽.

제36과: 범사에 감사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감사하는 마음",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F5쪽.

고든 테일러 와츠, "감사하는 마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3~84쪽.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25쪽.

"아름다운 세상", *찬송가*, 45장.

제37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함

고든 비 힝클리,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성도의 벗*, 1997년 3월호, 16~17쪽.

제프리 알 홀런드,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35~37쪽.

버지니아 유 젠슨,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4~117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제38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생활함

엠 러셀 밸라드,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3~76쪽.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38~41쪽.

잭 에이치 고슬린드, "부름에 응함",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10~15쪽.

"쇠막대", *찬송가*, 170장.

제39과: 도덕적 용기

고든 비 힝클리, "영감에 찬 생각",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2~7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정직: 도덕적 나침반",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1~44쪽.

본 제이 페더스토운, "항상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5~18쪽.

제40과: 유혹을 피하고 극복함

고든 비 힝클리, "양들의 침묵",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60~67쪽.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0~29쪽.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벗*, 1997년 9월호, 28~32쪽.

"누가 주의 편이냐?", *구 찬송가*, 51장.

제41과: 성찬: 주님을 기억함

댈린 에이치 옥스,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43~46쪽.

"제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2~24쪽.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39쪽.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제42과: 형제를 따름

보이드 케이 패커, "감독과 그의 보좌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4~26쪽.

헨리 비 아이어링,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4~26쪽.

버지니아 유 젠슨,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2~14쪽.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제43과: 선교 사업을 위한 영적인 준비

댈린 에이치 옥스,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4~98쪽.

에프 오니에부에즈 메리브, "미리 결정을 내린 젊은이들",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10~13쪽.

브라이언 루이스, "초등회 목적",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46~47쪽.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제44과: 성전 결혼을 위해 준비함

고든 비 힝클리,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49~51쪽.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9~31쪽.

"해의 왕국의 결혼",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5쪽.

제45과: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토마스 에스 몬슨, "가정 복음 교육—하나의 성역",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6~48쪽.

러셀 엠 넬슨, "목자, 양,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42~48쪽.

켈린 릭스 애덤스,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성도의 벗*, 1998년 9월호, 34~45쪽.

제46과: 언론 매체의 나쁜 영향을 피함

엠 러셀 밸라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1~104쪽.

해롤드 옥스,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성도의 벗*, 1998년 5월호, 24쪽.

리사 엠 그로버, "훌륭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 *성도의 벗*, 1997년 5월호, 32~33쪽.

제47과: 깨끗하고 고운 말

고든 비 힝클리,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49~51쪽.

로버트 에스 우드, "천사의 방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1~102쪽.

"어떻게 하면 욕설이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97년 2월호, 25~27쪽.

제48과: 의로운 표준을 유지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미래의 개척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2~45쪽.

엠 러셀 밸라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7~40쪽.

제임즈 이 패러모어,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1~43쪽.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제49과: 정직과 고결성

셀던 에프 차일드, "보증 수표",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9~30쪽.

로버트 제이 매튜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14~21쪽.

리차드 디 드레이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6~31쪽.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제50과: 장애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함

엘리자베스 퀴컨부시, "그 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였다",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36~37쪽.

바트 엘 앤더슨, "예기치 못한 침례", *성도의 벗*, 1997년 10월호, 6~7쪽.

로젤린 셀리스, "맹인으로부터 배운 교훈", *성도의 벗*, 1997년 10월호, 38~39쪽. □

참고 지도서

2001년에 사용함
***청녀 교재 2*, 제25~49과**

다음 참고 자료들은 *청녀 교재 2*에 있는 공과들을 보충하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고 자료들은 교재의 공과들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과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고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제25과: 희생의 율법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로버트 엘 백맨,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성도의 벗*, 1997년 2월호, 14~21쪽.

마빈 케이 가드너,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36~41쪽.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제26과: 성찬식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66~68쪽.

"제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2~24쪽.

멜리사 랜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8~9쪽.

제27과: 순종을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6쪽.

케네스 존슨,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11~15쪽.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44~48쪽.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제28과: 자유의지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권세",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9~81쪽.

조셉 비 워스린,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46~48쪽.

새론 지 라슨, "축복이자 짐인 자유의지",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14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제29과: 승영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17~20쪽.

리차드 지 스코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3~55쪽.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0~31쪽.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제30과: 봉사를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로버트 제이 훼튼, "참된 추종자",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4~36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75~77쪽.

지니 머켈리스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26~31쪽.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제31과: 국가의 법률

엠 러셀 밸라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7~40쪽.

엘 톰 페리,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3~75쪽.

마우로 프로페르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32~33쪽.

제32과: 생명의 중요성

러셀 엠 넬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5~87쪽.

아더 알 배시트, "살인하지 말찌니라", *성도의 벗*, 1998년 9월호, 18~23쪽.

패트리샤 피 피네가,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13~14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제33과: 성스러운 출산의 능력

"순결과 정절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26~29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5~78쪽.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벗*, 1997년 9월호, 28~32쪽.

제34과: 도덕적인 합당성에 관한 주님의 표준을 굳게 지킴
고든 비 힝클리, "영감에 찬 생각",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2~7쪽.
엘 알든 포터,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30~34쪽.
새넌 디 젠슨,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8~9쪽.
"쇠막대", *찬송가*, 170장.

제35과: 현명한 선택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권세",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8~70쪽.
조셉 비 워스린, "준비하는 시간",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14~17쪽.
닐 에이 앤더슨, "예언자들의 영적인 땅강아지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8~20쪽.

제36과: 정직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1~44쪽.
셀던 에프 차일드, "보증 수표",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9~30쪽.
로버트 제이 매튜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14~21쪽.

제37과: 올바른 생활을 통해 순결을 지킴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9~92쪽.
바넷사 무디, "순결의 축복",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6~27쪽.
테런스 디 올슨,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30~39쪽.

제38과: 신체의 건강
러셀 엠 넬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5~87쪽.
엘 톰 페리,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6~38쪽.
졸트 솔트라, "어느 쪽이 무거운 짐인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9쪽.

제39과: 질병의 예방
로라딘 린지, "자립", *성도의 벗*, 1997년 10월호, 22~24쪽.

제40과: 자기 절제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6~29쪽.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0~31쪽.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함",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25쪽.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85장.

제41과: 낙천적인 태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소망, 영혼의 닻",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0~73쪽.
조 제이 크리스턴슨, "미소 지어야 할 이유", *성도의 벗*, 1998년 9월호, 28~31쪽.
세인 알 바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43쪽.
"마음에 햇빛 있으면", *찬송가*, 159장.

제42과: 감사하는 마음
토마스 에스 몬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7~20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감사하는 마음",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F5쪽.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25쪽.
"아름다운 세상", *찬송가*, 45장.

제43과: 여가 선용
고든 비 힝클리,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7쪽.
조셉 비 워스린, "준비하는 시간",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14~17쪽.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96년 2월호, 25~27쪽.

제44과: 재능을 발전시킴
마리사 디 톰슨과 재나 닐슨,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0~41쪽.
앤 빌링즈, "달려도 피곤하지 않음",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20~23쪽.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주님께 바치는 기도", *성도의 벗*, 1998년 3월호, 28~29쪽.

제45과: 예술 활동 참여
진 피 로울러, "우리의 태버내클 합창단", *성도의 벗*, 1998년 12월호, 36~37쪽.
베스 데일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진념하여 구하면서",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48쪽.
태머러 레덤 베일리와 크리스티 질스, "음악의 힘", *성도의 벗*, 1996년 3월호, 40~41쪽.

제46과: 재정적 책임
로날드 이 포울맨, "십일조: 특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8~79쪽.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 *리아호나*, 1998년 12월호, 25쪽.
디어도어 지 발만,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성도의 벗*, 1998년 12월호, 26~27쪽.

제47과: 환경을 향상시킴
잭 에이치 고슬린드, "부름에 응함",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10~15쪽.
애나 베이트먼, "다 좋은데 … 그 한 부분만 제외하면",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22~24쪽.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의 벗*, 1998년 8월호, 26~29쪽.

제48과: 지도자의 의사 전달 기술
브래드 윌콕스,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움",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42~47쪽.
머리사 디 톰슨, "친구가 됨",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48쪽.
재닛 토마스, "목적이 있는 즐거움",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18~22쪽.

제49과: 장애인을 존중하고 격려함
조 제이 크리스턴슨,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9~41쪽.
린다 에이 피터슨, "나만의 영웅",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4~35쪽.
엘리자베스 퀴컨부시,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였다",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36~37쪽. □

새로운 총관리 역원

엘 위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새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은 엘 위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유타 대학교를 다닐 당시 전임 선교 사업을 하는 문제로 숙고하던 중에 같은 대학의 귀환 선교사들이 보여준 모범을 보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몇 마디 말을 해주기는 했어도 대체로 그리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표현 방식이고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모든 청년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선교 사업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1970년에 페루의 안데스 선교부에 부름 받아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다른 기회들을 위한 강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선교부 순회를 하는 동안 그의 간증이 강화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클레이튼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리마에서 가진 선교사 모임에서 패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바로 복음의 참됨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장로는 1950년 2월 24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엘 위트니 클레이튼 이세와 엘리자베스 티 클레이튼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위티어에서 성장하였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대학교에서 법학 관련 학위를 받았다. 몇 곳의 법률 회사에서 근무한 뒤, 그는 동업자 한 명과 함께 1981년 5월에 뉴포트 비치에 자신의 법률 회사를 개업했다.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1973년 8월 3일에 캐시 앤 킵과 결혼하여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었다.

클레이튼 장로의 이전 부름에는 스테이크 선교부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지부장,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선교부장 보좌, 지역 대표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부름이 포함된다.

클레이튼 장로는 새로운 부름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 삶의 중심에는 바로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저는 최선을 다해 의를 행하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하며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돕고자 하는 엄청난 동기 부여를 갖게 됩니다."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항상 구세주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스무 살 때 어머니께서 선교사들을 집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었고 침례 받았습니다."라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은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장로는 말한다.

골든 장로는 1952년 6월 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크리스토펠 골든과 마리아 오오스투이젠 골든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청년 시절인 1971년에 9개월간 군복무를 했다. 그는 사우스 아프리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1986년에 학위를 받은 뒤 1990년에 석사 과정으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여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친 뒤 후에 부인이 된 다이앤 노마 헐버트 자매를 만났다. 당시 그녀는 검안사 전문 학교를 졸업한 뒤였다. 그는 헐버트 자매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대학을 졸업했다. 그들은 1981년 12월 12일에 결혼하여 현재 11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 네 명을 두고 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주님 안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예언자와 십이사도를 기쁜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업가로 성공한 골든 장로는 은행 및 제약업계에서 종사했다. 그는 후에 승진하여 파리로 전근 갈 기회를 얻었지만, 그보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후에 광학 용품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6월에 교회 교육 기구의 지역 대표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곳의 많은 젊은이들의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문화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청남 회장, 와드 선교 책임자, 감독 및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한 바 있는 골든 장로는 6년 동안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도 봉사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름은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골든 장로는 말한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몰몬경은 제가 대화할 때 주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정말로 몰몬경을 좋아합니다."라고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말한다.

그는 1952년 11월 18일에 출생하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성장했다. 열두 살이 던 어느날, 그는 버스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두 명의 선교사를 처음 만났다. 그때 선교사들이 "영어 할 줄 알아요?" 하고 물었다고 한다.

이 첫번째 만남을 통해 월터는 몰몬경 한 권을 선물로 받는다. 6년 후에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 경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니파이일서의 처음 몇 페이지만 읽었는데도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루과이의 데 라 레푸블리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아르헨티나의 데 라 프라테르니다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Institutio CEMLAD에서 경영학으로 전문가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뒤 블루밍튼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원격 학사 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침례 받은 지 1년 후에 지구 청소년 대회에서 현재의 부인인 줄마를 만났다. 그들은 1975년 2월 28일에 우루과이에서 결혼했으며 1979년에 워싱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슬하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 자신이 젊어지는 걸 느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곤잘레스 장로는 1975년부터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해오고 잇다. 그는 교사 및 행정 담당자로서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가기도 했다.

곤잘레스 장로는 침례 받은 이후로 주님으로부터 봉사와 관련한 많은 책임과 기회를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한다. 그가 30년 전에 처음 받은 부름은 상호 향상회 책임자 보조였다. 그는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장, 지구 대표 및 지역 공보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에콰도르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을 당시 그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저는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라고 곤잘레스 장로는 말한다. 다른 활동들과 관련하여 그는 웃음 지으며 이렇게 덧붙인다.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티븐 이 스노우와 부인인 필리스 스콰이어 스노우는 여름이 무척 분주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마나 분주할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부부는 금년 6월로 결혼 30주년을 맞게 되지만, 네 자녀 가운데 세 명이 5월, 7월, 8월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 행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스노우 형제가 대회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으면서 모든 게 정말로 분주해지게 되었다. "봉사 부름은 항상 편할 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항상 특권이죠. 주님께 전임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마음 설렙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말한다.

스노우 장로는 1949년 11월 23일에 그레그 이 스노우와 바이더 진 고츠 스노우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생애의 많은 부분을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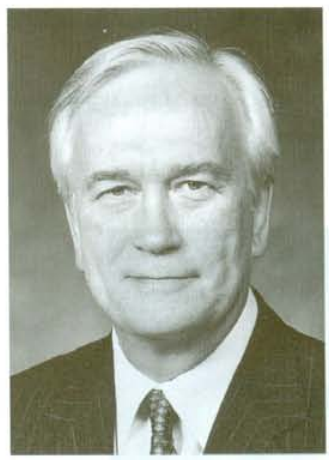
컨퍼런스 센터 광장층 문 밖에 모여 있는 회원들

사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장,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선교부 선교부상, 유타 남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그는 젊었을 때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선교 사업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스노우 장로는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워 왔다.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 특히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말한다.

그는 유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자라는 동안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깊이 갖게 되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 가구점을 운영하셨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면 저는 조부께서 그 분들을 어떻게 맞으시는가를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조부께서는 그 일을 너무도 즐기셨기 때문에, 조모께서는 저에게 조부께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늘 상기시켜 주시곤 했습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말한다.

스노우 장로 부부는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결혼하여 가까운 유타 주 워싱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스노우 너퍼 법률 회사의 선임 대표이며 워싱턴 카운티의 카운티 부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고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직책을 추구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봉사 기회에 대해서든 그대로 적용됩니다."라고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는 말한다.

교회 봉사에 대한 힐비그 장로의 그러한 느낌은 어린 시절부터 커왔다. 그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1942년 3월 13일에 칼 힐비그와 마일드레드 힐비그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님과 다른 회원들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보여준 모범은 그가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일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힐비그 장로는 독일 중앙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뒤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듀크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송 검사로 일하다가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그 후인 1998년 4월에 교회의 국제 법률 고문이 되었다. 그 분야와 관련하여 그는 현재 서유럽과 중부 유럽 지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1967년 6월 1일에 솔트레이크성전에서 수잔 라에 로기 자매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여섯 명의 자녀와 여덟 명의 손자녀가 있다. 힐비그 장로는 자신의 아내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아내는 복음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면에서 제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줍니다. 저는 아내를 보면서 배웁니다."

힐비그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 1995년부터 지역 대표로, 1997년부터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아 봉사해 왔다. 그는 또한 복음 교리반 교사,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스테이크장, 스위스 쮜리히 선교부 선교부장으로도 봉사했다.

"저는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회복과 영을 통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 놀라고 앞을 바라보며 숙고해 보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놀랍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시대입니다."라고 힐비그 장로는 말한다.

로버트 에프 오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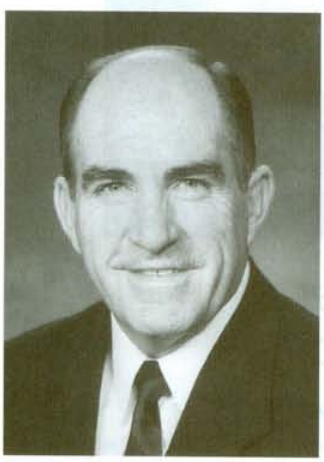
"살아오면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솔트레이크시티의 로버트 에프 오튼 장로는 말한다. 그러한 간증은 오랜 세월 동안의 경전 공부를 통해 강화되었는데, 주로 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 경전 공부를 해왔다. "저는 눈을 뜨면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인 공부를 한 것이 새로운 칠십인 제이 정원회 부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

오튼 장로는 1936년 8월 24일에 에프 프랭크 오튼과 그웬 릭스 오튼 사이에서 태어나 유타 주 팬귀치에서 성장했다. 그의 부모가 성전에서 결혼했지만, 머지 않아 그의 부친은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 어린 로버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친은 교회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하고 애원한 끝에 드디어 부친이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항상 훌륭한 아버지이시긴 했지만, 부친과 나머지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관계 때문에 부친은 집에서 더욱 온화하고 부드럽게 되셨습니다."라고 오튼 장로는 말한다.

오튼 장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또 한분 계시는데, 바로 그의 조모인 마일드레드 리그스 자매이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부터 오튼 장로의 가족과 살았다. 그녀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자기 절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경전을 읽는 습관, 60대 말에 시작한 선교 사업 등의 여러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선교 사업을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할머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이 어떤 분이셨던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그스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라고 오튼 장로는 말한다. 그러고 나서 오튼 장로는 프랑스 선교부에서 봉사하였으며, 그 선교 사업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오튼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3년 6월 13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조이 댈버그 자매와 결혼하여 현재 여섯 자녀와 아홉 손자녀를 두고 있다.

오튼 장로가 그 동안 수행한 많은 부름 중에는 감독, 스테이크장단 보좌, 선교부장 등의 부름도 포함되어 있다.



웨인 에스 피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웨인 에스 피터슨은 악기인 코넷을 통해서 생애 최초의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는 유타 주 로이에서 십대 시절을 보내면서 이 악기 연주법을 배웠다. 그는 유타 주 옥든 소년 합창단 및 트럼펫 합주단의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뉴저지 주의 애틀랜틱 시티에서 개최된 키와니스 국제 컨벤션에서 공연한 적도 있다. 동부로 여행하던 중에 이 소년들은 성스러운 숲과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구모라 언덕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회고한다. "제 생애에서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영, 다시 말해 과거에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피터슨 장로는 어떤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었다. 그는 호주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감독과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각각 두 차례 봉사했으며, 스테이크장,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장 및 지역 대표로도 봉사했다. 1995년부터 유타 북 지역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다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았다. 피터슨 장로는 1939년 10월 6일에 로이에서 룰런 피터슨과 나오미 스킨 피터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많은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기도 했지만, 그와 39세의 부인, 조안 젠슨 피터슨에게 풍성하고 값진 경험이라고 한다면 여섯 자녀를 키운 일일 것이다. 유타 주 로간 성전에서 결혼한 지 1년 후에 첫째 자녀인 린다가 척추 피열이라는 질환을 안고 태어났다. 이 경험을 통해 이들 부부는 급속도로 성숙해졌다. 이 딸의 생애에서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 부부의 신앙은 계속 커져갔다. 현재 린다는 선교 사업을 한 뒤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사로 봉사했고,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전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피터슨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일하고 있다.

알 콘래드 슐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알콘랜드 슐츠 장로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즐겨 했었다. 그 때문에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레곤 고등 학교 대표팀에서 탈퇴했을 때는 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당시 저는 왜 그만둬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학교 대표팀에서 나온 다음날, 한 친구가 그의 와드 팀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당시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콘래드는 그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덕분에 그의 팀은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전체 농구 대회에까지 참가할 수 있었다. 그의 팀은 그 대회에서 우수 팀의 하나로 뽑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주연사로 말씀하는 축하연에 갈 수 있었다.

"시합을 끝내고 돌아온 뒤 저는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슐츠 장로는 말한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고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한 간증을 얻었다. 그런 직후인 1956년에 침례 받았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8년 6월에, 그는 멕시코만 연안 주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슐츠 장로는 1938년 3월 11일에 오레곤 주 노스 벤드에서 랠프 콘랜드 슐츠와 도로시 부용 슐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고향 주에서 살았으며,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오레곤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가로 일해왔다. 1961년 6월에 캐롤린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그는 현재 슬하에 다섯 명의 자녀와 여덟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야영, 낚시, 스포츠 행사 참가를 좋아한다. "가족의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슐츠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 감독, 스테이크장, 콜로라도 덴버 선교부장을 역임했다. "선교 사업은 제 마음의 시금석입니다. 제게는 그 선교 사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선교 사업을 통해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리고 슐츠 장로는 말한다.

로버트 알 스토이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로버트 알 스토이어 장로는 그가 아홉 살에 교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사려 깊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웃 친구들의 모범을 통해 초등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그는 당시 80대였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 "그분은 가정 복음 교육이란 밖으로 나가 미망인의 현관과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계셨습니다."라고 스토이어 장로는 말한다. 로버트는 열네 살 때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1943년 12월 6일에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훌다 한넬 스토이어와 프리츳 스토이어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는 어린 시절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와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보냈다. 그는 미네소타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중서부로 이사하였으며, 그곳에서 학사 학위와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업을 마친 뒤 의사로 일했으며 계속해서 의료 연구에 몰두한 끝에 진단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의료 진단 전문 회사인 헤마메트릭스의 설립자 겸 회장이 되었다.

의료 분야에서의 경험에 비쳐 볼 때 "종무 문제뿐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서도 영을 통해 영감을 받는다"고 스토이어 장로는 말한다. 그는 의료 연구 분야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스토이어 장로와 유타 주 옥든 출신의 부인 마가렛 블랙 스토이어 자매는 1971년 6월 21일에 유타 로간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유타 주 플레즌트 뷰에서 살고 있으며, 다섯 자녀와 다섯 손자녀를 두고 있다. 그의 부인과 가족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스토이어 장로는 말한다.

그의 교회 부름에는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장,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장 부름이 포함되어 있다.

스토이어 장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고요한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자주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그는 회원들에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처럼 고요한 순간들을 가져보라"고 권유한다.

에이치 로스 워크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에이치 로스 워크맨 장로는 열아홉 살에 약혼하였기 때문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차에 앉아 있는데 스테이크장이 다가 오더니 "형제님을 선교사로 부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깜짝 놀랐지만, 성신의 강한 영향력을 느낀 청년 로스는 "예."라고 대답했다. 고등학교때부터 데이트 해왔으며 졸업식 날 약혼까지 한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울면서도 기꺼이 그를 지지하며 결혼식을 미루겠다고 동의해 주었다. 그 날의 선교 사업 결심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다.

그는 1940년 12월 31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할리 워크맨과 루실리 램시 워크맨의 아들로 태어났다. 남부 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그는 고등학교 기간 내내 사귀어온 캐서린 에블린 마이어스와 함께 유타 주 로간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현재 네 자녀와 일곱 손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화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뒤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28년 이상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부름을 받아 일해왔으며 몇 차례 감독단에서 봉사했고,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감독으로도 봉사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워크맨 장로는 학생 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받았던 지도자 훈련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했다"고 말한다. 그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가장 큰 경험 가운데 하나를 했다고 전한다. 그는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면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경험했는데, 무엇보다도 키리바티의 크리스마스 제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신앙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교회 조직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지부가 114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토록 주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워크맨 장로는 말한다. □

컨퍼런스 센터와 템플 스퀘어 사이의 노스 템플 가를 건너고 있는 대회 참석자들

그림: 알 라운즈,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노라마*

이 구 솔트레이크시티의 전경은 사실상 하나의 역사적인 파노라마와 같다. 오른쪽으로 1850년대 말 경의 모습 그대로 사우트 템플 스트리트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교차로 모습이 보이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위로 처음의 아글 게이트가 가로질러 세워져 있다. 모퉁이쪽으로 1890년 대의 모습을 가진 비하이브 하우스가 보인다. 원래 이 건물은 1850년대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짓게 한 것이다. 그 옆으로 라이온 하우스가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 한 블록 건넌 곳에 위치한 솔트레이크 성전은 1893년에 헌납되었다.

연차 대회 광경: 교회 지도자들과 태버내클 합창단 및 회중이 일어나서 노래하고 있다.(앞쪽), 컨퍼런스 센터(위), 모임 시작 전의 이른 아침. 솔트레이크 성전 앞쪽의 광장에서 본 모습.

제171차 연차 대회
2001년 3월 31일~4월 1일

4 15219 87320 6
21987 320